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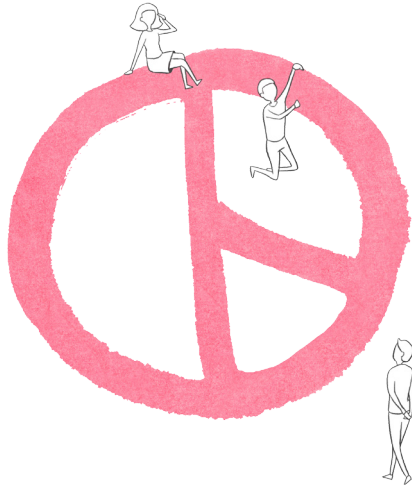
선거 체험 수기

수상작 모음집



선거 체험 수기

수상작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목차

선거체험수기 일반부

대 상	일곱 살, 선거 문화를 꽃피우다 _김민진	009
최우수상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준 그날 _김상희	013
우 수 상	미네소타에서 대한민국에 보내는 러브레터 _백경윤	016
	손자의 낙선 _이윤재	020
	주인 _이정도	024
장 려 상	아버지의 뒷모습 _강지호	027
	붉은 도장의 무게 _김도완	030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 힘찬 첫발! 내가 주인이 되는 선거 _김미숙	034
	종이의 날갯짓 _김보미	038
	나를 위한 선택 _김효선	041
	지금, 선거하러 갑니다 _남윤영	044
	투표가 만들어 낸, 네 잎 클로버 _박선영	048
	공들인 내 한 표가 행복의 날개로! _박종욱	051
	휠체어와 양복 _손민서	054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영웅 _신소라	057
	당당하게 투표하자 _양정자	061
	한 표 나온 반장 선거 _유성철	063
	선거, 그 중요함에 대하여... _이성은	066
	누구를 뽑을 것인가 _이원준	070
	세 개의 다리 _이이슬	073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이유 _이철희	076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의 기억 _이하림	079
	부반장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_임주성	083
	기억 _장민기	086
	축제의 선거, 즐겨라 _최효열	089



선거체험수기 학생부

대 상	무효표의 의미 _문주희	095
최우수상	일찍이 경험한 부정선거 _박연수	098
우 수 상	열 살적 선거 배움, 평생 간다 _강은서	101
	우리 학교 주인은 나야~나! _권지민	104
	고등학교 학생 선거를 통한 주권 의식 함양 _김건희	108
장 려 상	Beautiful day, 6.13! _강민지	111
	밥 잘 사주는 예쁜 회장 _강주희	114
	자율투표제, 그리고 치킨 _권효은	117
	선거, 그리고 그 이면 _김가현	121
	위대한 인물의 탄생은 내 손에서 시작된다 _나현빈	125
	내가 생각하는 선거에 대하여 _문준호	128
	권리이자 의무, 투표 _민서은	132
	빛나는 학교를 만드는, 위대한 선거 _박호원	135
	내 표는 친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 _오채호	138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선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_유기은	141
	내가 생각하는 선거의 문제점과 올바른 투표 _이문성	143
	국가의 미래는 국민에 의해 결정된다 _이민기	146
	'워너원'을 뽑는다면 _이연준	150
	미래의 유권자 우리, 매의 눈으로 진지하게 _이철승	153
	선거라는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며 _전대산	156
	'나'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준 선거 후 변화된 모습 _정승아	160
	뒤에서 밀어주는 반장 _조한	163
	마지막 선거 _조희은	166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작은 손길, 선거 참여 _진성민	169
	선거, 나를 바꾸다 _차현준	173

선거
체험
수기
수상작
모음집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지 70주년이 되며 법정기념일인 유권자의 날(5. 10.)이 일곱 돌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고 6. 13. 지방선거의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전 주제는 각종 선거와 관련된 내용,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 주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이며, 참가부문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초등학교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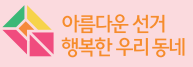
공모전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제공, 각급 학교에 공문발송, 위원회 홈페이지·SNS 게시, 잡지 광고 등을 하였으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학생부 186편, 일반부 252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20편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책자에는 부문별 수상작 50편을 수록하였으며 원작의 취지와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속어, 맞춤법 오류 등을 교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책자를 전국 도서관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하여 미래 유권자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8.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선거체험수기

일반부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4가지 원칙을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 갔던 기억이 매우 의미 있게 느껴진다. 함께 만들어간 규칙들을 기뻐하며 적용하고, 스스로 뽑은 우리 반 대표, 도우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때의 우리 반 어린이들. 먼 훗날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는다면 그 미래가 얼마나 근사할지 기대가 된다.



일반부
대상

일곱 살, 선거 문화를 꽃피우다



_ 김민진

... “왜 도우미 친구를 선생님만 뽑아요?” 뚝뚝한 한 여자아이의 질문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유치원 초임교사 시절, 당시 우리 반에는 ‘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었다. 도우미는 초등학교에서 반장과 같은 역할이었다. 도우미는 하루 동안 목걸이를 걸고 다른 친구들에게 우유를 나누어 주고, 이동할 때는 맨 앞에 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는 이 특권을 아이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미끼로 적용하여 “멋지게 생활하는 어린이를 도우미로 뽑아 줄 거야.”라고 말하며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말 잘 듣는 어린이를 도우미로 뽑았다.

도우미 역할을 도입한 후 처음에는 아이들이 내가 뽑은 도우미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2~3주 정도가 지나자, 도우미를 왜 선생님만 뽑는지 물어보는 한 여자아이의 질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이 방법이 아이들에게 ‘불공정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대학 시절에 교수님께 배웠던 방법이 떠올랐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땐, 어린이들한테 다시 물어보기’의 방법을 적용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도우미 친구를 뽑으면 좋을까?”라고 아이들에게 되돌려 질문했다. 그러자 한 남자아이가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우리가 뽑으면 되죠!”라고 대답했다.

유치원생들은 투표해본 적도 없고 ‘선거’라는 단어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뽑으려 하는 걸까가 궁금해졌다. 나는 “어떻게 우리가 도우미 친구를 뽑을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였다. 내가 말한 질문에 아이들은 생각보다 매우 많은 의견을 내었고, 서로 열띤 토의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말한 사람을 도우미로 뽑아요.”

“아, 그럼 네가 좋아하는 애만 말할 거잖아.”

“맞아, 그리고 너만 말하면 내가 생각한 사람은 도우미 못되잖아.”

일곱 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선거’, ‘투표’라는 개념이 없어서였는지 쉽게 투표로 정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투표하는 방법과 과정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아이들이 하는 것을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던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기로 다짐했다. 조금 더 원초적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공정한 선거’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었다.

처음에 아이들이 생각한 방법은 자신들이 오늘 하루 동안 멋지게 생활한 친구를 말하고, 여러 명일 경우 손을 들어서 다수결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뽑은 첫 번째 도우미가 탄생하였다. 신기하게도 그전까지 내가 뽑아준 도우미의 말은 잘 듣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뽑은 도우미의 말은 아주 잘 들어주는 것이었다. 더불어 아이들이 ‘도우미’라고 부르며 맨 앞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도우미의 역할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도우미의 중요성을 느끼게 앞으로 이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생님, 준서가 아까 자기 꺼 투표할 때 왜 손 안 들었냐고 뭐라 했어요.”

“선생님, 멋진 어린이한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자기랑 친한 애만 손들어요.”

아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나는 유치원생이라 어리다고 간과하였던 ‘비밀선거’의 원칙이 떠올랐다. 투표할 때 비밀로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우리 반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나는 “우리가 비밀로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눈을 감고 손을 들어요.”라는 방법이 나왔다. 눈을 감고 손을 드는 것은, 실눈을 뜨고 눈을 감은 척하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 나는, 투표용지와 투표소를

사진으로 소개해주며 투표를 하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교실 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모든 어린이 이름을 나열하고 밑에 도장을 찍을 칸을 만든 종이를 비치하였다. 그리고 도우미가 될 멋진 어린이 이름 밑에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몇의 아이들이 종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 수빈이한테 도장 찍고 싶은데 수빈이 이름(글자)을 몰라요.”

나는 우리 반 아이 중 아직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을 간과했던 것이다. 글자를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이 선거는 공정하지 않은 선거가 될 수도 있던 것이다.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어린이도, 글자를 못 읽는 어린이에게도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글자가 아닌 사진이 들어간 투표용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사진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도입하니 모든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아이에게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선생님! 투표 종이가 없어요.”

분명히 아이 수만큼 종이를 인쇄했는데 종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고민하던 나는 아이들이 도장을 찍고 넣은 상자를 열어보고 개수를 세어보았다. 이유는 바로 한 명의 아이가 두 장을 사용한 것이었다. 뽑고 싶은 사람이 두 명이어서 두 장을 썼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는 이 순간 ‘평등선거’의 원칙이 떠올랐다.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 단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다시 한 사람당 한 장만 사용하고, 도장은 한 번만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난 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앞서 말한 과정들을 거쳐 우리 반의 도우미를 뽑기 위한 투표 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고, 몇 주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방법을 모두 터득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뽑은 친구가 도우미가 될 때 매우 기뻐했고, 스스로 도우미가 되기 위해 더 멋지게 행동하고는 했다. 또한, 교사가 뽑았을 때 보다 도우미들은 더 친구를 도와주고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했다. 더불어 다른 반 친구들이 지나가면 “애가 오늘 우리 반 도우미야”라고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반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직접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4가지 원칙을 모두 적용한 근사한 투표 제도를 만들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4가지 원칙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일곱 살 어린이들도 이러한 네 가지 선거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갈등을 겪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을까? 나는 이 과정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지금 공정한 이 사회의 선거 제도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여전히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4가지 원칙을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 갔던 기억이 매우 의미 있게 느껴진다. 함께 만들어간 규칙들을 기뻐하며 적용하고, 스스로 뽑은 우리 반 대표, 도우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때의 우리 반 어린이들. 먼 훗날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는다면 그 미래가 얼마나 근사할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나는 그때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며 선거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되새긴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준 그날



_김상희

... 그날은 유난히도 바쁜 날이었다.

국민의 촛불이 모여 결국 예정에 없던 5월에 선거가 치러졌던 작년 '장미대선'.

긴 준비 기간을 통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선거는 대통령의 탄핵 소식과 함께 두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그렇게 치러야 했다.

주민 센터에 근무하며 이미 재작년 동시 지방선거를 경험했던 나였지만, 갑작스러운 선거 일정과 폭탄처럼 내려오는 선거 공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매일 야근을 반복하며 드디어 5월 4일, 그렇게 사전 선거일을 맞이해야 했다.

사전 선거 투표 개시부터 심상치 않았다. 2016년 지방선거의 사전 선거 때와는 사뭇 다른 사전 선거 투표율. 사전 선거 장소는 주민 센터 4층이었는데 오전 8시가 넘어서부터는 4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와”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 차에 어림잡아 스무 명은 족히 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1층을 내려갔다 다시 4층으로 오면 다시 스무 명이 쏟아지고...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인파였다. 내 임무는 서기였지만 자리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 사람들을 안내하기 바빴다.

그때였다.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

“여보세요?”

“아... 저... 나는 구월 2동 주민인데 투표가 하고 싶어요!”

“네? 아, 그러세요? 그럼 주민 센터로 6시 전까지 오시면 돼요. 지금 한창 하고 있어요.”

“저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네?”

듣고 보니 본인이 눈이 안 보이니 본인 집으로 데리러 올 수 없냐고 물었다.

확 짜증이 밀려왔다. 이제 내가 하다 하다 민원인을 모시고 와주어야 하나? 그리고 투표소는 여전히 인산인해였다. 여기 투표소의 질서가 더 중요하지, 자가용을 끌고 와 본인을 모셔가라는 전화가 달갑지 않았다.

전화가 또다시 걸려왔다.

“여보세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이번엔 꼭 해보고 싶어요.”

처음이라고? 언뜻 듣기에도 연세가 꽤 높으신 남자분이었다. 더 거절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 투덜거리며 남자 안내요원 한 명을 데리고 차에 올랐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거리는 고작 800m에 불과했다. 집 앞에 차를 대고 내려서 대문에 대고 외쳤다.

“계십니까? 계세요?”

선뜻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어 번 두드리니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여깁니다. 여기요”

소리는 대문 옆 작은 철문에서 났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다. ‘아, 이분이구나.’ 할아버지는 내복만 입으신 채로 대문과 연결된 빨랫줄을 잡고 있었다.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 우리를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눈이 안 보이셔서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도 비장애인들처럼 뛰어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할아버지 나름대로는 빠르게 나오신다고 내복 바람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우리를 맞이하였다는 생각이 드니 죄송한 마음이 깊게 들었다.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다고 했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으며 그래서 줄곧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를 들으시는데 대통령의 탄핵과 이른

대선을 주제로 방송이 잦아, 이번 대선은 꼭 해보고 싶었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에 난 왈칵 울음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그런 나를 보지 못하셔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챙겨 부축하여 차로 모시고 왔다. 또 차를 내려 한 걸음씩 부축해서 4층 투표장까지 왔다. 차에서 내려 투표소를 가는 동안에도 장애물이 많아 둘이 부축을 하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난 할아버지가 투표용지를 받는 동안 점자 보조기구를 찾았다. 투표용지와 점자 용구를 투표소에 넣어드리고, 더듬더듬 투표 용구를 만지는 손에 투표 스탬프를 쥐여드리고 나왔다. 할아버지는 꽤 오랫동안 안에 계셨고 나는 뒤에서 경호원처럼 그를 기다렸다.

환하게 웃으며 투표용지를 쥐고 나오는 주름진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내 얼굴에도 덩달아 미소가 번졌다. 나는 스무 살 때부터 으레 하는 선거, 쉬어서 좋은 날로만 생각했던 선거일. 우리에게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할아버지는 평생에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일이었으리라.

할아버지는 투표를 마치고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몇 번 더 인사를 하셨다.

‘할아버지! 이번 선거 때도 제가 모시러 갈게요.

우리나라를 위해, 할아버지를 위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미네소타에서 대한민국에 보내는 러브레터



_ 백경운

... 저는 2017년 4월 29일, 19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미국 시카고에서 참여한 유학생입니다. 낯은 날씨에 멀고 먼 투표 여정을 함께 해줬던 남자친구와 이름 모를 한국 유학생들에게 감사하며 그날을 다시 기억하고자 짧은 글로 남겨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인 유학생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한국에서 안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생활이 괜찮을지 걱정들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선거권도 없는 이방인에게 선거가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일지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동양인 여학생이 백인 학생으로부터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폭언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헛웃음이 났었던 게 기억납니다. 사실 그 여학생이 아시아계 미국인(당연히 선거권이 있는)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제 마음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 여겼던 것의 소중함, 선거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얻자마자 한국을 떠나 생활한 저는, 저에게 주어진 투표권의 의미를 곰씹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당연히 주어진 것의 소중함은

읽어 보기 전까진 인식하기 어려운 걸까요? 정치적 관심이라는 것은 어색하기만 하고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종종 당원 활동과 더불어 각종 집회 참여로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지지자들 간의 격렬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각종 SNS에서 흑색선전도 난무했지만 개중에는 유념해서 읽을 의견들도 많이 오고 갔습니다. 제 입장을 물을 때면 “NO IDEA”라고 웃어버렸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마다 친구들은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한국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자문하곤 했습니다.

한국의 촛불집회, 미네소타대학교의 1인 시위

2016년 겨울,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촛불집회는 단연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미네소타대학교에는 한 한국인 학생이 촛불집회를 알리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북한의 전쟁 도발만 묻던 미국인 학생들도 사안에 대한 사실을 듣고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각종 SNS, 인터넷 언론사를 뒤져가며 듣고 읽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NO IDEA”라고 답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로 참여하다

촛불집회에 이어 탄핵 결정이 생중계되고,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됐습니다. 제 인생의 첫 투표이자, 첫 재외선거. 재외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사전에 국외 부재자 신고도 해야 하고, 투표소 공고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재외투표소가 미네소타주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카고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단 하루를 위해, 비용도 시간도 노력도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미네소타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100여 명 이상 참여가 확인되면 투표소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돌면서 잘 알지 못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국외 부재자 신고를 권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투표소가 마련되지는 않았고, 저와 제 친구는 시카고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공항에서 투표소까지 이동 수단을 조금 싸게 이용하기 위해 시티투어버스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몰라 숙소도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면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투표소였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 이 긴 여정을 나서게 만드는 힘, 이번 선거에서 나의 한 표로 조금이나마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거일 당일, 시카고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 비가 올 듯 축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얼른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했는데 아쉽게도 미리 구매한 시티투어버스로 갈 수 없는 곳에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내 영사관 근처에 있을 거로 생각한 투표소는 도시 외곽에 자리하고 있었고, 따로 돈을 더 들여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긴장했는지 정류장도 잘 모르고 버스를 갈아타는 방법을 헤매 투표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버스 안에서 지쳐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미네소타 공항에서부터 시카고까지, 또 시카고공항에서 투표소까지 딱 봐도 투표하러 가는 한국인이다 싶은 제 또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갈아타다 길을 잃었을 때 같이 내린(길을 잃은) 학생들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생활로 시작해, 유학 생활, 투표하러 오게 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를 들었다, 부모님께도 꼭 투표하시라고 했다'라는 등 다들 각자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러 이곳에 왔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해서 보니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투표소 앞에는 비가 오는데도 아이 손을 잡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있고, 단체로 오신 노인분들도 계셨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차로 6시간 운전해서 오셨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 반가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지지자이건 간에 모두가 한날한시에 먼 곳에 있으면서도 한국을 생각하며 모인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가 깊었고, 내가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신 분들, 다녀가신 분들, 다녀가실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권 정보 등을 조회하고 투표용지를 채우고 접어서 통에 넣고 나오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의 투표로 대한민국을 향한 긴 러브레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입장을 고민하고 조금 더 옳은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건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다른 누가 아닌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권리이자, 책임이니까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재외투표는 총 5,288명이 참여했으며, 전체 등록자 7,500명 대비 투표율은 7%에 달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중 시카고 재외투표소의 투표자는 3,377명이고 주말에 유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다음 선거에는 조금 더 많은 분이 함께 해 주실 거라 기대도 하게 돼 괜히 또 설렙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담아 이 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반부
우수상

손자의 낙선



_이윤재

... “할아버지,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몰래 저에게 용돈 좀 주실 수 없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내 귀에 대고 살며시 속삭였다.

“아니, 엄마가 준 용돈은 어디에 쓰고 할아버지한테 돈을 더 달라는 거냐?”

“우리 반 재희는 매일 가게에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친구들에게 맛있는 걸 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돈이 있어야 애들한테 먹을 걸 사주지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대답이었다. 이번에 3학년에 올라간 손자가 학급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경쟁자인 재희라는 아이가 선심성 물량 공세를 하는 것이 손자의 불안을 키운 것이다. 그래서 녀석도 용돈을 더 타내 같이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요즘은 초등학교도 3학년 이상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학급에서 친구들이 직접선거로 회장단을 선출한다고 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어릴 때부터 손자를 돌봐주고 있다. 그러니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 엄마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어떤 때는 제 엄마에게 비밀로 하면서 손자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니 늙은 우리 부부를 더 따른다.

“왜, 요번 회장 선거에서 민준이가 재희한테 질것 같으냐?”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나를 찍어준다고 말은 하는데 재희가 맛있는 걸 사주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

손자의 말은 맞는 말이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른들에게도 고무신 선거라는 말과 밀가루 선거라는 말이 있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고무신을 돌렸었고, 살기 어렵던 시절이라 밀가루를 주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찍어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허물며 아이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러니 손자도 재희라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어른들로 말하면 선거자금 같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은 나는 선거에 대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손자를 지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준아, 학급회장은 어떤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똑똑하고 학급을 잘 이끌어갈 사람ियो.”

손자 녀석은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그러면 민준이와 재희 중 누가 더 똑똑하고 학급을 잘 이끌어갈 수 있나요?”

“당연히 저지요.”

“그러면 능력도 없는 재희가 친구들에게 먹을 걸 사주고 회장에 당선되면 떳떳한 일인가요?”

그러자 손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런 손자에게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었다. 학급에서 회장을 뽑는 선거든 어른들의 선거든 우리가 모두 주인이라고 교육을 했다. 그러자 어떤 말은 잘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잘 몰라 다시 묻기도 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부정선거를 한 재희를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의 선거교육을 찬찬히 듣던 손자의 느닷없는 질문에 할 말이 없었다. 손자는 한마디로 초등학교 선거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었다. 손자의 말은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선거에서 과자를 사주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후보자를 사퇴시킬 수가 있겠는가? 어른들의 선거도 아닌데 아이들의 선거에서 칼로 종이 자르듯 후보자를 사퇴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튿날 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할아버지, 재희가 살고 있는 목련아파트 친구들은 모두 재희를 찍어준대요.”

토요일에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손자가 또 재희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순간 식구들이 모두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완고하기로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하다 할 사람이고 법을 준수하는 아저씨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런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는 손자 민준이를 역성들고 있었다.

“그럼 민준아, 너도 우리가 사는 공작아파트 친구들한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잖아. 아마 우리 아파트 애들이 더 많을걸.”

며느리는 내 손자에게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었다. 목련아파트와 공작아파트는 손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군이었기에 가끔 다툼이 있긴 했었다. 같은 학교의 학군 간인데도 아파트 간에 그런 감정과 알력이 가끔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해묵은 지역감정을 떠올려 본 적도 있었다. 그랬던 아파트 간의 감정이 손자를 거쳐 내게 닥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었다. 나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준 어미야. 너는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도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깟 초등학교 3학년 3반의 회장 자리가 뭐라고 목련아파트와 공작아파트로 나누어 싸우라고 아들에게 시키느냐?”

“...”

나의 질책에 며느리는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얼굴만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제 다음 세대의 주인인 우리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는 지역감정이라는 썩은 유산을 물려줘서는 절대 안 된다.”

모든 국민이 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선거 때만 되면 동서의 지역감정으로 선거다운 선거를 해보지 못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좋은 정당의 추천을 받았어도 일정 지역 사람이나 특정 정당이 아니면 당선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한 후보자가 무려 100%에 가깝게 득표한 적이 있었으니 얼굴이 화끈거릴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의 선거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모두 어찌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준아, 학교에서 공작아파트 애들에게 네가 공작아파트에 산다며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네가 학급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나의 이런 주장에 아들과 며느리는 오만상을 찌푸렸지만 어디 내가 틀린 말을 했는가? 그러니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올 6월에도 지방선거가 있다. 그런데 벌써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소리가 살살 들리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우리도 해묵은 지역감정은 박물관의 전시실로 보내고 우리의 아들과 손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면서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너희들이니 지역을 나누지 말고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또 선택을 잘못해 정치 지도자들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할아버지,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가 울먹이며 낙선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손자의 선거운동에 보탬은 주지도 못하고 공명선거만 외친 것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졌다. 반면에 부정한 방법 없이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 말을 따르다가 낙선한 손자가 그리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민준아, 너는 떳떳하고 정당하게 선거를 치른 거야. 그러니까 떨어졌어도 자랑스러운 거야. 오히려 부정으로 당선된 재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녀석을 다독이면서 꼭 안아주었다. 이렇게 나에게 민주선거를 배운 손자가 성인이 되어 투표에 참여할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무척 궁금했다. 또 나중에 정치한다며 후보자로 나왔을 때 어릴 때의 경험이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도 되었다. 부디, 할아버지가 주장했던 공명선거의 약효가 오래도록 지속하기를 빌어본다.





일반부
우수상

주인



_이 정도

... 공모전 이름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야~ 내> 분명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런 재미있는 제목을 보고 나니 작년에 방송했던 <프로듀스101 시즌 2>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즌 1 때는 여자 연습생들이 나와서 자길 뽑아달라고 “Pick me!”를 외쳤는데 시즌 2에서는 남자 연습생들이 나와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내!”라고 노래합니다. 시청률은 각각 4.4%, 5.2%로 흥행에 성공한 TV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회 방영이 될 때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채웠고, 각종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것만 한 대화 주제가 없었습니다. 너도나도 <프로듀스 101>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TV 프로그램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투표야말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앉아서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투표해서 내가 응원하는 연습생이 낮은 순위에서 높은 순위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청률이 올라가고, 투표 참여율이 올라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티스트가 팬들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팬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예의 없이 행동하는 등, 태도 논란이 불거진 아이돌 가수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아직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들은 본인들을 좋아해 주는 팬들을 ‘국민 프로듀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춤을 추고 노래하며 본인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프로듀서님’들은 본인이 응원하는 연습생을 위해 아낌없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101명의 연습생 중에 단 11명만 가수로 데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투표 해도 그중에는 데뷔하는 연습생이 있는가 하면 상위 11명에 들지 못해서 데뷔하지 못하는 연습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연습생을 특별히 아끼고 응원하는 ‘국민 프로듀서님’들은 이 TV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본인이 응원하는 연습생에게 투표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그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연습생이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꼭 가수로 데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재미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본인이 좋아하는 연습생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한 결과는 그 연습생의 데뷔입니다. 그 연습생에게 투표한다고 해서 당장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데뷔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습생이 간절히 바라던 대로 가수 데뷔를 하고, 이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그 사람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매회 방송을 시청하고 열심히 투표하고 주변을 독려한 결과치고는 꽤 초라한 보상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투표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해서 그 후보자가 당선된다고 해도,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공직선거일에 굳이 시간을 들여서 투표장을 찾아 투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 등 공직선거일에는 투표해야 합니다. 앞서서 TV 프로그램의 예를 들었지만, 공직선거와 연습생 투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용하는 말 중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는 곧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닌,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지금 바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서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향후 4년, 혹은 5년 동안 후보자가 펼칠 정책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의 4년, 5년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보다는 사람을, 사람보다는 공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후보자들 또한 당선을 위해서, 좋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후에는 내세웠던 공약을 임기 동안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公約이 空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와 투표권자 사이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공약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공약 실천사례를 남기면,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다음 투표를 장려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신중하게 투표하는 투표권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프로듀스 101>에 투표 참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수로 101명이나 되는 많은 연습생 중에서 11명을 뽑아 데뷔시켜야 할까요? 아마 데뷔는커녕 방송 자체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 정치에 투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수로 5,0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을까요? 투표는 정말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작 가수 데뷔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연습생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며 부른 노래 '나야 나'에서 말하는 오늘 밤의 주인공은 아마 연습생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101명이나 되는 연습생 중에서 내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니 나를 뽑아 달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는 다릅니다. 공모전 이름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야~ 나!>에서 말하는 주인은 넓은 의미로 국민, 좁은 의미로 투표권을 가진 나 자신을 가리킬 것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투표는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일반부
장려상

아버지의 뒷모습



_강지호

... 아버지의 방 달력에 매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날이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 가족 생일 그리고 선거일이다. 아버지의 방 달력을 두어 장
건어보니 6월 달력에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바로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다.

아버지는 선거가 있는 날은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연초가 되면 달력에 선거일에는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으셨다. 그리고 올해 선거는 제대로 뽑아야 한다며 습관처럼
말씀하시곤 하셨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에게 항상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랐다. 아버지는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하시면서 아들에게 항상 본을 보여주셨다.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시는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옆에서 보긴 했지만, 직접 실천하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국경일마다 잊지
않으시고 태극기를 집 앞에 걸어놓으셨고, 수시로 동네 주변에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셨다.

하루는 아버지 쓰레기 줍는 모습이 친구들에게 창피한 나머지 아버지께 화를 내며
쓰레기를 줍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크게 웃으시며 쓰레기 줍는 모습이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는 모습이 더 창피한 거라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신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또 아버지는 사회복지단체에도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계셨다.

아버지는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라며 비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시더니 귓속말로 말씀하셨다. 투표권을 갖게 되면 선거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그것이라면서, 그 당시 학생이던 나는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갔다. 내가 투표권을 갖게 된 후 처음 맞게 된 선거는 200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였다. 아버지는 선거 전날부터 다음날 소풍을 가는 어린이처럼 기분이 들떠있으셨다. 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셨나 보다.

그리고 아침 6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투표하러 가지며 수차례 재촉하셨다. 그리고 과음으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는 나를 이끌고 투표장소로 향하셨다. 투표소에 가는 동안 예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금까지 알아 왔던 후보의 정책과 공약 등을 꼼꼼이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었다. 아버지는 투표장을 나온 나를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소신 있는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다. 선거에 참여한 뒤에 아버지는 해장국을 사주셨다. 아버지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오늘 해장국은 너무 맛있었다면서 하하하 웃으셨다. 아버지는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신지, 물어보지도 않으셨다.

그 후, 나는 매년 선거 때가 되면 다른 일은 뒤로 미루더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했을 때 아버지가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강조하시는 나라 사랑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2000년 7월 어느 여름날, 내 인생 최대의 고비가 찾아왔다. 나의 든든한 버팀목 같았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동창회 모임에서 계곡으로 놀러 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리고 나는 저녁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는 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최근에 건강이 매우 나빠져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아버지께 걱정만 끼쳐드렸었던 것 같아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차례의 대수술을 받으셨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버지가 제대로 걷지도, 말도 못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눈앞이 캄캄했다. 나에게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시던 아버지의 예전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아버지는 1년 후 집으로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몸에 마비가 생겨 다리와 팔을 절었고, 말씀과 생각도 제대로 못 하셨다. 그리고 장애 2급이라는 판정을 받으셨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신 것만도 너무 기뻐다.

아버지는 몇 달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셨지만 큰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집안에 경제적으로도 보탬을 주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다.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집 앞을 산책하는 정도의 생활을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뇌의 많은 손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억을 하고 계셨고 예전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하셨다.

그리고 벌써 18년이 다 되어 간다.

아버지는 아직도 몸이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고맙게도 우리 곁에 계신다.

한 번은 폭우가 내리치고, 비바람이 부는 좋지 않은 날씨였다. 아버지에게 안 좋은 날씨니 이번 투표는 하지 말자고 얘기했더니 화를 내셨다. 그리고 끝내 투표를 하러 다녀온 아버지는 옷이 다 젖은 채로 빙긋 웃고 계셨다. 요즘에도 선거 때가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투표장소로 향하신다. 절뚝절뚝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하러 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진다.

아버지는 아직도 기억하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에 꼭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일반부
장려상

붉은 도장의 무게



_김도완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0년 6월 2일 수요일. 태어나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학급 임원 선거 같은 여행연습이 아닌, 교과서에서나 보던, '어른'만이 할 수 있던 선거. 그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막 스무 살이 되었던 나에게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다. 이른 아침 들뜬 기분으로 부모님을 따라나섰다. 내가 속한 투표소는 집 근처에 있는 어린 시절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였다. 그때의 추억이 배어 있어서였는지, 바쁜 걸음 때문이었는지, 그날따라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첫 투표를 마치고 들었던 생각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뿌듯함도, 주권을 행사하였다는 보람감도 아닌, 그저 허무하다였다. 고대하던 택배의 포장을 뜯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설렘처럼, 첫 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소리 없이 증발해버렸다. 현실감 없던 공허한 마음과 그날의 회색빛 하늘이 겹쳐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명히 기억난다. 손바닥에 찍었던 붉은 도장만이 그날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나에게 있어 처음 경험했던 투표는 실감 나지 않는 신기루 같았다. 이후로도 몇 차례

선거에 참여하였지만, 처음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요된 의무감으로 하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내 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린 날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그날도 어제와 다르지 않던 평범한 하루였다. 과제에 치이며 복학생다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오후, 우연히 집어 든 휴대폰 화면에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매주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대한 기사였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당시 민간인의 국정개입 문제로 시끌시끌하던 와중이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기사를 보는 순간 딱히 무언가를 느낀 것은 아니었다. 무언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냉소적인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기사처럼, 이 또한 금세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라 속단했다. 지금껏 그러하였듯이. 가슴 한편이 뜨거워질 리 만무했다.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시선은 자연스레 다른 기사들로 옮겨갔다.

어린 시절 나는 회색을 싫어했다.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 빨간색, 파란색 같은 어떠한 색도 가지지 않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 애매한 색을 나는 싫어했다. 정의감에 불타올라 나만은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하던 소년은 자라났다. 그러나 어느새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감정을 알 수 없는 회색의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득히 보이는 저 희미한 빛 덕분이다. 언젠가 윤리학 수업시간에 칸트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소위 명예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누구도 꿈꾸지 않을 삶을 살아갔던 철학자. 그의 저작은 그가 죽은 뒤 빛을 보았다. 사실 그날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또렷이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사상을 몇 개의 문장으로 정의해 주었던 교수님의 말씀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있다. “아무리 현실이 시궁창이어도 우리는 저 하늘의 별을 쫓아야 한다. 두 발이 진흙탕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 빛을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한다.” 우둔하기까지 한 그의 모습.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금세 식어버릴 줄 알았던 그곳 온도는 점점 더 뜨거워졌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밝혔다. 형체 없는 권력이라 비웃었던 주권의 실체를 바라보았다. 부끄러웠다. 얼굴이

붙어졌고, 온몸을 엄습해오는 가려움에 견딜 수 없었다. 지금껏 정치는 나오는 상관없는, 먼 곳의 이야기라 간주해왔다. 애써 외면하며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을 벗어던졌다. 헌법 제2항의 내용은 토시 하나 빠지 않고 외우고 있었지만, 피부에 와닿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온, 그 마지막 문장을 들으며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광장에서 하늘을 향해 빛을 밝히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소 권력기관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던 모습이 아니었다. 계란이 부화하여 바위를 넘어간단던 누군가의 우스갯소리가 그날따라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 있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 무겁게 다가오는 밤이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처음에는 거친 표현에 눈이 갔다. 교과서에 이런 문장도 실릴 수 있구나. 수많은 문학작품 속에 파묻혀 지쳐있던 나에게 김수영 작가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잠시나마 지루한 일상을 환기해주는 존재였다.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그날의 기억조차 희미하지만, 그 시는 점점 더 선명해진다.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주어진 것을 당연시하는가? 정부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당시 우리는 강자들의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팔다리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였다. 이후 선거가 치러지고, 헌법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법과 제도는 기득권들의 성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주는 벽돌로 자리 잡았고, 허울뿐인 헌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헌법은 그 모습을



달리했지만, 번번이 권력자들의 야욕을 채우는 데 악용되었다.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을 던져댔다. 성벽을 무너트리기 위하여,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피가 터져 흐르도록 자신을 내던졌다. 그러나 그 벽은 생각보다 공고했다. 수많은 고통이 쌓였던 1987년 6월, 그 피를 마시며 마침내 붉은 꽃이 피어났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은 망각하고 있다. 고요함에 귀가 먹어, 그 시기, 그 순간 그들의 절규를 듣지 못하고 있다. 두 손에 쥐어진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다.

“너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니?,” “저는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싶어요.” 기억이 남아 있는 순간부터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약자한테 한없이 약해지고, 강자한테 한없이 강한 그런 사람. 몇 해 전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학문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대단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엄마 손을 잡고 처음 세상과 마주하는 아이부터 가을의 끝자락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는 노인까지, 가슴 한편에 고이 접어둔 이상!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바라는 세상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실이라는 핑계를 방패 삼아 외면하고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커다란 태풍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는 투표를 통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상향에 다가설 수 있다. 고인 물은 언젠가 썩기 마련이다. 새벽이슬로 사라져간 그들의 피를 기억하며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한다. 두 손에 주어진 자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낱장의 종이에 선명히 찍히는 붉은 도장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다. 김수영 작가의 『눈』이라는 작품이 떠오른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일반부
장려상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 힘찬 첫발! 내가 주인이 되는 선거



_김미숙

... “선생님 저도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요?” 교직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엄마가 학교 일을 할 수 없다고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반장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학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들으며 마음 아파하곤 하였다. 그리고 늘 의문이 들었다.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선거를 접하며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길러야 할 시기인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민주적인 선거에 임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였다.

사회 교과서에서 선거의 원칙도 배우고, 선거의 절차도 배우지만 아이들에게는 실생활에서 와닿을 수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 작은 시작이지만 아이들이 선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자랄 수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민주선거를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신규 교사일 때부터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서 정말 흔하게 들은 속담이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떠올랐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매일 나누며 선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보자. 그리고 3월에 직접 선거를 하여 보자.’라는 결심이 들었다.



첫 시작은 아침 등교를 하고 난 후 매일 아이들과 나누는 작은 이야기였다. “여러분은 모두 이 교실의 주인공이에요. 반장 선거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친구가 일일 도우미를 해보면서 반장이 하는 역할을 해봅시다. 진짜 성실하고 우리 학급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은 작년에 반장을 했어요. 저랑 친해서 저는 그 아이를 뽑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나를 뽑아주면 내가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문구점에서 장난감도 사줄게. 엄마가 약속하셨어.”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직접 친구들에게 아침 인사도 해 보고, 친구들이 다른 교실로 이동하면 책상 줄을 맞추는 봉사도 하고, 교실 내 분리수거도 하면서 반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그리고 선거에 나오려는 친구들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친구인지 직접 보게 되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를 뽑아주면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친구는 아침에 지각하거나 교실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 등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까지도 말썹꾸러기로 불리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장난꾸러기로 보이던 친구는 매일 아침 1등으로 교실에 오면서 다른 친구들이 오기 전에 스스로 빗자루를 들고 교실을 청소하고 창문을 열고 조용히 독서를 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사진으로만 남기고 일주일 동안 다른 친구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선거하는 날 아침이 되었다.

우리 반이나 옆 반할 것 없이 대부분 선거에 입후보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만들어 준 화려한 피켓을 들고 교문에서부터 큰 소리로 나를 뽑아달라고 외치면서 교실을 돌고 있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생각들도 오고 가는 듯했다.

선거하는 시간이 오고 선거절차를 소개하고,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모님과 연설문을 미리 만들고 외운 듯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고 발표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더듬거리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일주일간 조용히 봉사했던 작년에 장난꾸러기로 불리던 아이의 차례가 왔을 때 아이들은 술렁거리며 “저 아이는 작년에 심한 장난만 했어. 선생님께 혼만 났어. 공부도 못해. 왜 나왔을까?” 하는 소리도 나지막이 들었다.

아이는 6학년 생활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앞에 나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작년까지 숙제도 하지 않고 장난만 하는 나쁜 모습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6학년이 되어서 선거에 대해서 배우고 선생님께 매일 아침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바뀌고 노력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1등으로 교실에 와서 친구들이 공부하기 좋은 교실을 만들어보자는 약속을 스스로 했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1년간 저를 믿어주시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장난감도 사 줄 수 없고, 집으로 초대해서 생일파티를 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바쁘시지만, 선거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지막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거짓말처럼 1표 차로 그 아이는 반장이 되었고, 몇 년이 지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서도 성실하게 그 역할을 다 하는 아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한 그 선거가 한 아이의 모습도 바꿀 수 있었다. 이 일이 학교에 전해지고, 아이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전교 회장 선거에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청각장애인인 학생이 부회장으로 뽑혀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역사책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선거가 자리 잡기까지 부정선거, 불법 선거들이 이루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작은 것을 실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나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실제로 느끼며 알 수 있었다.

‘민주선거 70주년 및 제7회 유권자의 날(18. 5. 10)’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일을 휴일로 여기거나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을 뽑으면 뭐 해, 허위 공약을 내세우거나, 뽑히고 나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아파트 우편함에 선거철이 되면 가득 차 있는 선거 안내문이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는 모습을 흔히 보던 기억도 떠오른다.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이 보여준 변화처럼 선거철이 오면 실제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 노력하면 어떨까?

길거리에서 인사만 하는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안내문에 있는 공약의 실천 정도도 직접 생각해보고, 평소에 활동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그 작은 시작이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제 나의 아이도 5살이 되었다. 몇 년이 지나면 학교에 가게 되고 선거를 하게 될

것이다. “엄마, 선거는 정말 민주적인 것 같아요”라는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나는 계속 학교 현장에서 노력할 것이다. 나와 만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변화도 작을 수 있지만 계속 이루어내고 싶다.

일회성으로 생각하여 반장이나 회장, 국회의원 및 단체장을 뽑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임기 동안 내가 뽑은 사람이 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마음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 힘찬 첫발! 내가 주인이 되는 선거가 올해도 이루어지도록 나부터 작은 시작을 하여 볼 것이다.





일반부
장려상

종이의 날갯짓



_김보미

선거제함수기

038

이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 마흔이 다 되어가는 오빠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엄마는 잔뜩 애를 태우셨다. 그래서 얼굴을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셨지만 오빠는 쉽사리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오빠가 왜 결혼 생각이 없는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나 때문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뒤틀려 있었다. 뇌에 물이 차는 바람에 사지가 제멋대로 자라났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허우적거리며 비틀비틀 걷는 나를 밥 먹여 키운다고 수시로 엄마를 혼내셨다. 동네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나를 입양 보내거나 시설로 보내라고 엄마를 설득했다. 엄마는 그래도 꾀꾀하게 나를 돌보셨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오빠는 혼자만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걸 못내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했다. 무엇이든 내게 먼저 양보하고,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주었다.

아홉 살이 많았던 오빠가 아침저녁으로 업어주어 학교도 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오빠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괴물이라고 부르며 돌을 던지고, 학용품을 망가뜨렸다. 체육복을 숨기고, 신발을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오빠는 매일 얻어맞고, 빼앗기는 내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내게 기회를

주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었다. 원서를 내려 가면 구걸을 하러 온 줄 알고 로비에서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오빠는 남은 평생 내 보호자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다. 어디서도 설 자리가 없는 나를 혼자 둘 수 없어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다. 연로하신 부모님 대신 내 곁에서 나를 지키며 평생을 보내려는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자립할 수도 없었고, 어디론가 사라질 수도 없었다. 그저 이렇게 가족들의 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못 견디게 슬프고 괴로웠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오빠를 돕고 싶은 마음에 나는 간절히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았다. 그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원서를 내고, 곧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구청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게 되자, 비로소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다. 내가 일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배님에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자 선배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투표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선배님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선거라고, 선거를 통해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고, 약자가 보호받으며,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거라고.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꼼꼼히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고, 열심히 투표하신다고 했다. 그 결과로 이 자리도 생겨난 거라고 말이다.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토록 내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먼저 뭔가를 해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 해주기를, 어디선가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만 했다.

나도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것이 비록 나비의 작은 날갯짓에 불과하더라도 먼바다에서는 큰 파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싶었다. 그렇게 세상이 조금 더 약자가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오빠도 조금이나마 짐을 덜 것 같았다.

그때부터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하던 투표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나는 달력을 찾아 선거일인 수요일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 꼼꼼히 공부를 시작했다.

선거방법과 후보자의 공약을 검토하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과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견뎌내듯 살아왔을 때랑은 전혀 다른 시간이 펼쳐졌다. 기분 좋은 변화가 벌써 시작이 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선거 당일이 되어, 나는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마치고 선거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 그 작은 종이의 날갯짓이 어떤 파도가 되어 세상을 바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거 결과도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면서 나는 당선자의 공약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선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투표는 권리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으로 지켜볼 때 완성되는 것이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재료였다.

그러는 동안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내가 살아갈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좋았다. 이전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나를 쓸모없다고 비난하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일련의 깨달음을 통해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사회인으로 성장해갔다. 오빠도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홀로 설 수 있게 내버려 두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다. 우리 남매는 거울처럼 각자의 모습을 보며 변화를 만들어냈다.

오빠는 나를 돌보느라 여념 없었던 시간을 쪼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곧 결혼 날짜를 잡자,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큰 한숨을 터트렸다. 날아오를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다. 우리 남매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었다.

종이의 날갯짓은 그렇게 내 인생에 파도를 일으켜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제 제7회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 우리 손을 떠난 종이의 날갯짓이 어떤 모습의 파도가 되어 세상을 바꾸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본다.



일반부
장려상

나를 위한 선택



_김효선

... 지금까지의 나는 선거철이 되어 선거를 접할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 '프로 불참러' 겸 병행 활동자였다. 불참하거나, 선거에 참여하기는 해도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선거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 그 곁에 있었으나 정작 왜 참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쉽사리 되지 않았다. 각기 다른 외모를 가지고 쉽게 합일될 리가 없는 의견을 담아 나를 대신할 대리자 및 지도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냥 각자의 의견대로 각자의 신념대로 세상살이를 하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며 선거일마다 투표하러 가자고 나를 재촉하는 아빠를 뿔뿔한 표정으로 따르고는 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정치나 사회에 대한 나의 관심도도 점점 열려져만 갔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의 나 또한 반의 대표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일말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였던 것 같다. 그날 기분에 따라, 나한테 잘해줬던 친구를 반장이나 부반장으로 뽑거나, 아니면 투표용지에 낙서해 투표함에 넣거나 하면서 암묵적인 반항을 해왔다. 누가 되든지 반장이나 부반장이 되면 괜히 우쭐해서는 우리 반을 통째로 아우르려 하는 모습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기에 투표와 관련해서는 시큰둥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러한 나의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면증에 걸렸다가 깬 것처럼 일어나 보니 회장, 부회장 선거의 추천 명단에 어디에서 많이 본 이름 석 자가 적혀있었던 것이다.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적는 내 이름 석 자가 칠판의 하얀 분필로 진하게 적혀있는 것을 보니 눈앞이 깜깜했다.

“내가 왜?”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황스러운 내색을 했더니 옆 친구가 이야기를 했다. “네가 우리 반 회장이 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책임감도 있고...” 친구가 나를 추천해 주었다는 고마움보다는 왠지 모를 부담스러움이 너무 커서 나는 금방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다. 대충 연설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던 찰나에 다른 친구가 한 마디를 건넸다. “너만 믿는다!”

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알았다. 내가 회장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리 되새겨 보아도 답이 나오지를 알았다. 그런데 대뜸 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니, 믿음이란 것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 믿음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쉽게 간과할 뻔했던 나의 아둔한 생각으로 친구의 믿음에 상처가 나게 할 뻔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마음을 다잡고 나가서 연설을 했다. “내가 회장이 된다면...” 말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일제히 나의 입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평소 수업 시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매서운 집중력이었다. 그다음 말로 “우리 반 간식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연설을 마쳤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우리 반을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등, 허무맹랑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물론 엄마와 상의가 된 내용은 아니었으나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회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근소한 표 차로 부회장이 되었다. 회장이 된 친구는 친구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회장이 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다수의 친구들이 믿어 주었고 투표해 주었다. 소위 중 2병에 걸린 아이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움직이는 데에 진심 어린 친구의 눈빛과 언행이 닿은 것일까? 지나치게 솔직했던 나를 탓하며 그 1년을 나름 알차게 꾸려나갔던 것 같다. 다만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부회장은 아니었다. 간식을 많이 사주지는 못하고 “회장이 되면 사준다고 했던 거지!”라는



자기방어적 말을 반복하며 친구들의 신용을 잃어가는 부회장이었다.

나와는 다르게 회장이 된 친구는 정말로 친구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회장으로 남아 별명이 '쫄다장' 이었다. 동창회 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반에 신병을 앓다가 심하게 다쳐서 지체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물심양면으로 돌봐주고 곁에서 관심을 가져 준 친구가 그때의 '쫄다장'이었다. 얼핏 들으면 바보 같아 보이는 별명이지만 늘 친구들을 곁에서 잘 지켜주는 이 친구의 긍정에너지를 겪다 보면 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사실 어린 나이에 신병을 앓았었다는 말을 듣고는 무서워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나 또한 그런 아이 중 하나였는데 그런 아이를 곁에서 1년 동안이나 책임감을 느끼고 돌봐왔다는 사실에 회자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았다.

친구들의 소중한 한 표를 정말 가치 있게 행사하게 한 그 친구를 기억하며, 나는 다시금 나 자신을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나에게 투표를 해준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들은 내가 반의 대표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반을 든든하게 만들어 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내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물론 그때의 나처럼 장난으로, 마땅히 뽑을 사람이 없어서 이름을 적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선거와 투표는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내가 뽑는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가는 투표를 한 우리의 손에 달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 내가 바라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이상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던진다면 막상 당선된 사람들도 그 표에 감사한 마음과 책임감을 담아 국정운영을 잘해나가지 않을까? 즉 우리의 한 표가 당선된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지의 채찍이고, 중요한 책임감인 것이다. 이런 것을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일반부
장려상

지금, 선거하러 갑니다



_남 운영

... 선거철이 될 때마다 나는 되뇌었다.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투표일에는 투표 장소 근처를 지나가더라도, 애써 무시하며 오로지 내 갈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 시절, 학내에서 치러졌던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후보가 누구인지, 몇 명이었는지도 몰랐다. 각종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도 그냥 흘러버렸다. 그렇게 젊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일구어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미국을 가게 되었다. 남편의 공부를 위해 5년 동안 미국, 텍사스주에서 머물게 된 것이다. 외국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더니, 그곳에서 우리나라는 나에게 늘 자랑스러움과 애뜻함의 대상이었다. 텍사스의 탁 트인 파란 하늘을 올려다볼 때도,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을 내려다볼 때도 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선거철이라도 되면, 마음속의 쓸쓸함은 한층 더 깊어졌다. 그 나라 사람들이 투표하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투표권이란, 한 나라의 주인이기에 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구나!’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선거철이 되었다. 해외에 나온 뒤에야 투표권의 의미를 깨달은 게 부끄럽긴 했지만, 그제라도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투표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

알아보니, 해외에 나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재외 선거인의 신분으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내 손으로 투표를 한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일 줄이야!’

하지만 막상 투표소에 가기로 한 날, 남편의 학교에서 다급한 일이 생겼다. 차로 다섯 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휴스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우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포기해야만 했다.

마침내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부부는 귀국을 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기뻐던 것은, 그리웠던 우리 땅을 밟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기도 했지만,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다.

귀국 후 나는 지금까지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게 나라의 주인이기에 가능하다는 걸 가슴 깊이 느낀 다음부터는, 투표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참여한 투표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다. 나의 한 표가, 나와 나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걸 알게 된 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다음이었다.

3년 전이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은 주민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곧 일자리를 잃을 것 같습니다.”

경비 아저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주민들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성실하고 일 잘한다는 평판이 주민들 사이에 자자하게 퍼진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주민 한 명이 지금까지 경비 아저씨들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해왔다고 했다. 수시로 나타나 쓰레기 문제, 청소, 휴식 시간 등에 대해 참견을 넘어 일방적인 지시를 해왔다고 했다.

“그분께서 간섭하는 것도 다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를 해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못하고, 불성실했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야겠지만,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그분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못 하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에 공적인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조직을 통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규모가 작고, 아파트 안에 공적인 조직도 없었다. 다른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동 대표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파트에 새로운 경비 아저씨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새로운 경비 아저씨들도 언제든지 부당하게 해고될 수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때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주부 몇 명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희준이 엄마였다.

“여기 아줌마들 한 번 모여 봐요.”

희준이 엄마는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또렷한 것처럼 말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아파트에서 투표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희준이 엄마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과연 투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러나 희준이 엄마는 열정적으로 주민 회의, 동 대표 선출 등을 위한 주민 투표를 추진했다. 나는 그런 희준이 엄마를 볼 때마다 염려스러웠다. 나중에 일이 잘 안 되어서 실망을 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 후 나는 투표를 했다. 우리 아파트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 따위는 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그 뒤로 며칠 후 아파트 게시판에 걸린 공고문을 보았다. 공고문을 읽어 내려가던 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대표가 선출되고, 아파트 주민 회의가 개최된다니’

그 뒤로 우리 아파트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처음에 문제로 삼았던 경비 아저씨들에 대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다. 그것뿐인가? 아파트 주민들이 미처 몰랐던, 10년 차 아파트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위험했던 아파트 시설물 곳곳이 수리되기도 했다.

‘투표 한 번 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물론 이번 일을 끈질기게 이끌어준 희준이 엄마의 노력도 대단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투표가 있어야만 했다. 나는 이를 계기로, 투표의 힘에 대해 몸소 깨달았다.

이제 나는 목소리 높여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가? 우리의 의견이나 바람이 직접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라. 지금, 선거하러 갑니다.’라고.





일반부
장려상

투표가 만들어 낸, 네 잎 클로버



_ 박선영

... 딸 셋에 아들 하나. 요즘 보기 드문 4남매인 우리 집엔 작은 규칙이 있었다. 가지각색의 특성과 다양한 성격을 지닌 우리 6명 가족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투표로 정하는 것이 우리 집의 작은 규칙이었다.

2년 전, 큰언니는 피부관리사로 늦은 오전에 출근해 밤늦게야 집에 들어왔고, 작은 언니는 회사원으로 아침 일찍 나가 저녁 7시쯤 집에 들어왔다. 셋째인 나는 안산으로 학교를 다니며 뒤죽박죽인 학교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고, 재수를 하는 막내는 새벽부터 학원에 나가 밤늦게 집에 왔다.

부모님께서서는 20년 동안 장사를 하셨다. 전국으로 의료기를 판매하러 다니시는 부모님은 출, 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셨다. 종종 부모님 없이 넷이 잠을 청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린 맘에 '왜 이렇게 형제를 많이 낳아서 부모님이 고생하지?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부모님의 사랑이 4등분 되어 온전히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다.

그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두 언니와 막내까지 똑같은 생각을 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다. 큰언니는 자신이 제일 희생했다고 생각하며 우리를 나무랐고, 작은언니는 매번 감정적으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제일 많이

고생했다고 했다. 막내는 초지일관 침묵만 유지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들었다.

집에 자주 있지 못했던 부모님은 이런 상황을 뒤늦게야 아시고 우리를 한데 모았다.

“서로의 마음에 투표를 하자.”

엄마의 제안에 우리는 의아했다. 도대체 마음에 어떻게 투표를 하라는 거지? 불만이 가득 쌓인 우리 넷은 그마저도 무시했다. 부모님의 설득은 계속됐다. 같은 시간에 다 모이기 힘든 우리 4남매가 집에 있을 때마다 붙잡고 설득했다.

“이 투표는 그 누구의 행복도 아닌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첫걸음이야.”라고, 엄마가 말한 투표의 방식은 이려했다. 각자가 불만이 쌓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법에 대해 발표 후,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면 좋겠는지 투표를 하라는 것이었다.

부모님의 끈질긴 설득에 우리는 투표를 실시했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큰언니였다. 큰언니는 자신이 매일 설거지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언니는 재수를 하는 막내를 제외하고 딸 셋이서 매번 요일을 정해 설거지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요일에 투표를 했다. 작은언니와 내가 동시에 수요일에 투표해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발언을 통해 유권자 즉,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황을 어필해야 했다.

“수요일 날 학교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설거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산에서 통학하느라 힘든데, 다른 날은 녹초가 돼서 기운이 없지만 수요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어 작은언니도 자신이 왜 수요일에 설거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했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 네 명의 투표로 내가 수요일 설거지 당번으로 확정됐다.

처음에는 귀찮게만 느껴졌던 ‘투표’가 이제는 재미있어졌다. 셋째란 이유로 언니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당당하게 발언하고, 이에 대해 가족들이 공감해주며 집안에 질서와 규율이 생겼다. 작은언니의 ‘화장실 순서 정하기’ 안건과 막내의 ‘자신의 물 컵 정하기’ 안건 등을 투표하며 우리 집에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싸움이 사라지고, 웃음이 늘어났다.

평소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몸소 느끼게 됐다. 이후 나는 '셔터 문 뒤에 쌓인 택배 가져오기' 안건을 상정해 요일별로 당번을 정하고 투표를 통해 규칙을 만들었다. 투표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보고 뿌듯해졌다. 이게 '투표의 힘'이구나 매번 느꼈다.

엄마가 말했다. “너희 네 명이 한데 모여 네 잎 클로버를 만들었다.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뽀뽀이 흩어지기 바빴던 우리들이 투표로 모여 집안의 행운을 불러일으키는 ‘네 잎 클로버’가 됐다.”는 엄마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1년 전, 큰언니는 피부과 근처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막내는 삼수하게 돼 기숙학원으로 들어갔다. 이제 집에 4명의 가족이 살면서 다시금 규칙이 세워지고 새로운 투표를 하게 됐지만, 확실히 6명일 때의 느낌과는 확연히 달랐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6월 13일, 우리는 다시 뭉쳐 네 잎 클로버가 되기로 약속했다. 투표의 소중함을 집에서부터 깨달은 우리 4남매.

이번에도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한 표를 선사하기로 했다.





일반부
장려상

공들인 내 한 표가 행복의 날개로!



_ 박종욱

... “여보! 오늘은 투표하러 일찍 갑시다. 소중한 한 표를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을 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대선이라 그런지 보통 때와는 달리 아침 일찍 조르는 아내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 보였다. 항상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하루 휴식을 갖기 때문에 느긋하게 투표소에 다녀왔지만, 오늘은 아내의 말대로 이른 아침 일곱 시 경에 갔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벌써 할아버지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빠르다고 한 것이 어색할 정도로 투표소 안쪽엔 긴 줄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묵묵히 서서 무언가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모습이었다. 막상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마음이 떨어져 예상하지 못했던 후보에게 기표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은 바 있어 아마도 미리 결정하려는 듯 보였다. 사실 선거가 시작되면 은근히 투표권 행사에 신중하게 돼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적격인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후보자의 신상 관계와 국가관, 업무추진력 등 다양한 잠재 능력이 미공개된 것의 문제도 있다. 그렇지만 다방면으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선택해야 함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낭만적인 투표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투표소가 먼 소재지에 있어 약 십 오리쯤 되는 산길을 걸어가야 투표를 할 수 있고, 버스라곤 겨우 하루 두



번만 지나가는 오지의 시골이었다. 항상 투표일이 되면 그날은 농사일을 접고 쉬게 되는 농사꾼의 달콤한 휴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먼 소재지에 가서 이웃 마을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도 구경하고 친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동안 못 나는 회포를 풀며 양조장에서 제조한 특색한 막걸리를 서너 잔 마시고 오후에 쉬엄쉬엄 걸어서 돌아왔던 전형적인 투표 행사였다. 그러면서 “선거가 또 언제 있을까?” 하던...

때로는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달구지에 태워 투표소를 다녀왔던 것도 이색적인 행복한 나들이였다. 아무래도 그러한 눈여김이 좋아서 어머니는 기권하지 않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하얀 한복에 흰 고무신을 맞추어 신고 시내 나들이라며 따라나서는 설렘은 마치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가던 즐거운 마음이었을 것이다. 물론 나에게도 효성을 다했던 것이 행복한 일이었고 긴 세월이 지났지만 선거 시기가 되면 그 추억이 스멀스멀 달아와 그 옛날이 한없이 그리워진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시대에 살고 있어 아쉬움도 크다.

투표는 국민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행사다.

훌륭한 일꾼을 선택해야 국가적으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에 소중한 한 표를 아무렇게나 골라서 기표한다면 오히려 큰 잘못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정당의 소속이나 학연, 지연 등이 아닌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입후보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유권자의 미덕이다.

나는 무언의 묵직한 자세로 가정에서도 누구를 찍었으면 하고 은근히 말하지 않고 오직 자기 소신에 의한 투표를 존중해왔다. 이미 투표권이 부여되었다면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결국엔 공명선거로 이어지게 된다. 외지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 부재자 투표를 했지만,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나라의 주인의식을 강조했던 것은 그동안 몸에 밴 군인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면 누구를 찍었느냐고 묻지도 않는다. 저녁에 개표현황을 지켜보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당선되면 무척 기쁘고 기대가 되며,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선거는 항상 반대의견이 있기 마련이고 어느 입후보자는 낙선의 결과물을 받아야 한다. 결국 당선자는 많은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한 다양한 잠재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주면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진다. 지난 대선에서도 아내는 처음으로 투표장에 가면서 소중한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은 듯 오늘은 기쁜 날로 인정하자며 중립적인 면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자고 대화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아마도 소중한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공들인 내 한 표가 날개를 달아 하늘 높이 훨훨 날아오르는 희망을 찾지는 의도가 너무 좋았다.

과연 선거가 무엇이기예 그토록 당선만을 갈망하는지 선거와 권한의 관계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볼 때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내 한 표가 한없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있듯이 공직에 임할 사람은 헌법을 준수하고 부여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사랑하는 길일 것이다. 다가오는 6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철엔 파릇파릇 돌아온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아름다워짐을 느끼게 해줄 것 같다.

곧 선거 열풍이 달아오르겠지만 투명한 공정선거 정신이 스스로 깨어있도록 해야만 공들인 내 한 표가 공명선거로 이어져 훗날 행복의 날개를 달아 주게 될 것이다. 그동안 유권자를 유혹했던 각종 비리의 묵은 사건도 법에 따라 해결되었고 새로운 선거정책과 유권자의 마음이 업그레이드되었으니 아름다운 선거문화는 정착되었다고 믿는다. 나라의 유산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주권의식과 애국정신 그리고 주인 정신의 새 생명이 이어지도록 해야겠다.

내일도 활기찬 삶의 활동이 이어지는 소박한 인생살이지만 공정한 선거문화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내 한 표의 효력은 무한대의 값이요, 무한대의 힘이다.

공들여 행사하고 훌륭한 일꾼을 뽑아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정과 충성을 다한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당신의 행복에 날개를 달아 줘 유월의 파란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리라 ...





일반부
장려상

휠체어와 양복



_손민서

선거제함수기

054



... 외삼촌은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그 후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당차던 분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휠체어를 타고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그 고통과 절망감이야 구태여 말하면 무엇 하랴.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외삼촌의 평상시 소신과 신념은 사고를 당하기 전과 후가 조금도 변함없었다.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분이셨다.

특히, 작든 크든 나라에서 실시하는 선거란 선거에는 단 한 번도 기권 없이 참여했다. 오늘도 외삼촌은 아침 밥상을 물리자마자 세수를 한 뒤 옷장에서 양복을 꺼내 정갈하게 갈아입는다. 당연히 이 모든 수발은 외숙모의 차지였다. 그래서인지 선거일에는 외숙모의 볼멘소리가 댕바람부터 유난히 바드득 충천했다.

“아이고, 지켜워! 제 몸도 혼자서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 투표는 무슨 투표?”

그러면 외삼촌도 질세라 대쪽같이 외숙모에게 응수했다.

“어허, 선거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신성한 권리야. 투표나 하고 욕을 하든 말든 해야지. 나라에 부정 타는 소리 그만하고 당신도 빨리 준비나 해.”

말 많은 외숙모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흥! 당신이 투표하면 나라에서 우리 집에다 쌀을 준대? 돈을 준대? 아니면 이놈의

고물 휠체어를 새 걸로 바꿔준대? 선거고 나발이고 말짱 쓸데없는 짓이라고.”

혀를 꼰꼰 차며 주절주절하면서도 몸에 밴 듯 외숙모는 외투를 걸쳐 입고 옷 단장을 마친 외삼촌을 휠체어에 얹혀 집 밖으로 나섰다.

투표소까지는 휠체어로 한참을 가야 했다. 당연히 버스나 택시가 있긴 있었지만, 휠체어 탄 사람이 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대중교통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투표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외숙모의 불평 가득한 잔소리는 계속되었다. 아예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를 싸잡아 “도둑놈, 불한당 같은 것들을 찍어줘서 대체 댜 부귀영화를 누릴 거냐”라고.

외삼촌은 당장에라도 그렇게 수다스러운 외숙모를 저 멀리 떼어내고 싶었지만, 현실은 휠체어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처지 아닌가.

아무튼 외삼촌과 외숙모는 투표소로 들어갔고 각자 따로 기표를 마쳤다.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는 아무리 부부간이라 해도 비밀이었다. 물론 이번 선거에 관해 평소 서로 주고받던 말들이 있었으니 외삼촌은 외숙모가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또 외숙모는 외삼촌이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외삼촌과 외숙모 마음에 차는 후보가 같을 경우에는, 뜻이 달랐던 이전 다른 선거 때보다야 그나마 조용히 치러지는 정도라 할까.

투표소에서 나온 외삼촌과 외숙모는 다른데도 들르지 않고 곧장 또 휠체어로 집까지 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외숙모는 외삼촌을 휠체어에서 내려 앉히고 외삼촌이 입고 있던 양복과 와이셔츠를 벗겼다. 여전히 외숙모의 입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나 원 참, 겨우 그깟 투표 한 번 하겠다고 새벽부터 양복 다림질이나 시키는 고약한 양반 같으니. 당신 같은 사람은 애국자라고 나라에서 표창장을 줘야 할 거요.”

그러자 옷을 갈아입고 나서 TV부터 틀어놓고 선거 방송을 보던 외삼촌도 역시 혼잣말인 듯 아닌 듯 외숙모를 향해 심드렁한 대꾸를 했다.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도 다 투표하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 깊은 산골에 사는 꼬부랑 노인들도 지팡이 짚고 이삼십 리를 내려와 투표하고 가는 구먼.”

외삼촌과 외숙모는 하나 마나 한 말들을 하루 종일 했다. 투표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서로 했던 말을 하고 또 해댔다. 그러면서도 외숙모는 외삼촌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고, 외삼촌은 외숙모에게 믹스커피 한 사발을 타주었다.

외삼촌은 3년 전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외삼촌 댁 마당에는

외삼촌의 휠체어가 그대로 있고, 선거 때마다 입었던 외삼촌의 양복 또한 옷장에 여전히 걸려있다. 외숙모는 다른 건 다 태우고 없애도, 이것만은 차마 없애지를 못하겠노라며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휠체어와 양복은 외숙모에게 있어 그리운 외삼촌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단지, 선거 때마다 아웅다웅했던 외삼촌과 외숙모의 목소리만 고요히 사라졌을 뿐.

목욕탕에 다녀오는 길, 우리 동네 구청장 후보 지지자들이 내게 명함을 건넨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우렁찬 구호와 함께.

저 따스한 봄볕 사이로 외삼촌의 커다란 음성도 들리는 듯하다.

“선거 참여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가가 부여해준 신성한 권리야. 투표나 하고 욕을 하든 말든 해야지!”





일반부
장려상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영웅



_신소라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은 초등학교 권장도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학창 시절, 우리에게도 담임선생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친구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애썼던 엄석대 같은 친구가 있었다. 특히나 내가 살았던 고향은 학교가 한 곳밖에 없었고, 학교 정원이 3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과 학교 회장을 도맡아 했으며, 암암리에 다음 선거에도 학교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되던 친구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엄석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친구도 처음에는 자신이 맡은 책임을 묵묵히 수행할 뿐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불합리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아마 1년, 2년, 반장과 학교 회장까지 되면서 점점 신뢰를 주는 선생님들과 무슨 일든 잘 따라주고 치켜세워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가 보통의 친구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또 이 친구는 누구보다 키도 크고 덩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지 모른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무언가가 이 친구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학교에 이 친구만의 작은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되었다. 또 이 친구 곁에는 반 친구들을 금방이라도 제압할 수 있을 거 같은 무리가 생겨났다.



처음에는 분명 권유였다.

무슨 일을 하라고 말했을 때는 권유로 친구들에게 말을 했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권유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권유를 하던 명령을 하던 반 친구들은 반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또 처음에는 모든 일에 공평했다.

청소든 뭐든 힘든 일은 공평하게 분담을 해주었고, 모두 불만 없이 일이 처리되곤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항상 반장 곁에 있는 무리는 청소일이나 무언가 귀찮은 일을 안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반 친구들은 그들의 자신만만한 모습 앞에서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다.

이들의 행동이 거칠어질수록 아마 선생님들도 조금씩 눈치를 챌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반장에 대한 선생님들의 신뢰는 점점 커졌고, 그럴수록 모두 반장의 사회에서 그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이들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없었던 그저 그런 애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럴수록 반장선거는 단조로워졌다. 후보는 언제나 한 명이었고 찬성과 반대는 단순히 눈 감고 손드는 선에서 끝났다. 반대에 손든 친구는 후에 반장의 무리에게 장난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은 이들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았던 친구가 반에서 난동을 피운 후 자퇴를 하고 학교를 떠나갔다. 이게 우리의 불만을 밖으로 끌어내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평소 반장과 그의 무리에 불만을 키웠던 A라는 여자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재치가 있었으며 공부도 잘해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나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다. 이 친구는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나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을 불러서 반장과 그의 무리가 하고 있는 행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면서 요번에 자퇴한 친구가 그동안 괴롭힘을 당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묵묵히 바라만 보던 우리 역시도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반장의 사회를 없애고 우리 모두의 사회를 만들자고 했다.

처음에는 겁이 났다. 우리가 과연 반장과 그의 무리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우리 역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무서움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결코 이 반장의 사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한 A의 확고한 말에 나와 다른 친구들은 A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우선 우리는 목표를 정했다. 바로 고등학교 학생회장 후보로 A가 나가기로 했고, 선거공약은 깨끗하고 공평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앞세우기로 했다. 먼저 나와 친구들은 우리 학년 세 개의 반을 돌면서 친구들이 평소 반장과 그 무리를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았고, 강압과 권력 남용이 아닌 누구나 공평하고 민주적인 학급을 우리 모두 힘써 만들어 보자고 대화를 했다. 의외로 아이들은 그동안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지 쉽게 우리의 말에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눈치챈 반장과 그의 무리는 우리를 아니꼽게 쳐다보았다.

드디어 학교 회장 후보로 반장과 A가 등록되었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평소 평판이 좋았던 A여서 그런지 많은 친구들이 응원해줬다. 하지만 역시 오랜 세월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반장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또 혹여나 그가 다시 학교 회장이 되어 더 권력을 남용할까 봐 쉽게 우리를 응원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어차피 누가 되든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마침내 결정의 날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교생 앞에서 후보들이 나와 자신의 공약을 말한 후 투표가 시작되는 절치만 남은 것이다. 먼저 기호 1번인 반장이 자신의 선거 공약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만만치 않은 지지를 얻고 있는 A 앞에서 긴장이 되었는지 선거공약이 있는 연설문을 자꾸 보면서 말하였고, 말도 더듬었다. 다음으로 A가 앞으로 나가 공약을 발표했다. 어라? A도 긴장했는지 딱딱한 어조로 지루한 공약이 있는 연설문을 보면서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애들이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쯤 A는 우리를 보면서 씩 웃더니 연설문을 마구 찢기 시작했다. 애들은 놀랐고, 우리 역시 당황했다. 그러더니 다시 연설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지키기도 못할 지루한 공약들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적이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공평한 학급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기호 2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맹랑한 A의 연설에 환호했고, 결국 큰 투표 차로 A가 학교 회장이 되었으며, 기세등등했던 반장과 그의 무리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마 한 번도 패배의 쓴맛을 보지 못했던 반장 역시 충격이 컸기 때문에 한동안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난 듯 보였다.

A는 학생회장의 몫을 잘 해내갔다. 더 이상 불공평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고,

그 자리를 민주와 평등이 채워나갔다. 누가 되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자기생각이 맞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성인이 된 나는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철일 때면 학창시절 내가 직접 뽑은 우리의 영웅 A를 생각하곤 한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은 누가 되든 똑같은 것이라고 하고 사회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물론 모두의 소원을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노력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평한 사회, 그 누구의 사회도 아닌 우리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뽑은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모두들 그러한 변화된 사회를 꿈꾸며 소중한 투표를 하기를 기원한다.





일반부
장려상

당당하게 투표하자



_양정자

... 저는 처음 선거를 할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벽보에 붙은 후보들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을 보고 찍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러 가서 투표용지를 받으니 사진도 없고 어디에다 찍어야 할지 몰라서 무척 당황스러워 그냥 빈칸 아무 데나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속상해서 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또 선거를 할 때는 남편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배워서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잘 찍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니까 투표를 할 때마다 너무나 떨리고 걱정이 되어서 글을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진천군 노인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쳐 준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던지 바로 등록을 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한 글자씩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데 복지관 사무국장님께서 진천군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한글을 가르쳐준다고 하여 시험을 보고 합격 후 초등 3단계에서 1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렇게 소원했던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 욕심이 생겨 중학교도 보내 달라고 군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올해 진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중학교가 생겨서 3월 5일에 입학식을 하였고, 지금도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글을 몰라서 어둡게만 살았는데 공부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읽고 쓰니까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떨지 않고 당당하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뽑은 후보가 당선되어 국민들을 위해 깨끗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부
장려상

한 표 나온 반장 선거



_유성철

... 올해 불혹이 된 저에게 이루지 못한 한이 있다면, 학창시절에 단 한 번도 반장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선거를 통해 반장을 선출했고, 저는 4, 5, 6학년 모두 반장 후보에는 올랐으나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하고 3년 내내 총무를 했습니다. 그중 6학년 때의 반장선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아직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6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만큼 올해는 꼭 반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터였습니다. 반 친구들과하고도 많이 친해져 이번 반장 선거에서는 최소한 부반장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반장 선거일이 오고, 또 한 번 반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반장 선거를 하고, 다시 부반장 선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혹여나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도 부반장 선거에 다시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반장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듣고 투표는 시작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낸 친구들을 믿으며 저는 저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투표가 끝나고, 결과 발표를 하는 시간. 개표를 담당 한 친구들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칠판에 '바를 正' 자로 결과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부터는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렸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한 표. 제가 찍은 한 표만이 투표 결과였습니다.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차라리 0표가 낫지. 제가 뽑은 한 표만 있는 칠판을 보던 그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충격에 빠진 저에게 주변 친구들은 그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반장선거 전에 반 여자아이들이 올해 반장은 여자가 꼭 되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그것을 들은 남자아이들은 사전에 남자 후보 한 명을 밀어주기로 약속하고, 4학년, 5학년 때 반장 경험이 있던 친구를 지정해서 모두가 뽑아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자, 여자 수가 비슷했던 저희 반이라 남자, 여자 간 신경전의 결과였지요.

남자아이들은 부반장 선거에서는 저를 밀기로 했다며 부반장 선거에 꼭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표를 받은 충격은 정말이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친구 중 한 명이라도 저에게 표를 주었다면 그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 하나의 표가 그렇게도 소중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반장 선거가 시작되고 저는 선생님이 불러주는 후보 중 한 명으로 또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반장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표의 부끄러움과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또 한 번 선거를 할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또 다른 반장 후보였던 여자아이가 부반장이 되었고 저는 또 총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 그 누구도 제가 한 표 나온 것에 대해 놀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친구들이라, 저도 금방 기분이 풀려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한 표 나온 이야기를 졸업 때 만든 학급문집에 적어 초등학교 때의 추억으로 남겼지요.

초등학교 때는 괜스레 남자 여자를 나눠 놓고 뭔가 남자, 여자가 경쟁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치 어른들 정치의 정당과 같이 남자, 여자 편이 나누어 반장 선거까지 이어진 것이겠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한 명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하는 영악한 약속을 한 것도, 상대 정당을 이기기 위해 다른 정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어른들의 정치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른이 되고 처음 선거를 하게 된 날을 기억합니다. 드디어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뿌듯함이 커서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소에서 투표했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의 한 표 받은 추억을 떠올리며 투표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약 20년 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선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이나 걸어온 길을 보지 않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사람을 무조건 찍은 적도 있고, 제가 지지하지 않는 상대 정당이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 제가 지지하지도 않는 이에게 투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소중한 한 표를 그렇게 의미 없이 소비해 버린 것이겠지요.

다행히 언젠가부터 후보들의 공약도 잘 챙겨 듣게 되고, 후보들의 관련 정보들도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들과 지역을 위해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로 나오는 모든 분들 또한 제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기다렸던 그 한 표를 기다리시겠지요. 그 한 표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지역과 미래를 결정하는 한 표이니만큼 후보들보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진실로 소중한 한 표일 것입니다. 그 한 표를 단순히 편을 나누기 위해 쓴다면 초등학교생들의 그때 선거와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잘 생각해서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의 권리이지 의무일 것 같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에게도 아빠가 어릴 적 반장 선거에서 한 표만 받은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걸 통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지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 때는 투표소에 아이들과 함께 가 선거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른들과 이다음 아이들이 선택할 한 표 한 표를 통해 만들어질 테니 아이들에게 선거와 한 표의 소중함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진실로 소중히 쓰일 수 있는 선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일반부
장려상

선거, 그 중요함에 대하여...



_이 성은

• • • 견물생심(見物生心).

의역하면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욕심은 자연적인 감정인 칠정(七情) 중 하나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자신의 물건이 아니거나 분수 넘치는 물건을 탐하게 되면 분명 화가 뒤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전국 지역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 때의 일이다. 채 삭풍이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아버지와 친분이 돈독했던 동네 아저씨가 찾아오셨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찾아오셨냐고 정중히 물었다.

“자네, 다음 달에 조합장 선거 있는 거 알지?”

“네, 압니다만…….”

“자네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네.”

“도, 도움이라뇨? 무슨 도움을?”

“자, 우선 이거 받게.”

아저씨가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네는 것이었다.

“얼마 안 되지만, 넣어두게.”

난 돈 봉투인 것을 직감하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막무가내 건네는 것이었다.



“내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네. 자네도 알다시피 현 조합장이 얼마나 비리가 많았었나? 비리로 얼룩진 조합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조합장을 바꿔야만 하네.”

아저씨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청년회 회장이 아니던가? 자네가 젊은 조합원들을 설득해 주게.”

“제, 제가요?”

“그래, 자넨 발도 넓고 평판도 좋지 않던가?”

“알, 알겠습니다. 부탁하시니 도와는 드리지요. 하지만 이걸 받을 수가…”

봉투를 아저씨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런데 아저씨가 받으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난감했다.

“아저씨, 그게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선관위에서 하루가 멀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겁이 그리 많아! 너무 걱정하지 말게.”

아저씨는 봉투를 던지다시피 놓고 돌아갔다. 아저씨에게 돌려줄 거라 했지만, 철없는 아내는 막무가내로 봉투를 들고 출행량을 쳤다.

선거철이 되자 아저씨는 매일 전화를 걸어와 젊은 조합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종용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젊은 조합원들에게 아저씨를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

선관위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수수는 절대로 안 된다는 문자를 받거나 거리의 현수막을 볼 때면 내 양심이 심하게 요동쳤다.

선거 3일을 앞두고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다. 우세가 점쳐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젊은 조합원들을 독려해달라고 부탁하며 이번에도 봉투를 꺼내 놓았다. 다시 극구 사양했지만, 막무가내인 아저씨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아저씨는 근소한 차이로 현 조합장을 누르고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아뿔싸! 조합장 취임식을 치른 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경찰들이 조합장 집무실에 들이닥쳐 아저씨를 연행해 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합장 선거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가 된 것이었다.

아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지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바람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아저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에 괴로웠다. 아내 역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마음을 다잡고 아내와 아저씨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자네가 어떤 일인가?”

수염이 덩수룩하게 자란 아저씨를 보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핑 돌았다.

“지내시기엔 어떠세요?”

내 물음에 아저씨는 쓴웃음을 웃어 보였다.

“이,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뭔가?”

“아저씨가 주신 것입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은 거 같아 괴로웠습니다.”

“내가 괜히 젊은 사람 마음고생을 시킨 것 같군! 마음은 알겠으니 그만 넣어 두게.”

“아, 아닙니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저씨가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다.

“사실 내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네. 하지만 내게 금품을 받은 후 선관위에 고발하여 보상금을 챙긴 인간을 생각하면 이가 갈릴 지경이네. 그러나 모든 게 내 업보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묻기로 했네. 내가 그 돈 봉투를 받게 되면 어찌겠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니 도로 가져가게. 정 마음이 편치 않으면 좋은 곳에 쓰도록 해.”

아저씨의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상의 끝에 돈은 선교단체에 기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청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내 인생에 너무도 큰 오점을 남긴 것 같아 괴로웠다.

아저씨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던 날, 열 일을 제쳐두고 시간을 내어 교도소를 찾았다. 교도소 앞엔 사람들로 북적였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조합장까지 교도소에 찾아온 것을 보니 아저씨의 명망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저씨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런 아저씨를 보며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모든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조합장 보궐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졌다. 혈연, 학연, 지연을 떠나 조합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합장이 선출된 것이었다. 무엇보다 금품과 향응이 사라진 깨끗한 보궐선거였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선거들을 접하게 된다. 모든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야말로 깨끗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공정함이 결여된 선거는 사회악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선거 풍토가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잘못된 선거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우린 경험하지 않았던가. 잘못 뽑은 위정자가 얼마나 국가와 사회를 어지럽게 하였는지.





일반부
장려상

누구를 뽑을 것인가



_이원준

... 중, 고등학교 시절 줄곧 반장과 부반장을 했었다. 따지기를 잘했던 나는 반 아이들의 고충과 학급 생활에서 비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반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역할이었고 친구들은 그런 나를 뽑아줬다. 그런 내게 위기가 찾아온 때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의 반장선거였다. 세 명의 후보가 나왔고 내가 첫 번째로 공약을 말했다. 뒤이어 다른 친구가 공약을 말했다. 사실 둘 다 꽤 흔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 차례가 왔다. 당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정의사회를 꿈꾸던 내게 그 친구의 공약은 현실의 쓴맛을 보게 해줬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햄버거와 피자를 사겠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누가 되든 관심 없던, 이른바 ‘부동층’ 아이들의 표는 그 친구에게로 갔다.

술선수범 열심히 하고 교우 관계도 제일 좋았기에 자신 있었지만, 패스트푸드에 무너지고 말았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 부모들 사이에선 반장이 된 아이가 ‘축하택’이란 핑계로 학급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었고, 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약에서 피자가 나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물론 알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내가 ‘그건 좀 정의롭지 못한걸?’ 하면 ‘그럼 너도 하면 되잖아’라는 대답과 반 아이들의 눈총이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있었으리라.

고등학교 2학년, 나는 반장이 된 그 친구가 사준 피자에서 인생의 쓴맛을 느꼈다.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내가 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피자에 넘어가 버린 좃대 없는 녀석들!’ 하며 친구들을 원망했던 나를 반성했다. 늦게나마 안 사실이지만, 선거란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는 게임이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다. 친구들이 누구에게 표를 줄지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도 간단했다. 그 기준의 초석은 ‘누가 내게 이득이 되는가?’이다. 친구들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이득은 피자였을 테다.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한국 사회의 유권자들은 간단하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기업과 부유층에게 납세의 부담을 덜어 세계 경쟁력을 높이고 노력에 보상을 보장하는 사회, 즉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보수’유권자와 세울을 높여 부의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즉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진보’유권자가 있다.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들은 자신의 정당 성격에 맞는 공약들을 제시해 유권자들을 공략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약의 과대포장과 네거티브 전략을 뽑을 수 있다.

앞서,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뉜다고 했다. 그렇기에 후보들은 한쪽에서 유권자들을 현혹할 만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걸고 나올 경우, 상대 쪽도 그에 상응하는 공약을 들고나오게 된다. 그렇기에 공약은 실제 이행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유권자들은 누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지 판가름하기 힘들어진다. 또한, 진흙탕 싸움인 네거티브 전략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많다. 네거티브 전략이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 비방함으로써 본인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전략’을 뜻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서로 힘뜯는 전략이다. 유독 선거 시즌에 후보들의 재산, 병역, 사생활, 과거 발언, 가족 등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물론 후보들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부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추측성 기사이고 근거가 약하거나 없다. 게다가 지나친 사생활 침해와 정치 능력과 관련 없는 무분별한 공격은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성숙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후보와 유권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후보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무분별한 인기몰이식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후보의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선거법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 또한 근거 없는 상대

후보를 향한 비난도 기준을 세워 금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유권자들이 각 후보를 투명한 렌즈로 바라볼 수 있다.

유권자들의 경우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성장하게 만드는 비료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후보가 나의 이익을 대변해 줄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지, 각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할 때가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때다. 성숙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가 가장 정통성이 있다.

후보 중 뽑을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 후보 중 어느 한쪽은 그나마 내 이익을 대변하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만약 투표 날 바쁜 일이 있어도 문제없다. 요즘은 투표 날 바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지켜주는 '사전투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년 5월 대선 때 군대에서 사전투표제를 처음 이용해봤다. 간편하고 편리하다. 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다 같이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당부하건대 우리가 가진 참정권은 그 옛날,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소중한 민주시민의 권리임을 잊지 말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값진 투표용지에 당당하게 도장 찍고 오는 날을 그려본다. 그리고 그렇게 바란다.





일반부
장려상

세 개의 다리



_이이슬

... “똑똑 또 똑”

고요한 새벽을 가르는 빗방울이 마당으로 떨어진다. 자꾸만 오는 잠이 무거워 눈은 뜨지도 못했던만 빗소리는 선명하다. ‘하필 오늘 같은 날 비가 올 게 뭐람’ 투덜거리며 일어났다. 투표하러 올 사람들을 위해 우산꽃이나 카펫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번거로웠다.

새벽에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따라 출근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운치는 있었다.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떠나는 느낌도 났다. 새로운 바람,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하자며 스스로를 타일렀다. 여전히 바깥은 캄캄했지만, 투표소인 면사무소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면사무소 뒤 다목적 강당으로 가 습기 찬 바닥을 마른 대걸레로 닦고, 투표하러 갈 길목마다 카펫을 깔았다. 엄숙히 선서를 마친 뒤 투표를 위한 준비를 했다. 6시가 되었다.

어렸을 적부터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 할아버지를 보며 호기심 가득했던 여섯 살의 꼬마는 항상 아버지께 묻곤 했다. “아빠, 저 할아버지는 왜 맨 날 TV에 나와?”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저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야.”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물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투표로 뽑는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저



대통령은 아빠랑 엄마가 뽑은 사람이야.”라고 했다.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이 참 멋져 보였다. 나중에 20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에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8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이 나오자 어렸을 적의 바람이 점점 더 가까워짐을 느꼈다. 부모님 슬하에 있던 내가 이제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된 느낌이 들었다. 곧 선거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다. 단지 생일이 조금 늦어 아직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못한 것뿐인 친구들은 그런 나를 부러워해 주었다.

대학생이 되어 치른 내 생애 첫 투표는 부재자 투표였다. 준비물을 인터넷에서 찾아본 뒤 빈 강의 시간에 구청으로 가서 줄을 섰다. 이게 맞는지 앞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다. 기표소에 들어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투표용지에 첫 도장을 찍었다.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 때문에 부모님은 선거일마다 투표를 하러 가신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엄마, 아빠가 한 표 행사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냐고, 오늘 같은 날 좀 쉬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하고 와야 한다고 늘 새벽에 표를 행사하러 가셨다. 도보로 40분이나 걸리는 곳을 오토바이를 타서든 걸어가서든 늘 다녀오셨다. 한때는 그런 행동이 미련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내가 투표를 해보니 알게 되었다.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행사한다는 것은 꽤 멋진 일이었다.

그러나 투표를 마치면 쉬는 날을 만끽했던 내가 이제 선거 요원이 되어 직접 투표소를 지키고 있으려니 맥이 빠졌다. 선거인명부 확인부터 투표용지까지 세세하게 살피고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것이 멋지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다. 이 새벽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벌써 지루했다.

미리 와 계셨던 어르신 몇 분들께서 첫 투표를 개시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찾고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혹시나 허투루 보다가 일을 그르칠까 봐 신중히 신중을 기했다. 이른 아침,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이제 장대비로 변하여 낡은 강당의 지붕을 세차게 때렸다. 여기저기 비가 뚝! 뚝! 뚝! 섰다. 새는 곳마다 양동이며, 큰 대야가 놓여 빗물이 채워졌다. 열악한 투표 환경에 놀라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이장님들이 직접 승합차를 몰며 마을 어르신들을 투표소까지 모셔오고 다시 데려가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하루에 세 번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한 이장님은 허허 웃으셨다. 시골에서 날이 궂은 데도 불구하고 투표하려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였다. 투표소에 도착하신 할머니들은 “뭘 놈의 비가 요라고 쏟아져 부드냐?” 하며 파마머리에 맺힌 빗방울을 쓱쓱 털어내셨다. “그래도 투표하러 왔으니까, 하고 가야 지라.” 하시며 품 안에서 소중히 안고 온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꺼내셨다. 선거인명부에서 한글학교에서 배웠으니 내 이름 석 자 한글로 써보신다며 서명하신 분도 계셨고, 세월이 켜켜이 쌓인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분들도 계셨다. 투표를 마치고 뿌듯한 모습으로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투표시간이 마무리될 무렵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강당으로 들어오셨다. 몸이 불편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 어르신께 투표사무원들은 괜찮다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날은 집에서 좀 쉬는 편이 더 낫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어르신을 보다가 다음 유권자를 위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했다.

문득 고개를 돌리다가 기표소를 바라보았을 때였다. 기표소의 하얀 천막 아래 세 개의 다리가 보였다. 평생을 걸어온 두 다리와 이제 그 걸음의 무게를 덜어줄 지팡이까지 총 세 개의 다리였다. 알맞게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온 의지의 다리였다. 코끝이 찡해졌다. 새벽 출근이 싫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도 불평만 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녁 6시, 투표는 종료되었다. 아속하게 주룩주룩 내리던 비도 이제 그쳐가고 있었다. 법정 공휴일을 온전히 다 쉬진 못했지만 뿌듯했다. 훗날 많은 선거를 치르고, 많은 투표권을 행사할 날이 올 테지만 매번 참여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귀찮다고,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을 기억해 보려고 한다. 나를 일깨워준 그 세 개의 다리를.





일반부
장려상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이유



_이 철희

선거제합수기

076



... 지난 2월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그중에서도 여자 컬링 대표 팀은 다른 어떤 종목의 선수들보다 주목을 받으며 일약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비록 결승전에서 석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쳤지만, 이들에게 금메달을 딴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더 큰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는 것은 매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투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거와 스포츠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심판을 두고 후보자들이 승패를 겨룬다는 점과 운동경기에서 팬의 응원이 필수적이듯 후보자에게는 유권자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특히 그렇다.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선거 관련 게시물 중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적발하고, 예방 및 삭제 조치를 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에서 일하다 보니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에 대한 열정이 스포츠선수의 우승에 대한 열망 못지않게 뜨거움을 느낀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선거가 어떤 식으로든 흥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뜨거움을 넘어 과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과 반대 진영에 서 있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일삼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심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

한편에서는 순간의 실수 혹은 작은 욕심에서 비롯된 일을 이렇게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흠집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후보자와 그 지역 유권자,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존속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살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자위하며 넘어가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들이 적잖이 찾아온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일을 진행해야 할 만큼의 잘못이 아니라면 한 번쯤 그냥 넘어가는 게 인자상정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와 원리원칙만을 외치다 보면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는 인식 또한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단언컨대, 선거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과 투명이고 이에 조그만 흠집이라도 생기는 순간, 깨진 유리잔처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스포츠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컬링 여자 대표팀은 4년 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4년 동안 실력을 갈고닦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은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만약 이들이 재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올림픽 과정에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면, 아무리 좋은 성적을 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토록 큰 응원과 격려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패배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을 비롯한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새로운 동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따라서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모든 후보자와 지지자가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선거까지 2달이 남았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승자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을, 패자에게는 재도약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6.13 지방선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일반부
장려상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의 기억



_이하림

... 저는 역사, 근현대사 과목을 누구보다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들을 일일이 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식민지나 독재정권이라는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를 굳이 되새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정치인들은 다 나쁘고 돈만 밝힌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도 모두 믿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문득문득 너무도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을 욕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고, 법이 있지만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엇인가에 홀린 듯 뉴질랜드의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의 모 대학 정치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 운 좋게, 교수님 소개로 알게 된 한 선배님을 따라, ○○정당 시절 국민사랑의회의 위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참 당이 분열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을 한 것은 없었고,



다 같이 헌법 공부를 한 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정치대학원에서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실전 경험을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우연히 한 여성운동가분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그분을 따라 ○○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운동가 분과 함께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중에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20대 총선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운동가 분도 총선에 나가실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분은 사회 경험과 이력이 화려하셨고 충분히 당선될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30대 중반 청년 여성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되도록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여성이라는 이유, 그리고 청년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았는지를 깊이 공감했었기 때문에 대학원도 휴학하고 선거 캠프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그 청년 여성 후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 그냥 요즘 보기 드문 강인한 청년, 강인한 여성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함께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그 당시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첫 선거 캠프 모임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 청년 여성 후보자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지인 중에는 국내 금융권의 부유층 자제분도 계셨기 때문에 사실 별로 놀라지는 않았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 뒤로 여의도에 본격적으로 선거 캠프를 차리고 활동을 하는데, 이 청년 여성 후보자가 영웅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렸습니다.

정당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정치인들이나 정당 사람들이 모두 착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큼 ○○의원은 직접, 선거와 관련된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주기도 했고, 작가나 감독이라는 사람들도 선거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에 이 청년 여성 후보자가 정말 인맥도 많고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들과도 친분이 쌓이게 되었는데 그중 한 후보가 “사실 아빠가 ○○○이니까 가능하지, 어느 청년 후보가 이렇게 선거 캠프 사무실을 열고 작가 같은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다 자기 혼자 힘겹게 하지.”라는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그동안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터졌던 날은 2016년 3월 초,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1차 서류 등록을 마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도록 아직 서류 완성이 되지 않아 동분서주하고 있던 차에, 한 안경 낀 중년 남성이 선거 캠프 사무실을 방문했고, 후보자와 중년 남성, 그리고 저는 인근 바에 가서 제출 서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도 다른 작가나 컨설턴트들처럼 도움을 주는 분이신 줄 알았고, 급하게 따라나서느라 노트나 필기구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조언해주는 내용을 녹음해서 추후 사무실에 가서 정리하겠다고 동의를 구한 뒤, 제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너무도 명쾌한 설명에 속이 땡 뚫리는 것 같았고,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목에 걸린 명찰 속 이름을 보고 교수님이시냐고 물어보니, 어색하게 웃으시기에 무례를 범한 것 같아 사과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서류는 무사히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저녁 뒤풀이 자리였습니다. 다른 선거 캠프 분들에게 명찰 속 이름을 언급하며 그분 너무 똑똑하신 것 같다고 말하자, 황급히 그 사람 고위 당직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되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구의원, 시 의원, 국회의원이 모두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고 의원님 소리를 듣기에, 모두 동급의 의원인 줄 알았던 무지한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분이 있는 후보자에게 왜 고위 당직자라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느냐고 조용히 물어보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그 사람이 그냥 고위 당직자가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면접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손발이 부들거리고, 그냥 단순히 멋진 청년 여성 후보자와 끝까지 노력하여 완주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저를 왜 부정의 공간에 끌어들이는지 화가 치밀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던 저는, 곧바로 내용들을 정리해 ○○당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제보했고, 그 사실은 급격히 퍼져, 각종 뉴스에 보도되며 해당 후보자가 후보직 자진 사퇴를 하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배신자, 내부고발자라는 욕도 먹고, 부모님께서도 왜 굳이 나서서 일을 그르쳤나면서 한숨을 쉬셨던 터라, 많이 외롭고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가치관에 혼란이 왔었습니다.

몇 달간 한국에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외국에 나가고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2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그때를 떠올려보니, 그 누구도 칭찬을 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들이 한국 전쟁과 독재 정권 시절에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말하며, 청년들의 나약함을 지적할 때, 웬지 저는 당당하게 말할 거리가 생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내부 고발이 '트러블 메이커' 취급을 받아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용감하게 '미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큰 용기를 내시는 분들을 보며,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는 머리로 암기하지 못해 수능 근현대사는 7등급, 국사는 9등급을 받았지만, 지금의 한국을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하얀 도화지에 가깝던 저의 뇌리에 첫 선거 캠프의 기억은 먹물 한 방울로 남게 되었지만, 당시의 경험이 있었기에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진 만큼 산 교육의 대가였다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유권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옛날의 저처럼 무작정 ○번을 찍거나 더 말 잘하는 사람, 혹은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을 뽑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부
장려상

부반장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_임주성



...

선거 당일

“반장이 되면 우리 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반장이 되어 반장을 도와 행복한 학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장과 부반장 후보의 짧은 소견 발표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쏟아진다. 예상보다 큰 박수 소리에 두 후보는 민망했는지 어색해하며 자리로 들어간다. 3월 어느 날의 고등학교 3학년 교실 풍경. 담임인 나는 늘 그렇듯 담담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곧 있을 돌발 상황을 예상치 못한 채.

선거 닷새 전

새 학기 첫날,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나는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 2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했다. 부반장 후보에 관심을 보였던 민수는 2학년 때 작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생각을 접고 말았다.

“자, 임원 후보로 출마할 사람은 자기소개와 함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와 공약을 써서 내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단, 학급 친구들 5명 이상이 추천을 해 주어야 한다.”

내 말이 끝나자 서너 명이 입후보 등록 용지를 가져갔고, 아이들은 몇몇 이름을

수군대며 자기들끼리 여론을 조성하는 분위기였다.

다음 날 반장 후보 1명, 부반장 후보 1명이 최종 등록했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을 예상했던 바라 조금 의아했지만, 어렵지 않게 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돼서 내심 흥기분하기도 했다.

선거 사흘 전

“반장과 부반장 후보가 한 명씩이라 투표는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규정상 투표 인원이 학급 인원의 2/3가 넘어야 하고, 투표 인원의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다.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표하도록 하자.”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축하한다.”는 말이 군데군데서 들리더니, 몇몇 아이들은 대놓고 반장 되면 피자과 치킨 중 뭘 쓸 거냐고 묻기도 했다.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학급으로 이 끌겠다’는 상투적인 내용의 선거 홍보물은 아이들에게 별 흥미를 끌지 못했고, 이미 결정이 나 버린 듯 그렇게 선거일은 조용히 다가왔다.

다시 선거 당일

투표가 시작된다. 번호순대로 줄을 서서 투표하되, 한 명이 투표할 동안 나머지는 복도에서 대기한다. 한 명씩 투표할 때마다 화면의 숫자가 올라간다. 누가 무엇을 눌렀는지는 본인 외엔 알 수가 없다. “반대, 반대”하며 수군대는 소리, 몇몇의 귀찮은 표정과 장난기 가득한 몸짓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

“자, 장난으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투표하세요!” 내 말이 끝나고 잠시 후 투표는 종료되었고 화면에 결과가 나타난다. 투표 인원 27명 중 찬성 18표, 반대 9표. 반장이 선출되었다. 압도적인 지지라 하기엔 생각보다 반대표가 많다.

이어서 바로 부반장 투표를 시작했다. 후보인 성민이는 지난 2년간 부반장을 했던 터라 의기양양하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반대가 15표로 찬성보다 3표가 더 많다. 의외의 결과에 성민이는 얼떨떨한 표정이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기는 나도 마찬가지이다. 단독 후보가 나와, 반대표가 많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찬성표가 12표로 과반수가 되지 않아 부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내일 부반장 후보 등록과 선출에 대해 다시 안내하겠다.”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선거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뭔가 개운치가 않다.



선거 다음 날

다음 날, 성민이와 성민이를 지지했던 친구들이 교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이거 진짜 애들이 장난친 거예요. 반대, 반대하면서 소곤거리다가, 반대가 얼마나 나오나 궁금해서 장난으로 반대표를 누른 건데, 진짜 반대가 많아져 버린 거라고요. 투표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성민이를 지지했던 영규가 격앙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맞아요. 애들도 조금은 미안해하고 있어요. 다시 투표하면 아마 찬성이 더 많을 거예요.” 떨어진 것이 억울했는지 성민이도 한목소리로 거들었다. 고민스러웠다.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나 역시 감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투표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이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어찌 됐든 한 표 한 표 모두 자기 생각으로 투표한 것인 만큼 그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고, 재선거를 하는 것이 맞아. 민주주의의 원칙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길 순 없잖아?”

“그래도…” 뭔가 더 말할 것 같았던 성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교무실에서 나갔다. 안타까웠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선거 이틀 후

성민이가 또 교무실을 찾아왔다.

“선생님, 투표를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재선거에 제가 또 출마하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미 반대표를 받은 사람이 다시 후보가 되어 선거에 출마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선거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킬 수가 없지 않은가. 한참을 얘기한 후에야 성민이는 내 말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낙선을 인정했다. 2년간 해왔던 부반장이었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며 성민이는 교실로 돌아갔다. 성민이의 낙선은 정말 아이들의 장난이었을까?

한 표의 소중함, 그리고 결과를 인정하는 아름다움, 선거의 참된 의미를 새삼 깨닫는 3월이었다.





일반부
장려상

기억



_장민기

선거제함수기

086



이름다운 서거
행복만 우리동네

... 사람이 자주 다니는 방향으로 숲속에 길이 생기듯, 인간의 뇌도 평상시에 반복되는 언행을 따라 '신경망'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노인 중증 치매 환자들은 한평생 어떤 신경망을 기르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평생 편의점을 운영해 온 한 노인은, 다른 모든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계산기를 쓰는 데는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한다.

전쟁과 억압의 시대를 살아온 외할머니는 내 생각에 상당히 독특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 할머니는 외손자인 나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추측해 보자면 어린 시절의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가버린 유일한 아들과 조금 닮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까닭에 할머니는 나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해방 후 가장 좋아했던 정치인이 여운형이었다는 것과, 전쟁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직접 본 기억, 그리고 과거 어떻게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한 삶 때문인지는 몰라도 할머니는 걱정하는 게 습관이었다. 자식의 건강에 대한 걱정, 사위에 대한 걱정, 손자들에 대한 걱정은 항상 대화의 출발점이었다. 누군가는 할머니의 이 같은 말버릇이 외로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할머니의 걱정은 격동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거쳐 오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전쟁에 관해 물어볼 때마다, 헛되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이야기하며 손사래 치던 할머니는,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이 정말로 두려웠던 것 같다.

할머니는 최근 중증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는데, 걱정이 많던 당신에게 기억을 잃는다는 건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는 병세가 악화되면서도 무언가 걱정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는 TV 화면에서 김구와 여운형의 사진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나는 할머니가 여운형을 지지해서 좌우합작 운동 시위에도 참여한 적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갑자기 손사래를 치며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라고 대답한 기억이 난다.

이렇게 걱정이 많은 할머니에게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가령 “너희 엄마 관절염 때문에 어떡하니?”라는 걱정에는 “요즘 줄기세포 기술이 발달해서 곧 치료할 수 있을 거야.”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그때부터 할머니에게 대한민국은 자율주행차가 다니며, 택배는 로봇이 배달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 되었다. 다음날이면 대부분 잊어버리긴 했지만,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할머니가 잠시나마 안도하는 것 같았다.

반면에 진실을 말할 때가 더 나은 경우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였다.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게 되면서, 요즈음 선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할머니에게 말해주곤 했다. 이때 할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듣는다. 그러곤 항상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졌구나.”라며 말을 끝마칠 때가 많았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었다. 특히 이화학당의 학생으로서, 전쟁이 아니었으면 서울대학교 불문과에 진학했었을 거라는 할머니는 정치와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좋지 못한 몸을 이끌고 작년까지 모든 선거에 참여했고,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할머니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 아마도 당신이 ‘할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 투표다운 투표를 한 적이 없기에 억울함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실제로 해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열혈 문학소녀로 좌우 합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학교가 끝나면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시위도 나가보고, 친구들과 토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만난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를 설명하실 때 항상 “알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라고 묘사하시곤 한다.

할아버지는 당시 반공청년조직에서 활동하셨는데, 할머니와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종종 말다툼하셨다. 만약 할머니가 대학교에 갔다면, 정계에 입문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만큼 할머니는 욕심도 있고 꿈도 많았던, 한국어와 일본어를 능숙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25전쟁이 발발했고 할머니는 학문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참전했던 할아버지 없이,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것은 할머니에겐 너무도 버거운 일이었으리라. 이후 나의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라던 60~70년대의 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세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기도 하고, 독재정권 당시 억압적인 분위기로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던 선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이윽고 첫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야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학창시절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던 학생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0번에 가까웠다는 것은 꽤 비극적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할머니는 정치 뉴스를 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투표에는 항상 꼬박꼬박 참여했다. 할머니에 대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도 내가 4살 무렵 선거와 관련된 기억이었다. 당시 할머니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항상 나에게 누구를 뽑을지 물어봤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그 당시에는 인상이 좋은 사람을 골랐던 것 같다) 한 대답에 대해 매우 놀라며 “애가 몇 살이라고 벌써 정치에 관심이 있나?”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있어 선거는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행사였다. 영화 ‘코코’에서 멕시코 사람들은, 가족들이 기억해주는 한 일 년에 한 번 축제를 통해 조상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선거는 나에게 있어서 외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주는 일종의 축제다. 나아가 지금의 민주적인 선거가 있기까지 할머니가 거쳐야 했던 폭력과 억압의 시대를 기리는 의식이다. 당신의 견뎌온 삶이 만들어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선거라는 매개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나 역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의무복무 중인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





일반부
장려상

축제의 선거, 즐겨라



_ 최호열

... “어서 오세요,” “수고 많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인사를 주고받는 선거 도우미들과 시민들의 표정이 보름달처럼 환하다. 나도 경쾌하게 1층에 마련된 투표소로 걸음을 옮긴다.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든다. 커튼이 쳐진 기표소로 들어가서 호흡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볼 때보다 집중하여 기표를 한다. 학력고사, 승진시험, 고시에서도 수정의 기회가 있지만, 여기에는 없다. 무효 아니면 실패가 있을 뿐이다. 기표 후 투표함에 반으로 접은 투표용지를 넣는다. 복도로 나와 “휴!”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만도 20여 회 넘게 참가하였지만, 매번 긴장된다. 단 한 사람에게만 기표할 수 있고 절대 수정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나에게 특별한 회한과 공포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75년 3월, 나는 연대장에 임명되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에 교련 수업이 있었고 당연히 학교편제는 군대식이었다. 실장은 소대장, 학년 회장은 대대장, 전체 회장은 연대장으로 불렸다. 실장은 더러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뽑히기도 하였지만 대대장, 연대장은 학교 선생님들이 의논하여 선출되었다. 나는 월요일 아침에는 전체 학생들이 모이는 조회를 우렁차게 지휘하였고, 월말에는 학도호국단 월례회의를 주재하여



학생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분기마다 열병과 분열이 있는 교련검열을 일사불란하게 주도하였다. 이러한 나를 선생님들은 대폭 신임하였다.

2학기가 시작된 9월이었다. 9월 학도호국단 월례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예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3분기 교련검열은 시험 후 4분기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첫 번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두 번째 안건을 심의에 올렸을 때 사태는 발생하였다.

“사회자님, 이 안건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정 배경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진 간부는 2학년 1반 실장(소대장)이었다. 평소 조용하던 친구였기에 나는 다소 놀라면서도 즉시 대답하였다.

“대입 준비에 고생들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위해, 마침 보름 후로 다가온 추석을 맞아 작은 선물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의견이 아닌,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논의로 선출된 연대장의 한계라고 봅니다. 이 안건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서둘러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정통성!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당시 공부도 잘하였고, 운동에도 만능이었으며 성격도 활달하였기에 무엇이든 자신 있었다. 1천 5백여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당당히 선출이 되었더라면 그러한 질문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학생들에 의한 선출이었다면, 그 학생의 말대로 사전에 밑으로부터 여론이 반영되어 그러한 안건이 없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당시 나는 정통성이 없는 연대장(학생회장)이었다.

초급간부(경찰) 교육생이었던 1987년 12월 하순, 나는 강의실에서 막대기처럼 뻗뻗한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제군들에게 실망하였다. 교육생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자 투표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교의 방침이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를 어겼다. 이라고도 어찌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공복이 될 수 있겠는가? 각자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7명의 학생은 서슬 퍼런 교장 앞에서 더듬으며 대답을 하였다. 친구와 만나기로 하였다. 부모님 생신이었다 … 등. 마지막으로 내 차례가 되었다.

“어렵게 얻은 소중한 투표권을 부모님, 형제, 친구, 이웃들과 함께 행사하고

싶었습니다. 즐거운 선거를 직접 맛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교실은 일순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본래 나는 이렇게 직선적이지 않았다.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어도 예들러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확실히 반대하고자 할 때는 글로서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학교 측의 처사는 애매하였다.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이었고 교육생인 우리는 외출이 보장되어 있었다. 부재자 투표는 사정이 있어 투표장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외가 되는 것이었다. ‘장거리 이동의 불편과 위험성, 정치판에 휘둘릴 우려’ 등 학교 측 설명도 일리는 있었지만, 지속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맨 처음 나처럼 생동적인 투표장을 찾겠다던 60여 명의 교육생들도, 학교 측의 계속되는 걱정과 설득에 따라 대부분 부재자투표를 택했고, 나를 비롯한 ‘황야의 7인’만이 직접 주소지를 찾은 것이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바로 이것이었다. 아무리 칸막이가 되고 비밀이 보장되어도 기표에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투표가 아닌 것이다. 그 자유성을 은근히 침해하는 학교 측의 처사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었다. 그 이후 나는 투사로 불렸다.

“어, 과장님도 오늘 투표 나오셨어요?”

투표소 밖으로 나오는데 구청의 김 계장이 아는 체를 한다.

“우리아 그날이 비상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그날 쉬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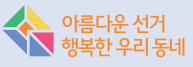
“맞아요, 미리 투표하고 그날은 고향 부모님을 찾아뵈려고요.”

“참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투표할 수 있으니. 참, 자네 누가 사전 투표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지?”

“과장님도 별말씀을, 요즘 선거에 강요가 어디 있어요. 전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참여하고 기표하잖아요. 그리고 개표과정과 결과를 즐기는 거죠.”

축제! 바로 이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하는 것, 사전 투표로 참여가 훨씬 쉬워진 것, 그리고 실시간으로 다채롭고 재미있게 진행되는 개표 방송, 개표 후 승자에게 축복을 보내고 패자에게는 격려를 보내는 것, 지금의 선거는 한마디로 축제인 것이다. 우리 모두 즐기자, 흥겨운 잔치를. 축제의 풍선을 흔들자. 저 멀리에서 링컨 대통령이 외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힘차게 이 땅에 실현합시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선거체험수기

학생부



국어사전에서는 무효표를 '효력을 잃은 표'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선거에서의 무효표는 한 가지의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침묵으로 저항하는 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무효표는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부
대 상

무효표의 의미



_문 주 희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권을 선거를 통해 대표에게 위임하여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인정해줍니다. 어느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후보에게 위임되는 권력의 정당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거라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거 가운데 특이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효표'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저는 무효표의 의미에 대해 언급해보려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무효표를 '효력을 잃은 표'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선거에서의 무효표는 한 가지의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침묵으로 저항하는 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무효표는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저는 무효표와 기권표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무효표는 기권표와 다릅니다. 무효표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기권표는 '무관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출마한 후보를 모두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무효표를 던지는 것과 아예 선거 자체를 기권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효표와 기권표 모두,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점일지라도 무효표는 투표율에 반영되어 후보들의 지지율을 낮추고 기권표는



투표율 자체에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지지율을 낮추는 무효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심을 돌려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자신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권표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은 채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책임감 없는 정치를 펼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무관심하게 기권하기보다 직접 투표소에 가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한 명도 없으니 모두 노력해라!'라는 침묵의 경고라도 날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학교 시절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저는, 단발만이 단정한 학생임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단정 짓는 것 같은 학교의 교칙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묶을 수도 없는 길이어서 많은 학생이 학습 시에 머리가 흘러내려 집중할 수 없다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칙의 문제점을 발견한 저는, 교칙을 관리하시는 학생부장 선생님께 찾아가 두발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발 규정을 머리가 묶이는 길이까지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도 될지 여쭙봤습니다. 그렇게 두발 규정 완화라는 공약을 세울 수 있게 된 저는, 가장 많은 득표수로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중학교 시절 회장 선거와 유사한 공약을 세웠으면서, 동시에 무효표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보려 합니다. 지난 2005년 D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오'군이 있었습니다. 이 '오'군은 평소 학교에서 제한하는 두발의 자유나 학교에서 성금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걷는 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군은 공약으로 두발 규제 반대와 학교의 성금 사용내역 공개 등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출마의 조건인 100명의 추천인 서명도 모두 받은 '오'군은, 그만 성적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거 당일 200여 명의 학생들이 무효표를 행사하며 '오'군을 암묵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무효표의 위력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선거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미국의 흑인 운동 지도자이자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의 명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주권을 위임하여,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무효표도 우리의 침묵의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가 믿음직하지 못한 후보 탓에 무효표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후보와 함께 그들을 지지하는 정당한 표가 넘쳐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손에 쥐고 있는 주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에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국가에 살게 될 국민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학생부
최우수상

일찍이 경험한 부정선거



_ 박연수

선거제함수기

098



... 5월 넷째 주 통일 교육주간에 탈북강사의 특강을 듣게 되었다. 특강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이 질문을 하였다. 북한에서 선거는 어떻게 치르느냐고, 강사님은, 우리는 19세가 선거 연령이지만, 북한에서는 17세 이상이면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선거일에 축제를 벌인다고 하였다. 북을 두드리고 행진하며 춤도 추고, 잠깐 방문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는 당에서 지명한 단 1명이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모든 학생은 웃었다. 한 학생이 무슨 선거가 그러냐고 질문을 하였다. 강사님은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는 신과 같은 존재며 그들이 하는 일은 절대적이라 그들의 결정대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걸 보아도 북한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다.

사회 시간에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공부하였다. 선거는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봉사자를 뽑는 일로, 선거가 곧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이 입후보하고, 등록된 후보자는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친다. 어떠한 경우든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4대 선거의 원칙은 헌법에 있는 대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된 나라일수록 선거제도가 엄격하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 후유증이 거의 없다.

우리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적지 않은 선거 경험이 있다. 1년에 약 3번 정도 선거를 한다. 1학기 학급 임원, 2학기 학급 임원, 전교 임원 선출이 있다.

나도 5학년이 되자 욕심이 생겼다. 학급회장을 하고 싶었다.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리니 해보라고 하신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의 인기를 얻을까 곰곰이 생각하였다. 먼저 친한 친구들부터 집에 초대하였다. 피자과 떡볶이를 주문하여 같이 먹었다. 그리고는 “내가 이번에 학급회장에 나오려 하는 데 뽑아줄 거지?” 하면서 속내를 드러냈다. 피자과 떡볶이를 맛있게 먹은 친구들은, 모두가 “그래.” 한다. 여기에서 자신을 얻었다.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잘해 달라고 부탁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얻기 시작했다. 학급 임원선거 당일, 적지 않은 표 차로 당선이 되어 나는 바라는 대로 학급회장이 되었다. 2학기가 되자 다른 친구들이 후보로 나왔다. 그중 한 명이 나를 포함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사주어서 맛있게 먹었다. 나는 그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6학년이 되어서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상대 후보도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분위기가 팽팽하였다. 다행히도 내가 약간 더 인기를 얻어서 1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것이 선거에서 꼭 필요한 줄 알고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1학년 때, 용인외대부고에 들어간 선배가 용인외대부고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특강을 하였다. 성적이 중요한 만큼 여러 스펙도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학급 임원도 스펙이라고 하였다. 2학년 1학기에 용인외대부고 스펙을 위해서 학급회장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번에는 간절한 심정으로 엄마께 말씀드렸다.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엄마도 용인외대부고라는 말에 달아오르신 것 같다. 3월이 시작되자마자 학교에 찾아오셨다. 담임선생님께 본인 딸이 용인외대부고에 진학할 것이니 꼭 반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셨다. 엄마 말씀으로는 선생님도 좋게 대답을 하셨다고 한다.

다음날, 담임선생님이 나와 친구 한 명을 부르셨다. 두 명이 모두 특목고 진학을 위해 학급회장 자리가 필요하니, 잘 의논해서 1, 2학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다. 반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그러겠다고 하자 담임선생님은 회장 선거에 앞서 구구하게 설명을 하셨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회장, 부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두 명이 회장과 부회장을 나누어서 하여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 2학기 때는 회장과 부회장을 바꾸어서 학급 임원을 하게 되었다.

3학년 사회 시간에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부정선거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돈이나 금품을 주는 금품제공, 음식을 제공하는 향응제공, 서로 합의하여 자리를 나누어 가지는 담합, 그리고 돈이나 특혜를 주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매수 등이 있다.

초등학교 때 회장에 당선된 것은 금품 제공에 해당하고, 작년 2학년 때 회장을 나눠 가진 것은 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두 번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셈이다. 나는 지금까지 금품 제공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담합은 서로 합의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모두 부정선거에 해당하여 걸리면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무서웠고 양심이 찢렸다.

부정선거로 몰락한 나라가 여럿 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1960년 3월 15일 총선거는 부정선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금품수수, 향응 제공, 매수, 담합이 난무하였다. 이로 인해, 이승만 정권은 몰락했고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도 남이나 정치인들을 욕할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는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으로 학급회장이 된 것과 다름이 없다.

작년에는 나, 엄마, 담임선생님, 친구와 담합으로 학급회장을 나눠 가졌다. 나는 일찍이 경험했기 때문에 반성을 하게 되었다. 선거의 기본은 공정이다.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노력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





학생부
우수상

열 살적 선거 배움, 평생 간다



_강은서

...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가 있을 때 텔레비전이나 길거리에서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를 보고 부모님을 따라 투표 장소에도 가보았던 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학급 선거를 직접 체험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거를 하게 된 난 투표를 하는 유권자이면서 후보자이기도 했다. 후보자로 나온 친구들 중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멋진 선거 공약을 적어 온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당선된 친구들은 유권자인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였다. 나도 당선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사실 선거를 처음 하게 된 난 특별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냥 친구들 사이에 리더가 되고 싶었을 뿐 학급의 임원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가짐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3학년 한 학기 동안 학급 임원을 하면서, 난 조금씩 임원으로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배우기도 했다.

4학년이 된 올해 또 학급 임원 선거가 있어 난 후보자로 나갔다. 엄마의 도움을 받고 싶어 'SOS'를 쳤지만, 엄마는 "은서야! 네가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 네가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될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시고 끝이었다. 다른 엄마들은 표정, 동작까지 알려주고 공약도 멋있게 써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스스로 준비를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조금은 화가 났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후보자로 나갔던 3학년 때를 떠올리며, 선거 전날 나름대로 선거 공약을 준비하고, 임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생각해 보았다. 지킬 수 없는 공약보다, 내가 지킬 수 있고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공약을 생각하던 중 친구들과 학급을 위한, 나의 장점을 살린 공약을 생각해냈고, 난 투표가 있던 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당선이 되었다.

학급 임원 선거가 끝나고 며칠 뒤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거가 있었다. 난 4학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자가 아닌 우리 학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임원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였다.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로 전교 어린이회 임원 후보자로 나온 언니, 오빠들의 선거 공약을 들었을 때, 약간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이 많이 있었고, 일부러 영어 문장이나 어려운 말을 사용하며 유창하게 말하려는 후보 언니, 오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같이 발전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어휘력이나,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실망스러웠던 점은, 후보자 중에 2학년 때 같은 반을 했던 친구의 누나가 있었는데, 선거날 친구의 엄마가 교문 앞에서 나에게 이름이고, 공약이고 듣지 말고 무조건 ○번을 뽑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무조건?' 무조건의 뜻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건데... 선거에 맞는 말인가 싶었다.

물론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고 뽑는 건 아니다. 하지만 유권자로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따져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안다고 무조건 뽑으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보자로 나온 언니, 오빠들의 공약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선거를 떠올리며, 후보자들의 공약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소신껏 투표를 했다. 학급 임원 선출 후보자로 나가보고, 처음 내 손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 학생을 위해 전교 어린이회 투표를 해 본 결과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처음 어떻게 배우고 익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위해 깨끗한 마음으로 진정한 봉사정신, 희생정신, 솔선수범을 보여 줄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당선되기 위한 뺑뺑이가 아닌, 유권자들이 진정 바라는 것 중 후보자가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 세우는 게 중요하고 옳은 것 같다.



유권자들은 안다고, 친하다고, 무언가 대가를 받았다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옳은 것 같다. 만 19세부터 투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른들은 올바른 선거, 정당한 선거를 알려주고, 배우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학교 선거가 작은 선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욕심에, 정당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선거의 방법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게 된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알게 모르게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키워주고, 정당한 선거를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가 자라고 투표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올바른 판단으로 진정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열 살적 선거 배움, 평생 간다.’





우리 학교 주인은 나야~나!



_ 권 지 인

...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새 학년 새 학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기분 좋게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무척 설레고 기쁘다.

우리 학교는 전교 학생 수가 40명이 조금 넘는 아주 작은 시골 학교다. 그래도 어른들 선거처럼, 학기 초에, 정해진 선거 규칙대로 우리만의 선거를 똑같이 한다. 반장 선거와 전교 학생회 선거인데, 모든 5, 6학년 친구들에게는 전교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에도 입후보 자격이 똑같이 주어진다. 그리고 3, 4, 5, 6학년은 전교 학생회 선거에 직접 비밀 투표할 수 있다. 선거 일자가 공고되고, 선거관리위원을 3학년부터 학년별로 각 1명을 선출하여,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감시활동 및 선거일 개표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 등록된 후보자에게는 선거관리위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선거규칙 및 준수사항, 위반사항을 알려 주신다.

5학년인 나도 우리 학교 선거규칙에 따라, 당연히 학생회 부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전부터 두 선거 모두 관심 있던 나는 '반장 후보로 먼저 도전할까?' 하고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글썄 내 단짝 친구 희진이가 갑자기 반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었다. '나는 4학년 때까지 여러 번 반장을 했으니, 그래 이번에는 희진이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희진이라면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친구를 위해, 기꺼이 반장 선거에는 도전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내에게는 전교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다. 평소 축구를 하며 쌓아둔 남자애들과의 의리, 우리 반에서의 내 인기, 그리고 투표자가 가장 많은 3학년 교실엔,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내 동생 가온이가 든든히 버티고 있어서, 웃는 얼굴로 기꺼이 내 친구의 반장선거를 도와줬다. 그리고 그 결과, 나의 예상대로 희진이 반장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학생회 부회장 선거는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에구머니네!' 나를 도와줄 거라 믿었던 단짝 친구 희진이, 부회장 후보로도 등록한 것이었다. 언니 오빠들 학생회 선거를 몇 번 지켜보고, 이번 선거를 우습게 여겨 제대로 된 전략도 세우지 않았던 게 나의 큰 실수였다. 제일 좋아하는 삼국지를 날마다 읽으면서도 전략과 전술을 무시하다니...

나를 포함한 총 3명이 부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후보자에게는 일주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이 주어지고 최대 4명까지 선거도우미를 둘 수 있는데, 나는 내 친구 일화와 건이 2명만을 선거도우미로 두게 되었다. 그것도 일화는 말수도 적고 혼잣 놀이에 빠져서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를 어찌내!' 이럴 때 공부했던 한자말이 떠오른다. '설상가상!'

선생님께서서는 선거 공약, 포스터 그리고, 피켓도 친구들 도움 없이 각자 직접 내일까지 만들어 오라고 하신다. 당장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었다. 그래도 '긍정의 아이콘'인 나 권지인. 할 일도 잊어버린 채, 밤 10시까지, 방바닥 여기저기에 선거 자료 준비물만 잔뜩 벌려놓고, 동생이랑 고양이 동영상에 푹 빠졌다. 이를 보시던 엄마가, 내가 만든 선거공약을 읽어보시고는 제대로 못 할 거면 이번에 기권하란다. 엄마는 왜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나는 너무 슬펐다. 어쨌든 엄마 잔소리에 눈물 글썽이며, 내가 자신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학교를 위한 선거공약 4가지'를 쥐어짜듯 다시 고쳐 준비하였다.

첫째,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셋째,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겠습니다.

넷째, 약한 친구들을 배려하고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거포스터와 피켓을 만드는데, 프린트기까지 고장이 나서, 동생과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직접 캐릭터 ‘라이언’도 그려 넣고, ‘하트 모양 스티커’도 붙이고 내 얼굴도 그려 색칠하고, 온갖 재주를 부려 밤늦게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학교에 갔다. 그런데 다른 후보자 친구들이 만들어 온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 자신이 없어졌다. 희진이는 컬러프린터로 화려한 전단지들을 잔뜩 만들어 모두에게 돌렸고, 다른 후보자 강표는 자기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까지 입고, 교실마다 돌며 한껏 자신을 알리고 있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내가 좋아하는 1번 기호를 받아,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점심시간엔 피켓을 들고, 선거 도우미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데, 3번 강표 선거 도우미 친구가 우리 측에 욕설을 하여, 선생님께 먼저 경고를 받았고, 2번 희진이는 선거 도우미가 갑자기 도와주지 않아, 울먹이며 혼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내 도우미 중 한 명을 희진이 선거 도우미로 보냈다.

수업시간에도 하루 종일 뒤숭숭하여 집중할 수 없었고, 중간중간 동생 가온이가 알려주는 소식은 나를 더 우울하게 했다. 2번 희진이 동생이 아이들에게 선거 끝나고 한턱내기로 하고, 자기 언니에게 투표하라고 한다. 3번 강표는 벌써 가게에 친구를 보내 과자를 사서 돌리고 있고, 친구들과 동생들이 자기를 뽑아줘야 축구팀에 끼워 줄 거라며, 표를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었다. 내 동생은 우리도 선거 끝나고 집에서 파티 하겠다고 친구들을 설득하자고 한다. 하지만, 나는 선거관리위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규칙 위반사항이 자주 떠올라, 불안하지만 하지 말자고 말했다. 결국, 선거위원들의 감시활동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장 선생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후보자 모두에게 선거 과정의 위반사항도 엄하게 지적하시고, 후보 자격 박탈 경고도 하셨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친구들 간의 경쟁은 더 심해졌지만, 다행히 후보자들도 더 이상의 선거규칙 위반은 하지 않았다. 전교 학생회 선거일이 되어, 유권자 친구들 모두가 기권 없이, 주인 된 의식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정한 개표가 진행되어, 내가 과반수 표를 얻어 부회장이 되었고, 기호 2번 희진이는 나와 몇 표차로 탈락했고, 기호 3번 강표는 겨우 3표만 얻었다. 결과 발표가 나자, 선거경쟁자 강표는 멋지게 “지인아, 부회장 된 거 축하해.”하고 한마디 해주었지만, 내 단짝 희진이는 하루 종일 울고 나에게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집에 가버렸다. 나는 내가 부회장이 되지 않았어도, 당선된 친구에게 기분 좋게 축하해 주려고 맘먹었는데... 오늘 부회장 선거에 당선되어

기쁘게도, 희진이의 울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이번 학생회 부회장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나는 울컥했다. 상대 후보자의 대가성 약속에 친구들의 표가 왔다 갔다 하였고, 싸우고, 욕하고…. 반장 선거 때보다 친구들이 더 흥분했다. 왜일까? 궁금해하는 나에게 엄마는 “반장보다는 전교학생회 부회장 자리가 더 많은 친구들을 대표하는 거라 그런 거야. 어른들의 선거도 너희와 비슷하게 치열하지만, 선거법에 어긋나면 당선될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사회 교과서에서 배운 선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여러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고, 투표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른 것 같아서, 우리 학교 친구들 모두가 자랑스러워졌다.

지금 나는 교내 오케스트라 구성원으로 활동 중이다. 나 혼자만의 뛰어난 트롬본 연주 실력만으로는 멋진 화음을 낼 수 없고, 여러 악기 연주자들과의 호흡이 맞아야 한다.

선거도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생각한다. 후보자, 유권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후보자는 실천할 수 있는 공약과 정정당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갖고 투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와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들 모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오늘 나는 전교생 앞에서 부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그 책임감을 잊지 않고, 친구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날마다 실천할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 선거를 통한 주권 의식 함양



_김 건희

... 새 학기 첫 번째나 두 번째 주가 되면, 언제나 학생들은 학급 반장과 부반장을 뽑습니다. 그 선거 전에 후보들은 연설을 준비하고 친구들에게 유세를 하며, 자신을 뽑아줄 것을 외칩니다. 누군가는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누군가는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유세를 합니다.

저 또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며칠이 지난 후 학급 반장선거와 전교 회장 선거, 자치회 선거를 참여하였습니다. 반장 선거는 중학교와 동일하게 선거 연설을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투표를 하기 전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데, 반장 선거의 경우 반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다거나 고민 상담 등을 해주겠다는 공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면 규모가 확장됩니다. 학교의 편의시설 확대, 건의함 설치, 공공게시판 관리 등, 교실 밖을 넘어 학교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또 기숙사 학교의 자치회 선거의 경우, 학교를 넘어 기숙사 생활 영역까지 범위가 확장됩니다. 선생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편사항들이 선거를 통해 해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오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교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선배들이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한 것입니다. 중학교 때에는 복도에 붙은 포스터나, 교실에서 텔레비전으로 단 한 번의 방송만 보고 투표를 해야 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고 공약만 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잘 지켜지지 않는 공약을 보며 신뢰감이 매우 떨어졌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는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규칙에 의해, 고등학교 선거는 중학교 선거와는 달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과 연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들과 자신이 반드시 뽑혀야 하는 이유에 대한 발표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대선에 참여하는 듯했습니다. 또 후보들의 공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비교해볼 수가 있었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더 잘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선거와 유사한 학생 선거를 통해, 사회 시간에 배운 참정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권에 관한 사상이 등장하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성장하며 시민들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성별, 인종 등으로 차별됐고, 이를 타개하고자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이 자유권과 평등권과 함께 참정권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참정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주권을 가지며, 공권력에 침해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1조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때 국민은 자유권과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주권을 행사합니다. 참정권은 헌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로써 국민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나라의 최고 수반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모두가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중대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참정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많은 시위와 투쟁 끝에 비로소 20세기에는 지구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정권을 지니게 되었고, 선거의 연령 또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표를 정하여 그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선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국정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대신 일할 사람들을 대표로 뽑음으로써 국정에 간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경우 학생대표, 학생회가 되지요.

선거란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짐을 확인합니다. 선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실행하는 주체이니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는 국민끼리 결속시키고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선거 주체는 국민에게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미리 후보들의 공약이나 태도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챙겨 보는 것도 좋지만, 특히 선거 시에는 후보들의 토론이나 입장 등을 밝힌 언론을 더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를 지지해야, 참정권의 참된 의미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선거의 태도나 중요성에 대하여 고민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올해 3월 한 달 동안 새롭고 중요한 선거를 세 번이나 체험한 후, 제가 성인이 되어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그저 도장을 찍는 행위일 뿐이라도 누군가에겐 힘이 되고, 잘못된 미래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면 관심을 많이 갖고,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다하겠습니다.



학생부
장려상

Beautiful day, 6.13!



_강민지

... 어느새 '지방 선거'의 시기가 다가왔다. 4년마다 한번씩 있는 지방선거이기에 사실상 '선거'의 개념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느끼는 첫 지방선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대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데, 이런 지방선거가 부쩍 다가왔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건물 벽에 붙어있는 선거 현수막과 길거리에서 진행되는 선거 운동들이다. 이런 현수막과 선거운동들은 선거 시기가 다가왔음도 알려주지만, 나에게서는 한 가지 추억을 더 상기시켜주었다. 바로 작년, 중학교 3학년 때의 근사한 학교선거 이야기이다.

매년 3월은 각 반의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학교선거가 이루어지는 달이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3월에 학급선거를 열었고, 나는 매년 그랬듯이 '반장'에 출마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내가 처음 접해보는 선거 활동 방법을 추천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출마를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흔히 말하는 출마의 변을 공약의 형식으로 A4용지에 적어오게 하시고, 선거 1주일 전부터 교실 뒤쪽 게시판에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붙여놓는 것이다.

사실 그전까지는 그냥 말로만 잠깐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공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못했다. 하지만 직접 손으로 써서 모든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는다고 생각하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공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더불어 공약에 관한 인터넷 검색도 아주 많이 해보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뜻깊은 공약 연설 중 하나가



링크의 연설이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정치방식이다. 이 문구를 보고 나도 친구들을 위한, 친구들이 필요할 것 같은 공약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걸려 결정한 나의 대표 공약은 ‘매일 학급 알림 방에 시간표와 준비물 써주기’가 되었다. 매일 준비물을 까먹고 선생님들께 혼나는 친구들이 생각났고, 그런 친구들에게 준비물을 알려주는 반장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공약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며 선정한 공약을 다시 한번 직접 종이에 쓰면서 ‘만약 반장이 된다면, 꼭 내가 작성한 공약들을 실천해야지.’라는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알게 된 사실인데, 반장에 나가고 싶었던 친구 중 한 명이 공약을 글로 써오지 못해 반장 출마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만큼 말로만 내세우는 공약과 글로 한 번 써보는 공약은 정말 다르다고 느꼈다.

드디어 반장 선거의 날. 내가 교실 벽에 게시한 공약을 토대로 공약연설을 한 뒤, 과반수의 득표 덕분에 반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이 되었으니 더욱더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그 뒤로 일어난 더 놀라운 일은 공약을 떼지 말고 1년 동안 붙여놓으라는 선생님의 지시였다. 처음에는 왜 떼지 말고 붙여놓으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내가 건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매일매일 알림 방에 들어가서 시간표와 준비물을 써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날 피곤해서 까먹을 뻔한 적도 있었고, 까먹지 않았어도 할 것이 너무 많아 적어주지 않고 싶은 날도 있었다. 어떤 날은 준비물을 쓰느라 휴대폰을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는 바람에 엄마와 여러 차례 다툰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엄마와도 타협해 가며 공약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반 뒤에 게시되어 있는 ‘내가 직접 쓴 공약’ 때문이었다.

매일 교실 뒤를 오갈 때마다 그 연설문을 보고, 그 순간마다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더해갔다. 이렇게 책임감을 더해 갈 때마다, 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공약을 떼지 말고 게시해놓으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알림 방에 시간표와 준비물을 적어 주지 않은 날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그래서 이 경험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자 실제 정치와 선거에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되었다.

사실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은 선거로 정치인 뽑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나고 여쭙어보았을 때, “정치인들은 매일 국회에 나가

싸우기만 하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한 공약도 지키지 않잖아. 그래서 난 어떤 정치인에게도 표를 행사하기 싫어.”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나고도 여쭙보았을 때는, 할머니들께서 매일 보시는 뉴스에 정치인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도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내가 건 공약을 잘 지키는 것은 나를 믿고 뽑아준 우리 반 친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 각자 자신이 내건 공약들을 잘 지키는 것은 그들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에 보답하는 도리나 마찬가지로인데, 그 도리를 지키지 않는 후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얼른 이런 사태가 줄어들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앞서 언급했던 경험에서 생각하게 된 방법이다. 바로 후보자들이 정한 공약들을 국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알리는 것. 물론 교실에 붙여놓은 것만큼 큰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붙여놓고 게시해 놓는다면 후보자들의 책임감은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책임감이 커질수록 공약을 실천하는 빈도수 또한 비례하여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로 생각한 방법은, 바로 임기가 끝날 때마다 공약 실천 정도를 보고 점수를 매겨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 점수에 따라 높으면 이익, 낮으면 불이익이 가는 제도가 있다면 점수를 높게 받고 싶어서라도 공약을 잘 실천하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라는 목적이 좋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목적은 나쁘더라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킨다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모든 후보자들이 자신이 내건 공약만은 잘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 아침, 교회를 가는 길에 선거 운동을 하는 많은 후보자들을 보았다. 선거 운동을 하던 그 많은 후보자들을 보며 그중에서도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일에 책임감이 넘치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서 할머니들께서 잘못 뽑았다고 혀를 차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부디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 후보자가 뽑혀, 아쉬운 날이 아닌 아름다운 날이 되길 바란다.

Beautiful day, 6.13!



학생부
장려상

밥 잘 사주는 예쁜 회장



_강주희

선거제합수기

114



... 최근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쁘고 잘생긴 배우가 등장해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인데, 이 드라마의 제목을 보면서 내가 만약 '밥 잘 사주는 예쁜 회장'이 된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다. 이를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다.

나는 전부터 선거일이 좋았다.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원을 가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날. 그러니까 선거일은 마치 놀이공원에서 파는 자유이용권과 같다. 친구들과 하루 종일 뛰어놀거나 방에 누워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날. 생각만 해도 설렌다.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제 나에게 있어 선거일은 조금 특별한 날이 되었다. 느슨해졌던 허리가 곳곳해지는 기분이 들 만큼 진지해진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이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면서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지켜본 탓일까. 부모님과 함께 촛불 집회에 갔던 기억이 난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목도리를 둘러도 추위가 느껴지던 날이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게 광화문은 그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이 있는 곳이었다. 보통

때라면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갈 도로 위. 그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한목소리를 냈던 경험은, 훗날 어른이 되고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때 촛불을 들고 부모님과 함께 휴대폰으로 찍었던 가족사진도 내게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사진관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에 찍은 기념사진이기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학급 선거를 경험했다. 후보자로 나선 경우도 있었고 유권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두 번의 회장과 한 번의 부회장에 당선이 되었지만, 아예 당선이 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처음 선거에 출마했던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지는 것을 싫어하는 내게 선거는 일종의 승부와 같았다. 처음으로 회장이 되었을 때는 표 차이가 없어 승부가 한 번에 나지 않고 두 번의 투표 끝에 회장이 되었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았던지. 두 번째로 회장이 되었을 때는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되어서 정말 뿌듯했다.

내가 선거 과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희열이다.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그 기쁨에는 어느 정도의 중독성도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내가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을 꼽자면, 바로 패배를 받아들이는 법일 것이다. 나는 친구들과의 사소한 게임에서도 지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내게 선거는 누군가와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었다. 특히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을 때가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의연해졌다. 어른이 되면 이보다 더 큰 실패도 경험할 텐데 미리 연습을 해보면서 마음을 단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가 끝난 후에 친구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다양하다. 봄 햇살처럼 활짝 웃는 경우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자마자 녹아내리는 눈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임원에 당선인 된 사람의 표정이 더 밝은 것 같기는 하다.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곧 6월이 되면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린다. 선거 경험이라면 나도 일가견이 있지만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는 없다.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7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 긴 시간을 그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에 관한 경험이 많은 만큼, 일상의 작은 일부터 하나씩 바꿔 보고 싶다.

어떤 친구들은 학급 임원에게도 탄핵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문제로 탄핵 제도가 잘못 실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급에 더 많은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다.

다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에는 건의함이 있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건의함의 위치를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건의함을 찾으러 가도 도서관 구석에 방치되어 거미줄이 끼어있을 정도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건의함보다는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홈페이지만 해도 그렇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만 사항이 있어도 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시판은 찾아볼 수 없다. 전교 어린이 회의가 2~3주에 한 번꼴로 열리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나는 이 회의에 임원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많았지만, 학생들의 불만을 대표해 이야기할 만한 시간은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만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할 때가 많았다.

사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그 정답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게는 7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있으니 이 문제를 차근차근 고민하고 개선해볼 시간은 충분한 것 같다.

학급 임원으로 선거에 출마하고, 나아가 촛불 집회에 참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교과서나 책에서만 봤던 민주주의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탄핵을 지켜봤던 경험은 내게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 같다. 아직도 당시의 그 함성과 소름 돋는 듯한 느낌은 내 몸속에 남아있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늘 내 얼굴을 보며 밥 먹었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신다. 명절이면 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그렇다. 드라마 제목에도 쓰이는 이 '밥'이란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밥 잘 사주는 예쁜 회장'은 결코 되지 못할 것 같다. 밥을 사주기보다, 그저 예쁘기만 한 것보다, 더 나은 일을 위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고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부
장려상

자율투표제, 그리고 치킨



_ 권효은

... 2016년 방송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투표 복권’을 제안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투표 로또다. 투표를 한 사람에게 일련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주고, 그걸 저녁에 추첨하는 거다 ... (중략) ... 저녁에는 개표방송을 보면서 그 추첨도 보는 거다. 1등 당첨자에게 10억 원을 주고, 시도별로 1명씩을 뽑으면 지금 투표 독려에 사용하는 홍보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역설했었는데, 2017년 ‘장미대선’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한 스타트업 개발자가 현실로 옮긴 이 아이디어는 ‘국민투표 로또’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이메일 주소와 투표 도장이 함께 나오도록 인증 사진을 찍은 뒤, 국민투표 로또 페이지에서 카카오톡 계정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인증 사진과 함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7년도에는 ‘국민투표 로또’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제가 다니는 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서는 전교 회장단을 뽑기 위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총학생회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학년은 총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총학생회장 후보 1인이 팀을 구성하여 출마하고, 1학년은



부총학생회장으로 개인 출마합니다. 2018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에는 2학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 1팀이 출마하였고, 1학년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 10명이 출마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2학년 후보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1학년 후보를 대상으로 1인을 선정하는 투표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2017학년도의 하나고등학교 총학생회 선거 때와 비교했을 때, 2018학년도의 하나고등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투표 독려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2017학년도까지 하나고등학교의 총학생회 선거 때는, 투표가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됐었습니다. 600명가량의 모든 학생들이 의무를 이행해야 했었고, 만약 투표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이 그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투표를 하라고 말을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8학년도 하나고등학교의 총학생회 선거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율투표제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율투표제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첫째, 전체 투표율이 80% 이상일 때, 투표율이 가장 높은 반에 '치킨'을 포상하였습니다. 학년 별로 한 반씩 치킨이 주어졌으며, 동물이 나올 시 해시태그 이벤트 참여자가 많은 반에 치킨이 주어졌습니다. 둘째, 전체투표율이 80% 이상일 때, 해시태그 참여자에게 소정의 간식을 주었습니다. 투표 인증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2018 하나고 자율투표'와 함께 자신의 인증 사진을 올리면 되는 이벤트였습니다. 기숙사 학교 특성상 외부음식을 자주 먹지 못하는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율투표제 이벤트를 환영했으며, 더하여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학년별 투표율 1등 반들을 제외하고, 전교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한 반에 추가로 치킨을 포상하겠다고 약속하시자 하나고등학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투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표일이 되기 전부터 학생들은 서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며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투표 당일이 되자 실질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내내 학생들이 투표소 앞에 길에 줄을 서서 투표 후 투표소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자율투표제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620명의 학생들 중 총 58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4.4%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약속된 것과 같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3개의 반에 치킨이 주어졌으며, 학생부장 선생님께서도 추가로 2개의 반에 치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공지되고, 치킨을 받게 될 반이 결정된 다음에, 학생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율투표제를 도입하며 투표율을 위해 치킨을 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이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율투표제 홍보의 정당성을 질문하는 학생들은, 투표를 한 학생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투표소에 끌고 가 투표를 하도록 시켰으며,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험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치킨을 걸고 자율투표제를 실시하면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낮아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친구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페이스북에 올려 문제가 되었다.”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 자율투표제 홍보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자율투표제 홍보를 옹호하는 측에서도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치킨은 부가적인 보상이었을 뿐 충분히 학생들은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치킨을 위해 투표했다고 학생들을 비판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투표를 하지 않고자 했던 학생들을 끌고 가 투표를 시킨 것은 그 행위를 한 학생들의 잘못이지 자율투표제 홍보 내용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다. 뽑고자 하는 후보가 없었다면 투표를 하고 기권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 정치적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하나고등학교 페이스북 대나무 숲 페이지에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학생들이 개개인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기에 만들어진, 학생들의 권력을 양도받은 정치체가 학생회이다. 이 권력집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선거 과정에 참가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다. 물론 치킨이라는 보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보상이 한, 두 개의 반이라는 소단위 집단에 집중된다는 것이 학생들의 불만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점을 비판하기 전에 투표라는 것이 학생 사회에 어떠한 힘을 부여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장문의 글이 올라와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전교 임원 선출이나 학급 인원 선출을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한 적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자율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학생부
장려상

선거, 그리고 그 이면



_김가현



... 2년 전,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던 3월, 갓 입학해 낯선 환경에 힘겹게 적응하면서도 무엇이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나는, 입학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날 교무실 앞 복도에 붙은 한 벽보를 보았다. 선거관리위원 모집, 봉사활동 실적 10시간 기록.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그 벽보를 봤을 때에는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해준다는 말에 흑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바로 선거관리위원단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정말 바쁜 3주가 시작되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한 일은 학생회장단 후보들의 공약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는 일이었다.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두 팀으로, 학생회장이 된다는 것은 생활기록부 경쟁이 치열한 일반계 여고에서는 정말 큰 스펙이 되는 일이었기에,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리한 공약 남발로, 학교 선생님들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약의 허용 기준을 잡는 것부터 골치를 앓고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1번 후보의 공약 중 모 떡볶이 업체와의 협약으로 맺은 배달 떡볶이 할인 공약이었다. 업체 확인 결과 실제로 후보와 이야기는 끝마쳐진 상태였지만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것은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1번 후보에게

해당 공약을 삭제하라는 통보를 내렸지만, 1번 후보는 홍보 벽보에서만 해당 공약을 삭제시키고, 유권자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그 공약을 강조하며 삭제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감언이설로 공정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이를 휴대전화로 녹취하여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회의 결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후보에게 증거를 제시하며 이로 인해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했고, 반론이 있으면 이야기할 기회를 주겠다며 징계위원회에 해당 후보를 소환하니, 해당 후보는 도리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선거유세를 도운 학생이 한 말이고, 선거유세를 한 시간대는 1학년 총을 돌던 시간인데 어떤 1학년 위원이 녹취해서 회부를 하였냐고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선거관리위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언행을 하여 징계를 확정 짓고 징계 결과를 게시하며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이 징계로 인해 여론은 2번 후보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2번 후보는 1번 후보의 징계 사실을 이용하여 홍보 활동 시 1번 후보를 과하게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하여, 결국 2번 후보도 상대 후보에 대한 도 넘은 비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전쟁 같던 후보들의 유세 중재가 지나고 선거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선거관리위원 모두가 식사도 거른 채 매일매일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수업시간에도 수업을 들으러 가지 못할 만큼 바쁘게 투표 준비를 해보니, 전교생이 1,000명도 채 되지 않는데도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전국적인 선거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선거 전날은 선거 유세 청취가 있는 날이었다. 전교생이 후보들의 최종 공약을 듣기 위해 운동장에 모였고,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은 단상 위에서 후보들이 물의를 빚을 행동을 하진 않을까 살펴보기 위해, 선거 유세를 하는 후보 뒤에 서서 최종 연설을 지켜보았다. 우리에게, 선생님들께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무례하게 행동했던 후보들이, 유권자들 앞에서는 징계로 인해 잃은 신뢰감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조금 씩씩했다. 선거관리위원도 엄연한 유권자인데, 우리에게 보인 그 행동들을 다른 수많은 유권자에게 보였다면, 전교 임원이 없이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 당일이 되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오후 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 모두 불참한다는

것을 담당 선생님들께 미리 공지하고, 점심식사 시간에도 선거관리위원들만 따로 모여 식사를 빨리 마치고 투표 준비에 매진했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준비해놓고, 투표를 위해 들어오는 유권자 학생들에게 일일이 투표 방식을 안내했다. 모든 유권자가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유권자의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도 했다.

3개 학년, 총 27개의 반이 투표를 하는 데에만 3시간이 걸렸고, 선거관리위원들은 곧바로 개표작업을 진행했다. 다행히도 선거에 출마한 후보팀이 두 팀밖에 없었기 때문에 1번 후보, 2번 후보, 그리고 기권 세 곳으로만 분류해서 여러 팀이 나왔을 때보다 개표 작업이 수월했는데, 나는 개표작업을 진행하면서 기권의 힘이 생각보다 큼을 느끼게 되었다. 양 팀의 징계로 인해 기권표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당선 팀과 비당선 팀의 표차이었던 30표가 넘는 50표가 기권표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만약 어떠한 팀에게 투표했다면 당선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개표 결과가 담긴 벽보를 학교 곳곳에 부착하면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 모두에게 다들 수고했다며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다. 선거 결과 공표 이후에도 우리는 간간이 사적으로 모여 당선된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는지 관찰하였고, 우리가 포착한 공약 불이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담당하셨던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공약 이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사소한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시작했던 활동으로 나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다. 3주간의 선거관리위원 활동을 하면서 공정한 선거가 없었다면 출마 후보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과 공약 불이행으로 선거활동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느꼈고, 선거관리위원들의 제재가 없었다면 공약의 문제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투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소중한 내 한 표를 행사할 때 공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지도 살펴봐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기권은 유권자의 힘을 내려놓는 것임과 당신이 포기한 그 한 표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해 겨울,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표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세운 대표를

해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선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선거유세를 보며 우리의 힘을 어디에 행사할지 고민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그 이면에는 당신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해 공정한 시선에서 지켜보며, 선거의 4원칙 등을 지키는 데 힘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학생부
장려상

위대한 인물의 탄생은 내 손에서 시작된다



_ 나현빈

... 누구나 살아가면서 '선거'를 해 본 경험쯤은 가지고 있다. 선거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더 나은 생활로의 발전을 모색하며, 일을 추진하는 대표를 뽑는 과정이다. 학교에서는 반장선거, 학생회장선거, 사회에서는 동네 통반장선거, 부녀회장 선거, 입주민대표 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초등학생 때였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그때의 느낌이 온몸을 감싼다.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면서 뛰어다녔던 그 시절의 나에게도 하나의 추억이 뇌리에 진하게 남는다. 바로 '전교 회장 선거!', '아, 맞아. 그땐 그랬었지.'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 보려고 한다.

때는 봄철이었을 것이다. 겨우내 차가웠던 눈들이 녹고 새싹들이 솟아오른다. 꽃샘추위로 인해 코가 붉은색으로 물들었을 때였다. 그 나이 때 대부분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건 수업 시간이건 귀가 앵앵거릴 정도로 재잘거렸다. 그래도 조회 시간만큼은 시끄럽던 아이들이 조용해진다.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부른 뒤 묵념한 후,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할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곧 전교 회장 선거를 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어린 우리들은 선배들이 선거 신청서를 내는 모습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다.

초등학생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은 항상 크고 높게만 보였다. 그런 선배들이 나와서 자신을 뽑아 달라며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이 어린 나에게는 흥미롭게 보였다. 전교 회장단 선거 기간이 되면 학교 벽면 곳곳에 선거 홍보자들이 서로 질세라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등하교할 때에는 한동안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다.

색색으로 예쁘게 꾸민 종이들이 나날이 학교 벽면을 가득히 채워나갔다. 후보자 연설을 할 때는 강당이었는지 방송실이었는지는 자세히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직접 후보자들이 하는 연설을 찍어서 바로 TV에 보여주는 식으로 하였던 게 기억이 난다. 가끔 연설할 때 마이크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들었던 적도 있었고, TV가 심하게 지직거려서 잘 못 알아들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이들은 선배이자 후보자인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을 정해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찍었다.

선거하는 날만큼은 시끄러웠던 복도도 조용하게 느껴졌다. 자신들이 찍은 후보자가 과연 되었을까 하는 마음에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과연 이 공약들이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공약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가 등을 생각하면 어느샌가 초읽기가 시작된다. 마침내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투표결과가 올라온다.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가 회장으로 선출되고, 감사 인사와 앞으로의 다짐을 말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뿌듯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아마도 나 자신의 권리를 누렸다는 점에서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일까. 그 행동을 6년 동안 반복했고, 이에 따라 학교가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새롭게 추가된 것이 생기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때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생기기도 했다. 전교 회의라도 열리면 회의실에 각 반의 회장과 부회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면서,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더 나은 의견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조금 더 자라 중학생이 되었다. 처음 중학생이 되었을 때의 선거는 초등학생 때 선거와는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초등학교 때처럼 벽에 붙어있는 형형색색의 색지들을 보면서 익숙함을 느꼈으나, 교문 앞에서 목청 크게 울려 퍼지는 선거 유세 소리에는 깜짝 놀랐고, 가장 신기했던 것은, 전교 회장 선거가 시작되면 전 학년에 방송을 돌려 학생들을 강당으로 모은 후 각 후보자들이 스크린을 통해 학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내세운 공약들을 조목조목 발표하는 것이다. 각자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또는 생각지도 못한 곳의 허점을 찌르며 그를 고치고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발표를 하고 있었다. 마이크로 커진 목소리로 우렁우렁 발표할 때면, '어떻게 저렇게 떨지 않고 발표할까?' 하며 의문이 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친구의 대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연습했는지가 한눈에 보여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많은 연설들이 끝나고 대망의 투표 시간이 다가왔다. 중학교가 초등학교와 달랐던 점은, 초등학교는 컴퓨터의 키보드만 눌러 투표한 것과는 달리, 직접 투표소 안에 들어가 선거용지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의 번호에 도장을 찍는 것이었다. 마치 내가 선거 때 투표하는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그렇게 모인 투표용지들을 개표할 때, 회장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가슴께가 간질간질하더니, 마침내 자신이 한 표를 던진 후보자가 회장단이 되었을 때는 가슴이 저릿저릿한 것이다. 나와 같은 학생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저런 결과를 낳는다니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이 맴돌았다. 그리고 결국 회장단이 만들어지고, 자신들의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감이 쌓여갔다.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선거의 4원칙을 어기며 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 회장단에게 신뢰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의 한 표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과 같다. 그런 우리가 어른이 되어 사회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만약 선거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한 표를 그들에게 할애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 앞에 선 자 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믿고 국가를 맡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들은 선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선거에 대하여



_ 문준호

선거체험수기

128



...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경주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선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우리나라 선거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등, 다른 나라의 선거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줍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어 대통령 일을 하시고 있으며, 두 달 후에는 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시의원 등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어, 부모님의 휴대폰에는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가 “카톡! 카톡!” 하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전교 학생회장 선거’, ‘학급 반장 선거’ 등에 후보자가 되기도 하는 등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선거의 중요성을 모르고 내가 찍어준 친구나 선배가 전교 학생회장이나 학급 반장으로 뽑히면, 그저 축하만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회나 역사 등 여러 가지 과목에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고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여를 못 했지만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가 최근에도 많이 있었는데,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말을 부모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거란, 사전에서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라고 합니다.

선거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선거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되어있었는데, 이런 도시국가마다 성인 남성들이 한곳에 모여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시시대 씨족사회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 씨족장이나 촌장을 뽑았으며, 내가 사는 경주의 옛 모습 이었던 신라시대 때에는 화백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점차 발전되어온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선거로 뽑힌 대표자에 의해 그 조직이나 집단이 망하든지 잘 되든지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잘 못 뽑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도 있었고 잘 뽑은 대통령 덕에 엄청난 발전을 한 나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보통선거, 1인 1표의 평등선거,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직접선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선거라는 4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선거는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선거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나라나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선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호 ○번을 달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귀찮아서 ○번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장난스러운 말이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 모습 중 하나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선거할 때의 모습을 몇 번 보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선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친구들 중 몇몇의 부모님은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 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에 와서 선거를 통해서 겪은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학급 부반장 선거와 전교 부회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어 선거를 해보니,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야만 선출되고 해서, 이견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 후보자들이 발표를 잘했는데도 친구가 없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자를 뽑을 때 여러 면을 보고 대표가 될 만한 후보자를 뽑아야 되지, 단지 자기하고 친하다고 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험한 것 중에, 제가 후보자로 나가보니,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전교 부회장 후보로 선거를 할 때 다른 학생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돈을 주면 찍어주겠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나는 나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부회장 후보자한테 후보라는 사실을 이용해 돈을 빌려 달라거나 먹을 것을 사달라는 등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로 보아서, 어쩌면 더 큰 선거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으며, 여러 경우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돈과 관련한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선거를 꼭 해야 하는지, 또한 대표를 뽑는데 자기에게 친한 사람을 뽑거나 대가를 받고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만큼 정정당당하게 뽑아야 하고 그렇게 뽑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학교에서지만 후보로 나가보니, 우리들 학생선거에도 부정이 있는데 분명 큰 선거에는 부정을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거에 대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꼭 고쳐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희 때라고 꼭 정직할 거라고 확신은 못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계속 반칙을 하고 심판은 모른 채하고 넘어간다면 과연 그 경기가 보기 좋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꼭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 들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도 고쳐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홍보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한 이런 부정 선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등,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카톡, SNS상에 매일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이유는 매일매일 보다 보면 까먹지도 않을 것이고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선거가 없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을 없애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투표를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티켓을 준다든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난 선거에서는 돈과 권력이 개입된 불법, 부정선거가 근절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거 문화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관심과 불법, 부정선거를 없애고, 선거의 민주화와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표자를 감시하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올바른 선거문화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할 거로 생각합니다.





학생부
장려상

권리이자 의무, 투표



_민 서은

...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관한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그런 현수막을 보자니 3월에 있었던 학교 회장 선거가 떠올랐다.

불과 몇 주 전 학교에서 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여러 활동이 있었다. 나는 그중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후보 등록, 후보 운동 관리, 공약 발표, 벽보 붙이기, 투표 방법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활동을 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후보들 간의 사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과, 선거를 위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선거기간에도, 선거 후에도, 후보 간의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져 선거가 패싸움의 양상을 띠지 않게 하는 것. 선거에 대한 내용이 유출되어 나중에 공정성이 없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같은 선관위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친한 친구가 후보에 출마하게 되어 다른 후보의 공약이나 회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나 또한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 은근히 물어올 때면 난감하였다.

사실 선거는 하나의 전쟁이다. 이기거나 지거나. 아무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이런 선거의 특성상 후보들 간의 감정싸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감정싸움이 과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그때

당시 후보였던 친구들의 사이가 틀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왠지 뿌듯하다.

선관위로서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유권자로서 학교를 이끌어갈 학생회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들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의견을 듣고 말해줄 학생회를 선출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이고 의무이다. 나를 위하고 학교를 위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단연 눈에 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나뿐만이 아닌 것 같았다. 그저 당선되기 위해 내놓는 재미있는 공약이 아닌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약에 대한 중요성도 알 수 있었다.

선거 준비와 진행을 하면서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먼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리 학교에서는 2팀의 후보가 있었다. 투표 결과는 비등하였지만 결국 한 팀만이 당선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었지만, 기권표와 무효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만약 기권표와 무효표가 없었더라면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한 표, 한 표 차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을 보고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왜 선거를 하는 것일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내 생각을 반영해서 정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따라 정책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만약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대표자를 뽑으면 학교를 위한 정책들이 엉망이 될 수 있으므로,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도자를 도울 대표자를 선출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참여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당성이 부족한 대표가 선출됨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참여율의 저조로 인해 소수자들을 위한 대표가 선출되고 만다면 우리의 고민과 의견을 다 누가 들어준단 말인가?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어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사람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흔히들 ‘권리는 의무의 대가’라고 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선출된 후보에 대해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투표하는 것은 권리이면서 의무인 것이다. 투표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비판의 권리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만 내놓는다면 그것이 과연 선거에 있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진 유권자로서 당연한 행위인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의사를堂堂하게 밝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권리를 위해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해왔고, 그 결과 우리는 많은 권리 중 투표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많은 역사를 거쳐 얻은 투표권을 버릴 것인가? 선택 또한 자유다. 하지만 선택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나는 과연 나의 의무와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학생부
장려상

빛나는 학교를 만드는, 위대한 선거



_ 박호원

... 교문 앞이 시끌벅적했다. 아이들이 교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손팻말을 든 아이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후보들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다.

“기호 1번! 저를 뽑아 주신다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폭력과 왕따가 없는 학교를 원한다면, 저를 뽑아주세요!”

“기호 3번! 웃음이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후보들 사이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저 아이는...’

후보를 도와주러 나온 참모 중의 한 명이었다. 그 아이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그 옆을 지나갈 때는 내 코앞에 손팻말을 들이대기까지 했다.

나는 두려웠다. 그 아이는 평소에 나를 괴롭히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선생님의 눈길을 피해 손으로 내 머리를 때리고 발로 내 다리를 걷어차곤 했다. 복도와 계단을 걷는 나를 뒤에서 밀칠 때도 많았다.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나타나, “야! 비켜!”라며 내 자리를 빼앗아갈 때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못 했다. 속으로 끄끙거리기만 했다. ‘나만 참으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이나 아빠, 엄마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거의 참모가 된 것이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사납게 굴면서 이런 말을 했다.

“너, 내가 뽑으라는 후보 안 뽑으면, 큰일 날 줄 알아!”

나는 내가 뽑고 싶은 후보와 그 아이가 뽑으라는 후보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눈여겨보던 회장 후보는 늘 술선수범하던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 친구는 먼저 도맡아서 했다. 그 친구는 반장을 맡았을 때도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졌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믿음이 갔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던 아이가 뽑으라는 후보는 믿음직스럽지가 않았다. 평소 학교에서 하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몇 해 전에는 반장 선거 때 말했던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또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였다.

나는 한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 회장감을 뽑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굳게 했다기도, ‘아니야,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뽑았다는 걸 알면, 그 아이는 나를 더 괴롭힐지 몰라.’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다.

드디어 선거일이 되었다.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오늘 학교에 가지 말까? 차라리 투표를 안 한다면,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꿈지락거렸다.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학교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은 나는 한참 동안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그때 선생님께서 큰소리로 말씀을 하셨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직접 전교 회장을 뽑는 날이야.”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쪽 둘러본 다음 말씀을 이어 하셨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야 하겠니?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아는 친구가 뽑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로 뽑는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의미가 사라지겠지? 우리 학교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친구를 공정한 방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잊지 말아라. 선거 원칙 중 하나가 비밀선거란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래,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용기가 솟아올랐다.

‘결심했어! 우리 학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뽑겠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나올 때는, 가슴이 뵁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투표 결과가 나왔다. 내가 뽑은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회장이 된 걸 축하해!”

아이들은 다음 학기 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또 당선되지 못한 후보들에게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아쉽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그 뒤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용기를 내어 투표했던 경험 때문이었을까? 투표가 끝난 뒤로 나는 또 한 번의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동안 마음속에 꾀꾀 묻어둔 채, 꾀 참고만 있던 두려움에 대해서 용기를 낸 것이다.

“가만히 있는 나한테 그러지 마!”

나는 내 다리를 발로 차는 아이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그런 다음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먼저 선생님께서 나를 불러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아이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동안 네가 참 힘든 일을 겪었더구나.”

나를 괴롭혔던 아이도 선생님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그 아이는 나를 찾아왔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아무리 심하게 굴어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너는 진짜 착한 아이였는데..., 사실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장난이 심해서 그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해!”

그 아이가 나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아이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거칠고 짓궂었던 그 아이가 변하기까지 했다. 아직도 조금은 개구쟁이이긴 하지만, 이제는 친구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아이가 되었다.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용기 있게 선거에 참여한 이후에, 우리 학교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학교가 되었다고. 솔선수범하면서 봉사하는 회장이 있고, 나를 괴롭히던 아이도 상냥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빛나는 우리 학교를 만든 힘, 그건 바로 우리가 직접 참여한 선거가 아닐까?



학생부
장려상

내 표는 친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



_오 채 호

...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 진짜 선거는 못 해봤다. 그러나 해마다 3월이 되면 가짜 선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나를 진지한 선거에 꼭 참여하고 있다. 바로 회장 선거이다. 나는 3학년 때 회장 선거에 나가서 임원이 된 적이 있었다. 아깝게도 회장과 적은 표 차로, 나는 부회장이 되었다. 회장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회장을 도와 부회장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다시는 회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회장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선거에 진지하게 참여한다. 우리 부모님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어떤 선거든지, 나를 데리고 가셨다. 물론 표를 찍을 때는 나를 쏙 빼놓고 혼자서 기표소에 들어가셨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너무 알고 싶었지만, 한 번도 알려 주시지 않았다. 내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한다고 했는데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너무 서운했다. 그랬더니 엄마는 내게 선거의 규칙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니 빠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선거에 규칙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 후보자들 중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마음대로 찍는 것이 선거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표소에 아무도 없이 들어가는

것인데, 무슨 규칙이 있는 것일까? 나는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엄마는 투표는 '비밀투표'라는 규칙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절대로 남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가족이라도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그냥 선거일이 되면 사람들이 아무나 한 사람을 골라서 투표하고 재미있는 공휴일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선거를 할 수 있는 어른들은, 선거의 규칙들을 다 알고 있었다니 존경스러웠다.

나는 이렇게 경험을 해서 선거를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은 선거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 같다. 선거는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친한 친구라서 뽑고, 어떤 친구들은 무엇을 사준다고 해서 뽑고, 누구는 똑똑한 아이 같다고 뽑는다. 그것은 잘못된 투표이다.

바른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뽑을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 그 사람이 우리 반의 회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1학기 동안 우리 반을 좋은 반이나 모범 반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말을 잘 들어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걸만 번지르르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가는 큰 낭패가 생긴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는 자기가 하겠다고 한 일들을 대부분 할 수 없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는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뽑는 제도이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대장을 뽑는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사람을 뽑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리석어 보인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우리를 관리하고 명령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지도자가 없는 반이나 나라가 있다면 아마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각자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므로 모든 세상이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호등이 너무 싫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린다. 그렇게 되면 길을 계속 건너고 싶어 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사고가 자주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혼란과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표를 뽑는 일은 우리의 자유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우리를 잘 지도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뽑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지만 뽑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은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을 다시는 뽑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뽑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게 된다.

이렇게 선거는 중요하다. 우리를 잘 지도해 줄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거에도 신중히 참여하고 장난치면 안 된다. ‘너는 나랑 친구잖아.’라고 하면서 친하니까 뽑으라고 해도 안 되고, ‘닭꼬치’를 사준다고 꼬드겨도 절대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넘겨주면 안 된다. 후보자가 나와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진짜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약속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에서 하는 회장 선거는 유치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어떤 선거든지 진지하게 참여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유치한 초등학교 선거라도 열심히 참여해서 투표하는 연습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진짜 선거를 할 때 좋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반 선거는 친하다고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친구나, 무엇을 사준다고 한 친구는 뽑히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들은 아직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번 회장 선거를 겪으며 한 가지 다짐을 했다. 바로 2학기 회장 선거에 나가는 것이다. 내가 회장 선거에 나가기로 한 이유는 친구들에게 멋진 선거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회장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히 알려주면 친구들은 어떤 회장을 뽑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선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제도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지도자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투표는 정말 멋진 발명품 같다. 나는 빨리 스무 살이 되고 싶다. 스무 살이 되면 나는 진짜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선거를 통해 내 생각을 세상에 전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학생부
장려상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선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_유가은

... 나는 이제 청소년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 된 것이다.

3월, 아픈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지만, 그래도 1학기 실장선거에 도전해 보았다.
초등학교와 달리 선생님 역할이 크게 반영이 되어 실장에 뽑힐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선생님께서 “인기투표가 아닌, 한 학기 동안 우리 반을 대표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친구를 뽑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씀해 주셨다. 청소년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받은 사실에 기뻐다. 초등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한 변화에 용기를 내어 지난 경험담을
얘기해 볼까 한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 주어지는, 자유롭게 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권리랄까?

행복했던 초등시절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누고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선거규정대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준비했다. 주말에 6명의 친구가
우리 집에 모여 오리고, 붙이고, 그려가며 벽보를 만들었다. 엄마가 해주신 간식도 먹어가며
즐겁게 오고 가는 의견을 들으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모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견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행복한 학교, 행복나무 지킴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공약 2가지만 자신



있게 내세웠다.

첫째,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막기 위한 ‘행복나무함’ 설치하기.

둘째, 화장실, 교실에 천연방향제 설치하기.

우리들의 시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싶었다. 부모님의 권유로, 친구가 추천해줘서, 얼떨결에 나왔다는 후보들 모두가 전문 업체에서 해준 연예인 분위기의 벽보를 붙였다. 난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되고 뿌듯함이 컸기 때문에 희망적이었다.

투표권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주어진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두가 모인 강당에서 6명의 후보가 소견문을 발표했다. 마지막 소견문을 발표한 후보에게 4, 5학년이 환호성을 지르며, 열렬히 호응해 주었다. 6학년은 지킬 수 없는 공약인 줄 알기에 반응이 싸늘했고, 또한 표도 주지 않았다. 문제는 4, 5학년의 지지를 받고 마지막 후보가 당선되었다. 공약은 이랬다.

“교실 복도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무료로 음료수를 뽑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투표 결과를 놓고 선생님들께서는 긴급회의를 하셨고, 6학년은 탄핵해야 한다며 술렁였다. 사전에 소견문을 점검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하셨다. 나는 속상하기도 했지만, 학생들 의식 수준에 마음이 더 아파 눈물이 났다. 담임선생님께서 날 부르시어 “미안하다, 정말 최고였다.”라며 토닥여 주셨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검열할 거라고 하셨다. 마지막 후보자이자 당선된 친구와도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다며, 담임선생님이 많이도 미안해하셨다.

나 역시도 올바른 선거, 올바른 투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임원선거와 학생자치에 관한 관심도 실제로 미약하긴 하지만 전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거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선거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참정권도 꼭 필요하지만,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 밝게 꿈꾸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문화가 보장받길 간절히 소원한다.



학생부
장려상

내가 생각하는 선거의 문제점과 올바른 투표



_이문성



... 나는 이제껏 초등학교 반장선거부터 고등학교 전교 회장, 부회장 선거까지 약 16번 정도의 투표를 해왔다. ‘후보자의 인기’는 당선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어떤 선거든지 유권자로부터 인기 있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당선자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공약이 장밋빛으로 가득해 그럴듯해 보이지만, 헛된 약속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가령 학급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제가 실장이 되면 우리 학급의 조화와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학급의 모든 친구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는 못했다. 즉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실적인 공약도 나오곤 했다. “민주적인 학급을 위해 익명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의함을 설치하겠다.” 등이다. 그렇다고 무모하거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공약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후보자들보다 간식을 자주 제공하겠다.”, “대부분의 학급청소를 하겠다.” 등의 공약도 난무했다. 이러한 현상은 학급에서만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국가 단위의 각종 선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능한, 장밋빛이든 여러 공약이 있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에

관심을 두고 투표에 참여했을까? 상식적으로는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내건 공약 중에서 비현실적인 것들을 가려내고 공익적 공약을 내 건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다. 대부분 유권자가 꼽은 선호기준은 '후보자와의 친한 정도'였다. 대다수 유권자는 투표한 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거나, 지인의 지인이 후보자로 나와 찍었다고 밝혔다. 이에 못지않게 큰 영향을 끼친 요소는 '사익'이었다. 실제로는 학급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혼자서는 학급청소를 할 수 없는데도 상당수의 학급구성원은 반사이익을 기대했다. 간식 횟수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아무튼, 좋은 후보자와 간식 횟수가 비례적 관계가 아닌데도 간식에 급급한 것은, 인간 존엄과 관련된 기본권을 물질적으로만 바라보려는 저급한 욕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중학교에 학부모가 간식을 보내는 것이 법에 따라 금지되면서 학급선거에서도 공개적으로 간식 공약을 금지했지만, 모르는 척 뒤편에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도 있었다. 이처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지향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학급이든 국가든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선거에서 이런 성향이 투표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많은 사람이 국가적 투표에서도 꼼꼼하게 공약을 비교하여 선별하지 않고, 혈연, 지연이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표하곤 한다. 우리 가족만 해도 지난 선거에서 특정한 정당의 후보에 대해 맹목적으로 투표했다. 그 정당이 좋다는 이유만 따졌다. 물론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정당의 역사가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이 공익적 가치에 충실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익적인 정당의 추천을 받았고 제도적으로 검증되었어도 제도가 보지 못하는 인성이나 사생활에 있어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정당이든 아니든 간에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정해야 한다. 우리 가족만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현상도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지금은 줄었지만, 아직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출신 지역을 따진다. 호남과 영남지방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몰표가 나오는 것도 잘못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후보를 뽑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이 선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정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교육도 개선해야 한다. 개인적 경험이지만 나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까지 선거의 가치나 후보자를 고르는 기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선거에 대한 합리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대충 들었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적당하게 검색한 정보로만 선거문제를 이해한다. 물론 그렇게 얻은 정보는 좋은 후보자를 고르는 정보일 수 있지만, 거짓이거나 근거가 있어도 빈약한 후보자를 적격 후보자로 착각하게 할 가능성도 큰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선거를 대하는 국민의 자세를 성찰하지 않고서 정치인들에게만 국민을 위해서 항상 바른 정치를 하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못난 정치인을 뽑은 주체는 바로 국민들이었다. 국민이 유권자로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신중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가 선호하는 정당, 학연, 지연이라는 요소보다 후보자의 인성이나 공약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투표는 나무에 줄 양분이고 후보자들은 나무의 뿌리, 당선자들은 몸통, 가지이며 그 결과는 나뭇잎과 열매이다. 우리가 뿌리에 양분을 주려고 할 때 이미 죽은 나무에 양분을 주지 않는 것처럼, 또한 죽은 나무에 양분을 준다고 해도 과실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뿌리에 양분을 주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를 대하는 국민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국가의 미래는 국민에 의해 결정된다



_이민기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헌정 사상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였다. 하지만 수백만에 달하는 국민들의 촛불이 없었더라면, 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모든 국민이 간절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박근혜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최순실이 비선 실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라의 대통령이 한 민간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일의 원인은 제대로 된 후보 검증도 없이, 그저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그에게 투표한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후보가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후보가 국내외의 정세를 잘 이해하여 외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등 유권자가 검증해야 할 내용은 상당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박근혜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5년을 맡겼다.

결국 4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처참했다. 박근혜에 얽힌 의혹들은 속속들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국민이 가져온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후보의 토론 자세나 능력 등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대한민국은 조금 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까닭으로 선거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우리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말 많은 선거를 함에도, 대부분 별생각조차 하지 않고 반장을 선출한다. 그 후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무작정 투표하는 행위는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리더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방향이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도 이전에는 학교에서의 선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도 별생각 없이 투표하곤 했다. 당시 이전과는 달리 많은 아이들이 후보로 나왔었고,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하여 선거 벽보를 붙여 놓았었다. 하지만, 후보가 너무 많아서 개개인의 공약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기보다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후보의 것을 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가장 반에 적합할지 잘 몰랐고, 그냥 내가 좀 더 잘 아는 아이에게 투표했었다. 결국 그 아이가 반장이 되었고, 우리 반의 한 학기를 맡게 되었다.

물론 반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개인적으로 반장이 한 학기 동안 우리 반을 위해 무엇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학급 회의를 할 때도 반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반장을 이끌어 나갔으며,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도 반장은 가만히 있고 아이들이 모든 일을 도맡았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만약 다른 후보들에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 반에 더 적합한 사람이 반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후에 반장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무언가 제대로 준비해서 선거운동을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즉흥적으로 반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그때는 공약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었고, 고민 끝에 일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말하면서 후보 연설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연설 내용이 너무 미흡해 당연히 다른 후보가 당선될 거로 생각했었는데 내용과 관계없이 아이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고, 난 우리 반의 한 학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본다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어쩌면 박근혜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다. 아무런 공약도 없이, 학급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다는 등 그런 뻘 한 말들을 일본어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장이 되었다는 것이 이상했고, 공약부터 벽보, 연설문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다른 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게 과연 옳은 선거라고 할 수 있는지, 내가 과연 반장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다른 아이였으면 더 우리 반을 잘 이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 우리가 투표함에 넣은 것은 단순히 투표용지 한 장에 불과했음에도, 이것이 가져온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이 수많은 사람이 정권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정 · 재계, 사법부, 청와대 등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나라 전체에 만연했다. 그러나 이 모든 폐해는 국민 모두의 투표 결과였다.

종이 한 장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미래에 무슨 일을 가져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선거라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대선이나 총선같이 중요한 선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자리에 걸맞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후보를 평가하여야 한다. 후보의 출신 지역이나 정당, 성향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TV 토론이나 후보의 정책 · 공약 등에 귀 기울여 제대로 된 후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재를 찾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쓸모가 없으며 단지 생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주 약간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일을 단순히 놀러 가거나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광화문을 촛불로 가득 메웠던 그날, 우리는 오직 단 하나만을 외쳤다. 우리의 잘못을, 그릇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이다.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선거에 관심을 가져보자. 한 표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몇 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몇 분은 앞으로의 몇 년을 좌우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투표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부
장려상

‘워너원’을 뽑는다면



_이연준

... 2017년 대한민국은 온통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내, 나야 내!’ 물결이었다. ‘Pick me, pick me up, 제발 나를’이란 노래 가사처럼 우리 누나도, 친구들도 누구를 꼭 좀 뽑아달라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왔다.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던 나는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프로그램을 보고 팬이 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최종 합격자인 11명 안에 넣기 위해 아주 열심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 선거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실제 선거는 내 삶과 관련이라도 있지, <프로듀스101>은 대체 우리 누나나 내 친구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누나,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박우진이 누나 인생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우진이는 내 인생 못 바꿔주지만, 나는 우진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거든? 내가 우리 우진이 잘 키워서 우진이 인생 바꿔줄 거라고.”

“누나가 우진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누나보다 나이가 많아, 연예인이 밥 먹여주냐?”라고 했다가 누나한테 엉덩이를 발로 한 대 맞아야 했다.

그렇게 누나와 내 친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11명이 뽑혔고 그들은 ‘워너원’이란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내가 주목한 것은 워너원이 아니다. 워너원을 만들어간 팬들이 정말 흥미로웠다. 팬들은 11명이 뽑히기 전에 자신이 지지하는 연습생이 조금이라도 표를 많이 받으라고 스스로 홍보물을 만들거나 돈을 모아 지하철 광고를 했다. 연습생이 외모도 예뻐지도록 화장에 관한 충고를 하고 멋지게 입으라고 ‘코디 북’을 만들어서 옷과 함께 보내기도 했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연습생에 관해 악성 루머가 올라오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연습생을 보호하고 해명하는 ‘땃글’을 달고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다. 또, 자신이 그리는 멋진 합격생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지하는 연습생 외에도 괜찮은 연습생은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울기도 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렇게 지지하는 연습생을 한결같이 지원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지한 연습생이 합격하면 환호하며 축하 글로 SNS를 도배했고, 떨어진 친구는 다음날 눈이 퐁퐁 부어 학원에 왔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던 사람들의 반 정도가 방송이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이 식어버린 것이다. 자신이 지지한 연습생이 워너원으로 데뷔했어도 별다른 관심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이 후련해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워너원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어서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아도 관심을 보인다. 나머지 반 정도는 워너원의 팬덤인 ‘워너블’이 되어 지금도 한결같이 그들을 열렬히 지지한다. 앨범을 구매하고, 스트리밍을 돌리고, 워너원이 광고하는 상품을 충성스럽게 사서 워너원의 인기를 올려주고 있다. 그들의 스케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한 행동, 말 한마디에 열광한다.

워너블이 워너원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워너원! 하고 싶은 거 다 해!’이다. 워너원이 원하는 것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겠다는 의미이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팬들이,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지하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했다던 연습생 11명을 전 세계로 공연을 다니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키운 것이다. 자신이 뽑았기 때문인지 워너블은 워너원이 역올한 일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음성인식’을 맡기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며 워너원과 함께 커나가고 있다. 이제까지 없었던 이런 충성심 높은 팬덤은 투표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거도 이처럼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기여 영합하는 대표를 뽑자는 의미가 아니다. 정말 좋은 대표를 투표권을 행사하는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주장을 하고 싶어 이 글을 쓰고 있다. 내가 뽑았기 때문에 더 정이 가고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잘하면 칭찬해서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잘못하면 혼을 내서 바른길로 가도록 잡아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 역할인 것이다. 매력적인 후보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검색하고, 실제 만나서 그 사람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말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봐서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된 상태로 그 후보를 뽑는다. 그리고 내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지지하며 좀 더 나은 당선자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꿈꾼다.

그렇게 워너원과 같은 당선자들로 이루어진 국회를 국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만든다면, 투표 후에도 당선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치에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주인의식일 것이다. 학교에 다니며 학교의 주인이 여러분이란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라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많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워너원과 워너블의 관계를 보면서, 주인의식을 가진 팬들이 만들어내는 스타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람직한 투표의 결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의원을, 각종 대표들을, 워너블의 마음으로 워너원을 뽑듯이 한다면 지금처럼 주인 없는 나라인 것 같은 국회의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현명한 주권자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현명한 주권자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꿈꾼다.





학생부
장려상

미래의 유권자 우리, 매의 눈으로 진지하게



_이철승

... 요즈음 우리는 대중 매체를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 연루된 공직자, 뒷돈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전 대통령, 국정 농단으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산 전 대통령, 국민의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의 부적절한 대화 등 정의롭지 않고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쥐는 사태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고, 유권자의 무관심과 흐려진 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하는 선거에 관한 첫 단추부터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많은 선거를 경험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반장선거 혹은 중학교 때 겪는 실장 선거 등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선거들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초등생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비슷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에 나오고 그 공약을 지킬 만한 능력도,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 허무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한 친구를 뽑았어요.”, “별생각 없어요.”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허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몇몇은 선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밀 투표를 지키지 않고 떠벌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치러진 실장 선거 때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남자니깐 ○○이 뽑아줘야지”라고 말하였고, 선거에 나오는 아이들은 별다른 연설도 하지 않고 뽑혔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선거는 인기투표와 별다를 게 없는 형식입니다.

물론 전교 회장 선거의 경우 조금은 다르기도 합니다. 반장이나 실장의 경우 간단한 연설과 투표로 단출한 방식이지만, 전교 회장은 오랜 시간 만든 연설과 약 1~2주간의 홍보, 그리고 나서야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듯 전교 회장 선거의 경우 다른 경우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부족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급생끼리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투표해주는 경향이 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형 내 친구 ○○형이니깐 좀 찍어줘” “재는 공부를 잘한데” 등의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의 경우 “아~ 귀찮은데 그냥 같은 반 ○○이 찍자”라고 하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바른 선거를 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공약과 실천 능력, 마지막으로 인성을 봐야 하는데 이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점점 실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 친분으로 하던 투표, 별생각 없이 하던 투표, 혹은 신경 쓰지 않고, 아예 하지 않던 투표들은 커서 사람들의 눈을 흐리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투표가 진행되길 바란다면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은 투표에 조금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의 유권자이자 주인인 우리 학생들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길러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가장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반장이나 실장의 역할을 늘려 책임감을 기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학생들은 반장이나 실장이 돼도 자신이 말한 공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조금 있는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자신의 공약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선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합니다. 만일 첫째가 지켜진다면, 반장을 뽑는 것은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므로, 전과

같이 대충 뽑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앞의 두 가지를 한다고 해도 장난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다시 생각하고 진중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이런 후보들을 구분하여, 진정 우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기를 쓰면서 깨달은 점과 생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매체를 통해 접하는 한심한 사건들이나 자격 없는 정치인들을 먼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유권자인 우리가 올바른 인격과 책임감 있게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가려 뽑을 수 있는 매의 눈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치르고 있는,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선거의 부족한 점,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한 선거에 임하는 행동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으로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선거 참여 체험 수기를 통해서, 미래의 모든 유권자분들도 저처럼 선거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라는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며



_전 대산

...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신입생이 되면 교실 안팎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우리 반과 우리 학교를 위해 한 학기 동안 봉사할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가 시작을 알리기 때문이다.

어느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나는 해마다 두 번씩 선거에 참여해 왔다. 때로는 누군가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아닌 출마자가 되어 입후보 연설도 하고 당선 인사도 했지만, 그 모두는 나에게 있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알찬 시간이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 무엇보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나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선거가 매번 공정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초등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서는 그것이 더 심했다. 후보가 타 후보를 인신공격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군것질을 시켜 주면서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달리기를 할 때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처럼, 선거에서 금지하는 근거 없는 비방과 금품 살포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어느 한 곳에 치우쳐 판단하지 말고 그에 따른 책임 의식을 심어주어, 어떤 경우에도 선거에서 부정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아직 투표권이 없는 내가 접하는 학교 내의 선거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참여하는 선거의 축소판이다.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혼탁하지 않고 출마자들의 생각과 소신을 바르게 전달해야만 참된 일꾼을 뽑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출마자의 공약은 어디로 숨어 버리고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로 흐른다면, 선거는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 정말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한다고 들었다. 이 선거 원칙에 따라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뽑고, 지방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제 멀게 보이던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소신을 갖고 입후보한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또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더라도 우리는 일부러 그걸 따질 필요는 없다.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 가장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줄 사람을 뽑는 것, 그것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내가 지금 사는 곳은 구도심이라 그런지 나이 드신 어른도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른도 있다. 평소에는 집 밖에 외출도 하시지 않아,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이름은 물론 얼굴조차 모르는 어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국회의원 선거일이라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동네에 불이 났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문을 박차고 나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쏠살같이 달려갔더니, 그곳은 바로 신체장애로 고생하시는 이웃 어른의 집이었다. 주위 어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소에 가는 것을 그리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서 어떻게든 투표장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가족들과 한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몸도 불편한 그 어른이 투표를 하러 갈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지, 어른들에게 있어 겹질 같은 체면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몸도 불편하신 어른이 건강한 사람도 하지 않는 투표를 하러 가신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마음은 알겠지만, 본인이 투표를 하러

간다는데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말리는 것을 보면서 몸이 불편한 어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국민으로서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왔던 어른들도 대부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나는 그 어른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서 마음대로 걸을 수는 없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너무 잘 아는 그 어른을 보면서 선거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돈도 안 되는 그까짓 선거에 참여해서 뭐 하나며 그만둘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언쟁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는 그 어른을 보면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당시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거듭하다가 몸이 불편한 어른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자동차를 갖고 계신 아저씨께 부탁을 드렸다. 처음에는 아저씨도 남의 일에 관여하기 싫다며 나의 어려운 부탁에 쉽사리 승낙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몇 차례나 부탁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어른이 타고 갈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 동네로 찾아오셨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지 집을 나온 다음에도 차에 태우고 내리는 일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어른을 부축하며 투표소에 들어설 때 하마터면 눈물이 나올 뻔하였다. 다행히 투표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한데도 일부러 투표를 하러 오신 어른께 박수를 보내주고 음료수를 대접하며 투표하는 순서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른을 투표소에 모시고 오기까지 힘은 들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모시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그토록 투표를 하고 싶어 하는 어른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처럼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말았더라면, 그 어른은 영락없이 스스로의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아저씨의 작은 도움의 손길로 투표를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도착한 어른은 나와 아저씨 손을 붙잡고 몇 번씩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다.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보고 장애인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굳어졌다. 만약 몸이 불편하다고 선거권을 아예 주지 않는다면 것처럼 큰 잘못도 없을 것이다.

나는 한바탕의 소동 끝에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웃음 짓는 그 어른을 보면서, 몸이 건강한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남의 일이라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더라면 우리 이웃에 사는 그 어른과 내가 지금처럼 친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권을 대신해 법을 만드는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우리가 대표를 잘못 뽑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듯이, 선거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민주화를 이루는 지름길 같았다.

나는 그 일을 통해 처음에는 얼굴조차 몰랐던 이웃을 가깝게 만들어 주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 선거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면서도 투표를 하지 않아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고 사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 또다시 선거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민 누구에게나 한 표의 권리를 균등하게 나눠주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도 한 표씩을 나눠 주는 것은, 바로 모두가 우리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가운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대신해 일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데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선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나타나는 투표이다. 올해도 나는 이웃집의 장애를 가진 어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투표소에 찾아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선거를 통한 주권의 소중함을 배워 나가고 싶다.





‘나’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준 선거 후 변화된 모습



_정승아

선거체험수기

160



... 저의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 될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기회를 만들어준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선거’ 후에 그동안 저의 작은 꿈을 실현하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소중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을 분주히 보내며 때론 기뻐하고, 때론 좌절도 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지금의 내 모습은 희망의 발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처음부터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선거 당일 단상에 올랐을 때, 앞이 캄캄하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 있게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의지가 약해졌다면 지금의 제가 없을 겁니다. 나 자신을 믿고, 엄마의 용기와 믿음 아래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순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무런 일없이 잘 다니던 저에게 어떤 사고의 계기가 생겨서, 자신감을 느끼고자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때론 부끄러운 기억도 되고 창피했지만, 전 이제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은 출마로 선거 구성원 및 공약, 선거 벽보 등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도와주던 친구도 다른 후보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배신할 땐 속상했습니다.

친구들을 미워하면, 어린 마음에도 표가 나오지 않을 거 같아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정당당당하게 선거를 준비했고, 이른 아침부터 교문에서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악수도 청했고, 마음은 속상했지만, 환한 미소로 친구들을 대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노력했습니다.

‘왕따 없는 학교, 건전한 정신의 스포츠 운동 활성화, 건강 우유 골라 먹기, 마니토 활동’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교 어린이회장에 출마한 저는 5명의 후보와 겨루어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후 전라남도 학생교육원이 주최하는 ‘리더십 과정’ 참여도 하고, 여러 학교에서 온 어린이 회장들과 함께 교육받고 함께 토론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맘속에 망설이던 일들도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다녀온 후 용기를 가지고 제가 내세운 공약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내 세운 공약들을 건의하여 전교 학생들에게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신뢰감과 믿음을 심어주는 어린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선거를 치른 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저에겐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회장을 하면서 무슨 일이든 부딪쳐보고 그 속에서 깨닫고 내 실수를 알게 된 점도 좋았고, 미워하던 친구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회장으로서 학교 전체의 선,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내 욕심을 먼저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격도 예전처럼 밝아졌고, 학생회장으로서 책임감도 커져서 학교폭력이 일지 않도록 작은 말다툼도 찾아내어 친구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어린 동생들이 고민 상담하러 와 줄 땐 그 동생 편에 서서 마음을 헤아려 주려 노력하였고 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건 제게도 많은 기쁨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든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사회라 일컫는 초등학교 시절, 선거로 인해 저에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용기가 없어진 친구, 자신감이 결여된 친구, 각자의 맘속에 자리 잡은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현재도 반 친구들이 고민 상담해 올 땐 손 내밀고 맘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예민한

고교시절의 친구들, 자존심도 강하고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려 하지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걸어주고 웃어줍니다. 현재 반장을 맡아서 담임선생님과 더불어 행복한 반, 웃음이 넘치는 반, 왕따 없는 우정이 쌓이는 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얻은 작은 일들이 나에겐 살아가는데 마법 같은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자신 없어서 포기했다라면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터득하고 도움 받은 지혜를 모아, 지금보다 더 앞서가는 자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학생부
장려상

뒤에서 밀어주는 반장



_ 조 한

... 지난 3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후회 없는 학창시절을 보내겠다고 마음먹었다. 학기 시작 얼마 후 반장 선거일이 공지되고 원하는 후보자는 등록을 하라고 했다. 반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우리 반은 여자가 유독 많은 데다가 같은 중학교에서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내가 나가더라도 뽑히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한이야, 남자아이들이 너를 많이 의지하던데, 반장으로 나가보는 게 어때니?”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어렵게 용기를 냈는데 다음날, 후보 등록한 사람은 자신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게시하라는 무척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글씨도 자신이 없고, 여학생들은 꾸미기도 잘하는데 싶어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다. 여학생들은 똑딱 만들어서 멋진 포스터를 벽에 붙였는데 나는 종이만 들었다 뵈다 하다 보니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었다.

내가 어떤 반장이 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뒤에서 밀어주는 반장’이란 말이 생각났다. 일단 앞에서 끌어주기보다 뒤에서 밀어주는 반장이란 글씨를 커다랗게 썼다. 배경으로 뒤에서 수레에 탄 아이를 밀어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게시물을 붙이고 나니 다음날부터는 이왕 나가는 거, 꼭 반장이 되어야겠다 싶었다. 반장감으로 보이고 싶어서 수업시간에 손들고 발표도 하고 선생님 말씀에 답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뒤에서 “한이, 책 보고 말했어요.”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 분명히 책을 보고 말한 게 아닌데…. 변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 학생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과학대회에 남학생들과 조를 짜서 나가기로 한 계획서를 내가 제출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내지 못하는 큰 사건이 생겼다. 나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선거 전날 저녁에 선거연설문을 준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감명받아 비슷하게 연설문을 썼다.

‘안녕하세요. 조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면서 수 십 명의 반장 부반장들을 만나보았을 겁니다. 매년 반장 선거 때마다…. 종략, 저는 진짜로 어떤 학급을 평가하는 기준은 과연 그 반 학급운영에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문제점이 있을 때 누구라도 목소리를 내서 말할 권리가 있는가, 그 학급에 소외된 학생이나 놀림을 당하는 학생이 존재하는가, 바로 이런 것이 어느 학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반장이 되어도 완벽한 반장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특히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반장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반장을 뽑는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반장이 된 듯 자신 있어 하던 여학생들은 의외로 공약 발표 시간에 별말을 하지 않았다. 인맥으로 뽑힐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내 차례가 되어 앞에 나갔다.

의외로 모두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준비한 말을 하다 보니 좋은 반장이 되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힘을 실어 말하게 됐다. 연설이 끝나자 모두가 큰 박수로 환호했고 결국 내가 반장에 뽑혔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다른 후보들이 포스터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수군수군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다. 먼 학교에서 와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내가 반장이 된 것에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반 친구들과

친해져서 후보로 나왔던 여학생들과도 불편함이 없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다. 후보 등록 포스터를 붙이고, 공약을 만들고, 선거연설문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아는 사람끼리 찍어주게 되고 파벌이 형성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포스터를 만들면서, 공약을 생각하면서, 연설문을 쓰면서,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 것 같다. 초등학교 때 인기몰이로 반장을 한 적은 있었지만 선거에 대해 생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선거는 선거의 중요성, 특히 준비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 내가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후보를 선택하게 되든지, 모든 선거를 치를 때 대중 떠오르는 이미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로 뽑힌 사람은 결국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사람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약속을 해야 하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선거



_ 조희은

... 손바닥만 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조심스레 부스 속으로 들어갔다. 부스 안 곳곳에서 이미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그 흔적들을 바라보다 작은 막대 하나를 손에 쥐고 붉은 문양을 눈에 담았다. 그러길 잠시, 하얀 종이 위 그어진 선들 사이 빈 곳으로 막대를 내렸다.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흔적을 보자 왠지 모를 아쉬움이 일어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다시 한번 막대를 짚어 눌렀다. 그렇게 나의 마지막 선거가 끝이 났다.

이번 전교 회장 선거는 10대로서 참여한 '마지막 선거'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약 12년의 학창시절 동안, 때로는 후보자로서, 때로는 관리 위원으로서, 때로는 유권자로서 참가했던 많은 선거들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항상 선거에 참여하고 난 뒤에 왠지 모를 공허함과 기대감이 상충하는 묘한 기분에 휩싸이곤 했는데 이번 선거는 그 크기가 여느 때보다 컸기 때문에 이 기억을 글로 남겨 간직하고자 한다.

본인의 학교 선거는 실제 대통령 선거와 가장 유사한 직접선거 진행 방식을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선거 방식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과 선거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엄격한 교칙에 의해 운영하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논란 없는 선거를 치러내고 있다. 기존에 참여해왔던 선거들과 가장 차별화되고 특별하다고 느낀 점은, 전체 투표율과

유효투표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투표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득표수보다 기권표가 더 많이 나와 논란이 생기기도 했던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와는 달리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은, 본교 '선거관리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확실한 선거 운영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앞서 각 학급의 '품격위원(일반적으로 학급의 부반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들로 조직된다. '품격위원장'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의 선발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학생회장 선거 예고'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게시되는데, 이 예고에는 6가지의 입후보 자격과 후보 등록 일정, 후보 등록 방법이 명시되어있다. 후보 등록 기간 동안 학생회장과 창의부위원장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출마하게 되며 50명의 학생에게 동의 서명을 얻어야 출마할 수 있다.

학생부의 후보 자격 검증이 끝나고 정식 후보자로 인정되면, 선거 운동을 도와줄 13명의 선거인단의 학번과 이름을 제출한다. 선거 준비 및 운동은 오직 지정된 선거인단만 참여할 수 있다.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각 후보들의 이름과 별점 내역이 담긴 공고를 통해 학생회장 후보자들이 공지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본교의 선거운동은 엄격한 선거 교칙에 의해 진행되는데 학생부에서 제시한 선거운동 허용 시간을 어길 경우, 상대방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 허용된 범위 이외의 선거운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 10여 가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3단계(경고, 선거운동 중지, 후보자 사임)의 벌칙이 적용된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담은 플래카드와 기호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품들을 들고 학생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열정적인 선거운동은, 학생들의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각 팀별로 노래, 춤 등 다양하고 독창적인 선거운동을 선보인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교내 방송부와의 협력을 통해 촬영한, 각 후보자들의 공약 영상을 학생 식당에서 중식과 석식 시간에 방영해주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각 후보자별 공약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올해 처음 실시된 선거운동 방식이었는데, 각 후보자 별 공약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본교 학생회장 선거의 하이라이트는 '토론회'이다. 대선을 앞두고 TV 토론을 하듯 전교 회장 후보자들은 전교생과 전 교직원 앞에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실제 대선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규칙을 강화, 적용하여 제한시간 동안 입론과 반론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과정이며,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자신이 선택할 후보자들의 자격과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토론회의 꽃’이라 불리는 ‘교사의 질문’은 전통적으로 밀봉된 봉투로 전달되어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하기 때문에, 임기응변 능력 및 공약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순서이다. 이번 토론회 ‘교사의 질문’은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학교의 예산이 필요할 때도, 교직원의 협조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약을 제시된 기준(학교 예산 필요 유/무, 교직원 협조 필요 유/무)에 따라 나눈 후 각 공약 별 대책을 발언해주시시오.” 이었다. 1분 이내의 준비 시간만을 가지고 발언해야 했기 때문에 후보들이 얼마나 자신의 공약에 대한 확신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가 끝나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한 번 더 고려한 뒤, 다음 날 도서관 앞에 설치되어있는 선거 부스에서 투표한다. 점심시간 이후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이 개표를 한다. 각 후보별 득표수와 당선 후보를 기재한 당선 공고를 게시하면 약 일주일 동안의 학생회장 선거가 끝나게 된다.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특히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소중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세 개의 직선과 원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문양이지만, 그 작은 문양 하나하나에 한 사람의, 한 학교의, 한 국가의 운명이 짊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투표권을 성실하게 행사할 것이라 약속한다. 청소년을 벗어나야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인 참정권. 20년의 시간을 기다려 얻은 소중한 권리인 만큼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다짐하며, 성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나의 ‘첫 번째 선거’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학생부
장려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작은 손길, 선거 참여



_진성민

...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해야지만 다른 사람들 또한 알 수 있다.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주스를 마시고 싶다고, 과자를 먹고 싶으면 과자를 먹고 싶다고 말해야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은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쉽다. 하지만 집단의 크기가 학교, 아파트 단지, 나아가 하나의 구나 시까지 넓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바로 선거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들 것이다. 과연 여러 명 중 한 명을 뽑는 행위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이다. 하지만 이는 투표와 같은 선거를 과소평가하는 데서 비롯된 생각이다. 물론 내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면담을 하거나 건의를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하기는 하나, 선거는 나의 가치, 그리고 집단의 대표가 ‘나’라는 개인에 대해 고려하고 노력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여러 명의 ‘나’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고군분투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합리적으로 움직이려 노력한다.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입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은 그들을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보자면, 자율투표제가 진행되는 학생회장 선거에 A라는 친구가 입후보했다고 가정해보자. A는 2학년의 몇몇 학생들은 투표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때 A는 당연히 투표하지 않고 축구를 할 2학년의 친구들을 위한 공약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친구들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선거와 상관없는 친구들까지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는 입후보한 후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내보이며, 그들이 정치 활동을 진행할 때 '우리'를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극을 준다.

최근에 생겨나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신조어가 있다. 바로 'n포 세대'이다.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며, 청춘을 소비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이다. 십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나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 선거에서 투표율 집계를 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20대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대로, 장년층을 비롯한 고령층의 경우 상당히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치에 계속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약이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을까? 당연히 노인복지나 실버산업에 노력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어떠한 산업이 더 우월한 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선택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보다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통과되며,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섭리라는 것이다. 결국 사회문제의 해결 또한 선거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아마 수많은 중, 고등학생이 그러는 것처럼, 내가 경험해본 선거는 아직까지는 교내 회장 선거에 지나지 않다. 하지만 그 교내 선거에서조차, 나는 선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전교 회장을 뽑고 전교 부회장을 뽑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냥 아무나 돼서 잘하겠지 뭐...'라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투표용지에 장난을 치거나 일부러 무효표를 내는 등 진정한 선거 의식을 갖추지 못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거에서 장난으로 투표한 한 학생이 회장에 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그 학생의 인지도를 보고 투표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 그 학생은 장난으로 회장 후보에 나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었다. 처음에는 개의치 않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교회장이란 자리는 중대한 지위였다. 스포츠를 좋아하던 그 학생은 다른 공약을 제쳐두고 축구나 농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애를 썼고, 이는 많은 아이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일 년을 지내도록 만들었다.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표의 의미를 이해했다.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다는 말이 있다. 내가 이 학교를 넘어서 하나의 구, 시의 일원으로서 내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나는 나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이다. 아직은 고등학교 2학년이기에, 투표권을 가지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상 속의 투표가 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투표조차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서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집단을 결정짓는 투표에 성실히 참여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의지를 갖추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의 원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어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 간단한 한 줄을 위해 인류는 수천 년간 저항해왔다. 절대군주 체제하에 불평등을 느낀 시민들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위해 시민혁명을 이끌었고, 그 결과 지금의 헌법이 있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한 표지만, 이 한 표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3.15 부정선거 이후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 혁명, 유신 체제에 저항하며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했던 부마항쟁,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고 독재 국가에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의 형태를 일구어낸 6월 민주항쟁까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다. 그러나 고인 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70%대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의 경우 5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절반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순간의 휴식을 만끽하기 위해 선거를 무시하고 놀러 가거나 여가생활을 즐기곤 한다. 과연 하루의 휴식이 4년간의 우리의 삶을 결정지를 투표만큼이나 가치 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조의 일부이다. 이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각종 기본권 및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권리를 가지려면 책임이 뒤따른다. 누구나 국가의 정치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먼저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의 나태함을 지적하기 전에, 최소한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사소한 권리조차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정치에 대해 알기알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말이다.

흔히 하는 변명으로 ‘이번 선거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한 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기권표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기권표는 후보들 중 자신의 기대치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기에, 정치를 더 지켜보겠다는 일종의 감시망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전투표와 같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편의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태만한 생각보다, ‘내가 먼저’ 또는 ‘나만이라도’와 같이 우리의 주권의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학생부
장려상

선거, 나를 바꾸다



_ 차현준



...

1. 촛불집회

아마 그때 나는 '중2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나만의 세계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였고, 심심한 시간들을 때우기 위해 곧잘 PC방을 출입하곤 했었다. 이런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신 부모님 덕에, 깊은 대화는 없었지만 점점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뉴스를 보던 부모님은 매우 강한 어조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집회의 시작이었다. 내가 사는 전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따라나선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지만, 점차 집회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귀에 익숙하게 들려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교과서에서만 들었던 대한민국헌법 제3조 1항과 2항, 그 노래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한목소리로 외친다면 그 어떤 거대한 권력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봄이 오고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적 장면을 학교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선생님들께서는 국민이 승리하는 순간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나

역시 그 순간을 만들어낸 주역이었다는 생각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비록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활 속에서 정치를 배우나가고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거창한 생각까지 들었다.

2. 대통령 선거

대통령 탄핵 이후 갑작스럽게 다음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아직 중학생이었고 투표권도 없었던 까닭에 이전이라면 전혀 관심도 없었을 테지만, 지난해의 경험들은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나를 몰입하게 만들었다. 특히 나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치러진 후보 간 TV 토론회였다. 토론회 이후 방송 뉴스는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전달하기보다는 단순히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나에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정책을 보고 그 정책이 과연 우리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좀 더 집중해서 토론회를 지켜보았다. 놀라운 것은 후보자마다 각 분야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토론이란 논리적인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에서는 설득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자신의 주장만 넘쳐났다.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는 나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다. 북한이 '주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장면에서 나는 많이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물론 내가 아직 어리고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 너무 몰랐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지만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 장면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많이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3. 선거, 나를 바꾸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나도 고등학생이 되었다. 지난 시간은 선거와 정치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전북 학생 평화통일 기자단의 10기 멤버가 되었다. 2월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경기 모습은 나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로 이어질 화해의 분위기는 어쩌면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몇 차 핵실험' 등 과격한 모습으로만 익숙하던



북한의 이미지가 정치로 인하여 바뀌는 상황은 낯설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스포츠 마케팅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통일 이후 스포츠 분야는 남북한 국민들의 통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나는 스포츠 분야 전문가가 되어 남과 북의 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확인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스포츠 분야의 강대국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 북한까지 하나의 팀으로 단일화된다면 세계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가 사는 전주에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 파리까지 여행을 하고자 하는 나의 꿈도 그만큼 더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선거는 나와 무관한 어른들의 이야기에 불과했다. ‘선거, 나를 바꾸다’, 생각해 보면 꽤 거창한 제목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가 나에게 준 변화는 생각보다 컸다. 작게는 평화통일기재단으로 활동하는 것부터, 좀 더 크게는 미래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까지….

올해 6월 어른들은 또 한 번의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배웠다. 이번에는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보다 성숙한 시선으로 선거를 배우고 싶다. 우리 지역의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나부터 후보들을 알아가고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공부하고 싶다. 나를 바꾸는 것이 지역 사회를 바꾸는 것이며 더 크게는 우리나라 모두를 옳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믿는다.

언젠가 나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작은 한 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작은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상식의 힘을 믿는다.



선거체험수기 수상작 모음집

발행일 : 2018년 6월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집부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출판 : 다아디자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가길 21(필동2가)

발간등록번호 : 34-9761091-180009-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이 책에 실린 모든 글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비매품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